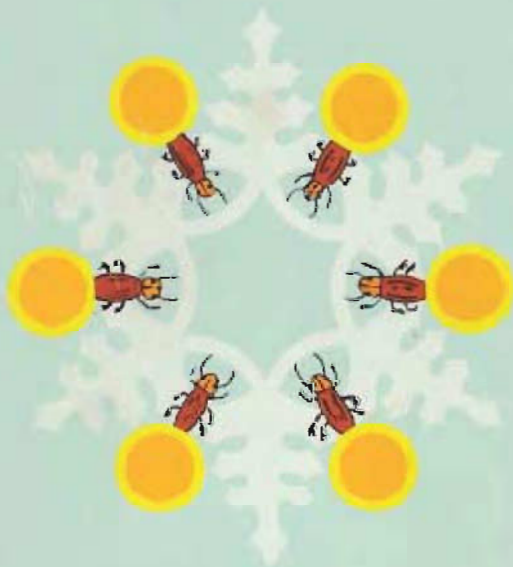


함흥고보(함남중학) 동창회 간행
동창회지 제2호
간행일 1987년10월
총 178쪽

同窓會誌

(第2號)



1987.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同窓會誌

第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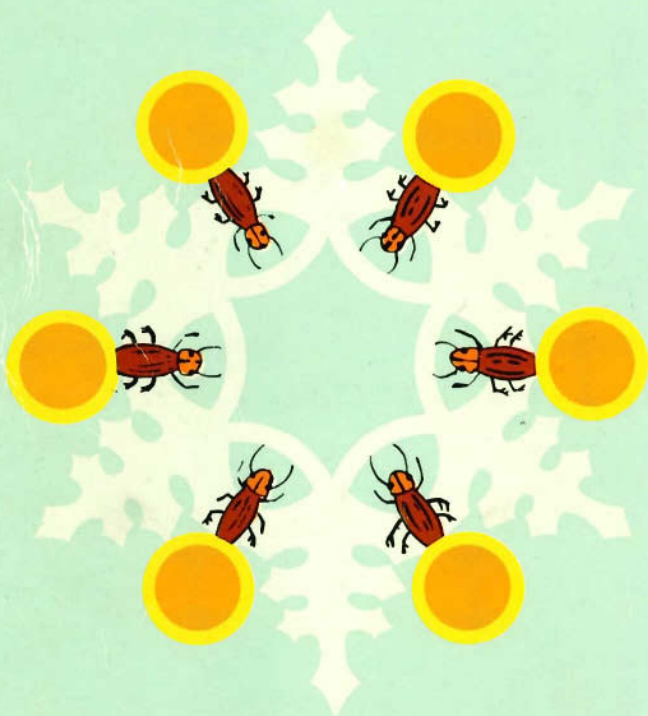
1987. 10

咸興高普(咸南中學)

同窓會

同窓會誌

(第2號)



1987.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第2號 同窓會誌 發刊을 祝賀합니다.



發 展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美東部地域支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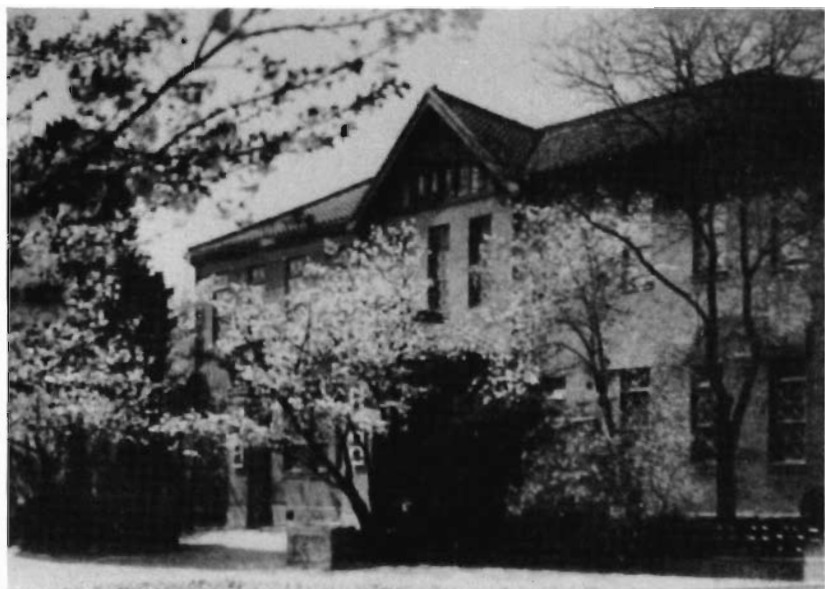
- | | | |
|-------|-----|---|
| ① 支會長 | 金 澄 | 次 |
| ② 副會長 | 韓 世 | 鎬 |
| ③ 顧 問 | 金 子 | 勳 |
| | 金 基 | 惠 |
| ④ 總 務 | 高 勝 | 榮 |

同窓會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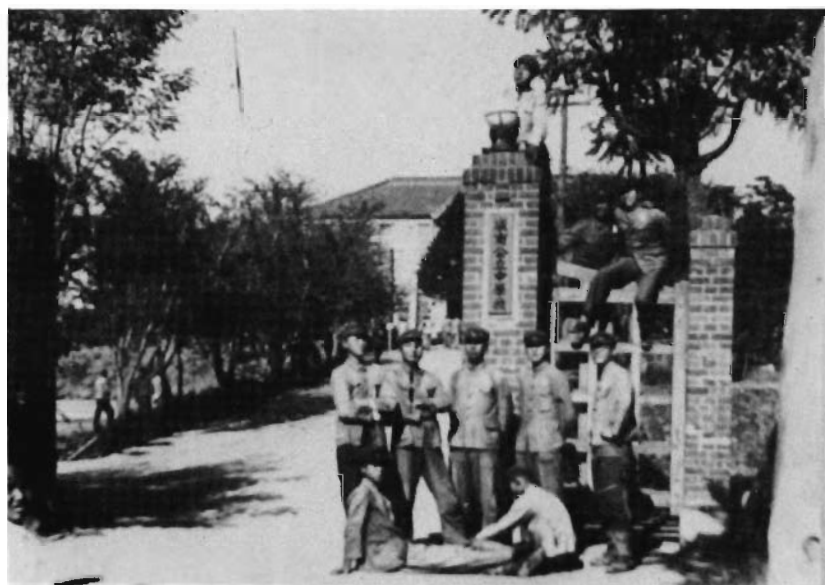
(第2號)

1987.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母校 校舍 玄関



母校 校舍 正門



歷代會長



二代會長/ 金連珪



初代會長/ 李東準



四代會長/ 金載元



三代會長/ 姜洙楯

目次

寫眞 / 母校、全景、校旗、歷代會長	會長 金載元	1
머리말		
沿革		3
同窓會 會則		5
追憶		
① 良心 自殺한 五萬원 턱 택시 強盜	(七回) 姜錫福	9
② 高普時節부터 六·二五까지	(八回) 金仁燮	12
③ 金日成 治下에서의 回顧의 一端	(八回) 馬鍾國	15
④ 威興과 그 周邊	(九回) 金載元	17
⑤ 懷古談	(九回) 咸泰元	21
⑥ 解放에서 越南하기까지	(十三回) 金竣宋	24

7	咸興高普에서 겪었던 光州學生事件	(十五回) 金 澄 次	28
8	臣民時代の 邦語有感	(二十回) 金 明 植	31
9	追憶과 幻想	(二十回) 韓 大 淑	36
10	아프리카 大陸에서 十五年間의 W H O 醫療防疫事業을 마치고	(二十一回) 朱 仁 鎬	39
11	韓 恂 鉉 先生님과 나	(二十一回) 韓 番 石	43
12	博物時間의 붕어와 연못 그리고 앨범	(二十二回) 金 禱 庚	45
13	우리들 동창회에 거는 기대	(二十三回) 李 漢 淳	47
14	獨白과 回想	(二十四回) 韓 時 坤	50
15	南中生活과 自然健康法	(二十四回) 韓 學 綸	53
16	京橋莊과 遲刻 醫學徒	(二十五回) 趙 曄	56
17	學窓時節을 回顧하며	(二十六回) 梁 泰 鱣	58
18	登山路와 北嶺 땅	(二十七回) 元 章 煥	60
19	못다 핀 꽃들의 추억	(二十八回) 金 鍾 殷	63
20	별난 우리二十八回	(二十八回) 朱 赫 淳	69
21	우리 萬歲橋	(二十九回) 金 淳 郁	73

22	어른과 어린이	(二十九回) 金在楨	76
23	거울	(二十九回) 韓鎭慶	78
24	愚公의 統一祈願	(三十回) 朴定仁	80
25	解放前後의 南中生活	(三十一回) 金明哲	83
26	「파라과이」를 거쳐 濠洲에 定着 나의 移民 手記	(三十二回) 韓碩愚	86
27	六·二五動亂의 고 宿命의 五分	(三十二回) 金東一	90
■	任員 및 期幹事 名簿	95
■	同窓會 會員 名簿	99
■	美東部地域支會 會員名簿	149
■	作故 會員 名簿	155
■	參考資料	161
○	一九四〇年(昭和十五年)號 校友會誌 所載 卒業生 名簿	
○	同 特別會員(先生 및 職員)名簿	
■	編輯後記	163

머 리 말

생각하면 同窓會란 모한 組織이다. 분명히 우리는 四·五
年間 靑상을 맞대고 같이 공부를 하였다. 그것도 一生의 人
格 形成의 第一 重要な 時期에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는 그것이 적어도 四〇餘年前 또는 六〇餘年前의 일
이다. 그 오랜 사이에 우리와 같이 과란이 많고 계층의 變
화가 심한 社會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의 生活에 너무나 많
은 變化가 생겼다. 그래도 一年 한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앉으면서 서로 반갑고 느끼는 감회가 많다.

同窓會는 이렇게 모한 그리고 재미있는 會이다. 이러한
會員들 사이에 좀 더 유대를 깊이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
이 이 同窓會誌이다. 다행히 그 첫 號는 그 많은 誤植과
불비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 사이에 좋은 평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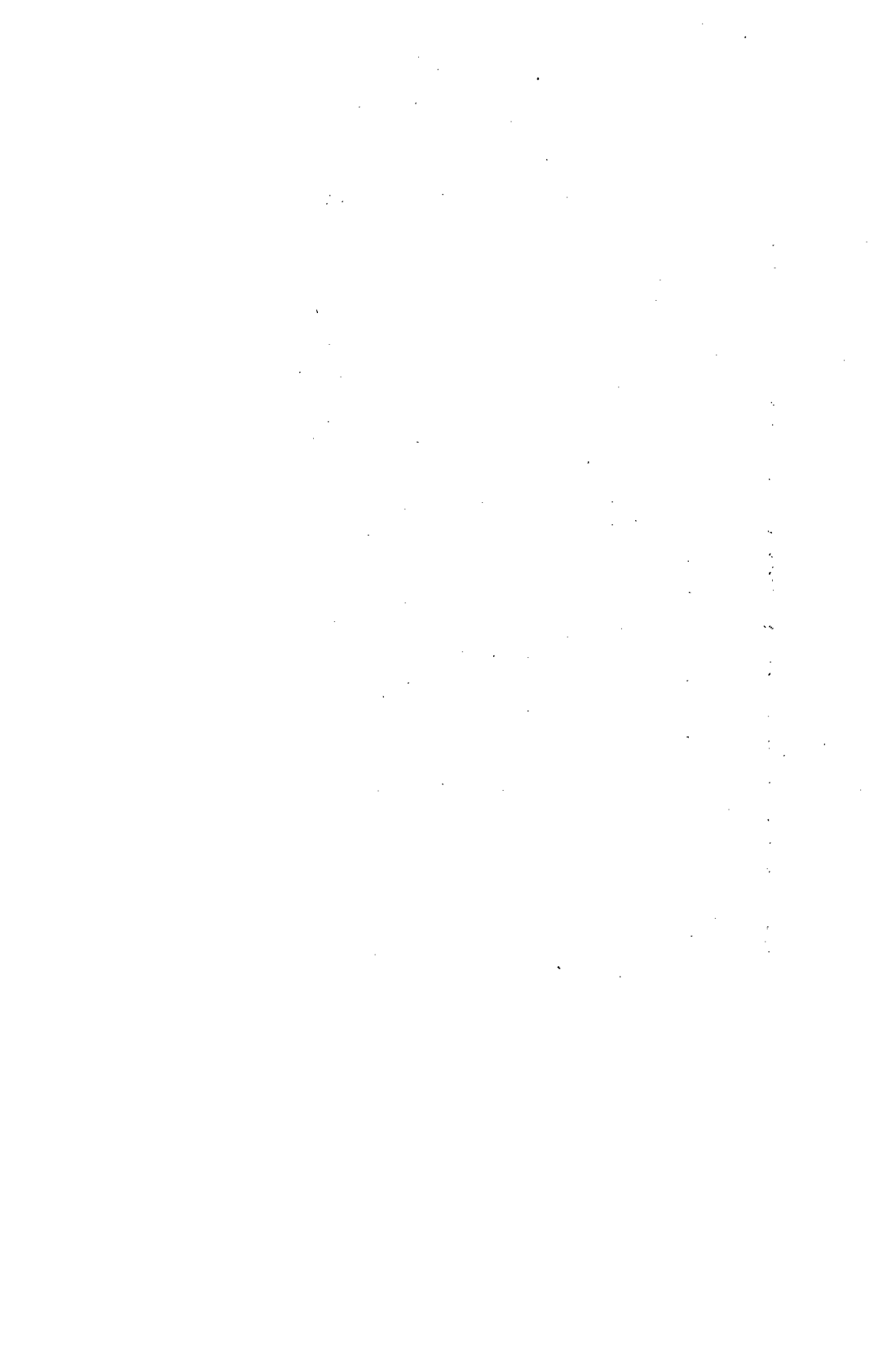
을 받아 이제 그 둘째호를 내게 되었다. 우리의 두고온
이북의 산천에 대한 鄉愁가 우리들한테 묻치는 작용을
한 것이다.

이번도 많은 불비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너그러
이 보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各 家庭에 幸運이 깃들기를 바
라는 바이다.

一九八七年 一〇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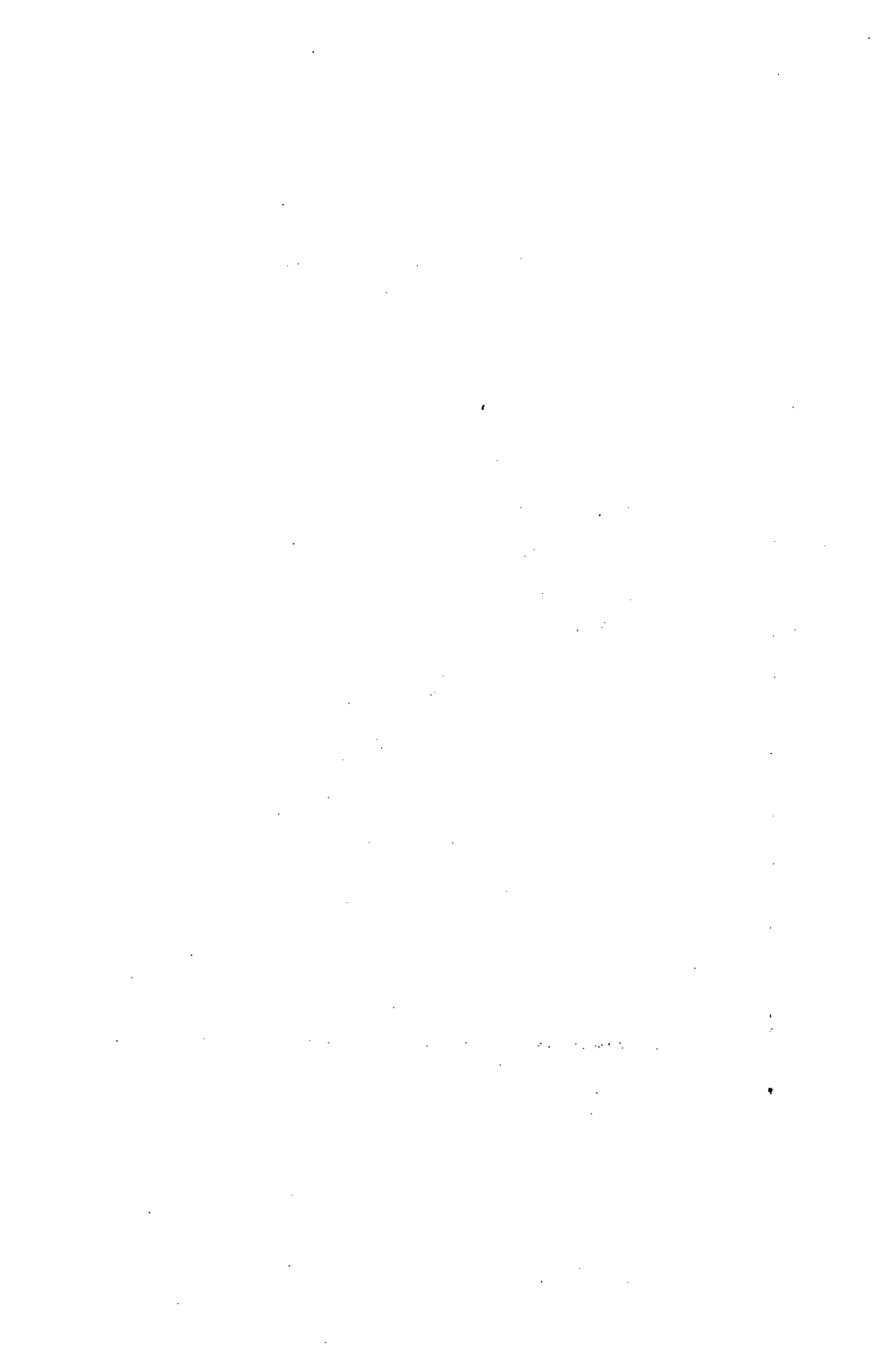
同窓會長

李 載 元



威興高普（威南中學）沿革

- 一八九七：威興鄉校에서 私立學校로 發足
- 一九〇五：私立豐興學校
- 一九〇八：威興私立高等學校（豐興學校와 日新學校併合）
- 一九一一：威興私立高等普通學校
- 一九一八：官立威興高等普通學校
- 一九二五：威興公立（道立）高等普通學校
- 一九三八：威南公立中學校
- 一九四五：威興中學校
- 一九四七：學制改編으로 閉鎖



威興 高等普通學校 (威南中學校)

同窓會 會則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威興高等普通學校(威南中學校)同窓會라 稱

한다.

第二條 本會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但, 地方에 支會를 設

置할 수 있다.

第三條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는 同時에 協

助 團結을 公고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會員: 私立威興高等學校, 私立威興高等普通學

校, 官立威興高等普通學校, 威興公立高等普通學

校, 威南公立中學校 및 威興中學校 卒業者와 同

校에 在學한 者로서 同期幹事의 推薦에 依하여

任員會가 認定한 者

(2) 特別會員: 母校에 在職하였던 教職員

第五條 本會의 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갖는 同時에

會務에 關한 發言權과 決議權을 갖는다. 但, 特別

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이 없다.

第二章 任 員

第六條 本會의 任員과 그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會 長 1 名

副會長 3 名

監 事 1 名

總 務 1 名

副總務 1 名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全般을 管掌하며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務를 分擔한다.

(4) 會長 有故時는 最年長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

行한다.

(5) 總務는 會長의 指示에 따라 會務全般을 總括運

營하고, 財政 會計事務를 管掌한다.

(6) 副總務는 總務를 補佐하고 本會의 諸般 書類를

保管 管掌한다.

(7) 監事는 本會의 運營, 財政狀況을 隨時監査하여

會長과 總務에 報告한다.

第七條 本會는 本會發展에 有功한 會員中에서 名譽會長 및 顧問 若干名을 推戴할 수 있다.

第八條 本會의 任員은 定期總會에서 選任한다.

第九條 本會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任員 有故時는 任員會 및 期別幹事合同 會議에서 選任한 任員이 殘餘任期동안 會務에 參與하고 次 期總會에서 認准을 받는다.

第十條 各期間의 會務連絡을 위하여 期別幹事 1名式을 選定하여 任員會에 報告키로 한다.

第三章 會 議

第十一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다.

- (1) 定期總會：每年 十月에 開催하고 歲入歲出의 承認 任員選出 會則改正 및 主要案件의 承認
- (2) 臨時總會：任員會 및 三十名以上 會員의 要請 이 있을 때 開催한다.
- (3) 任員會：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隨時로 召集할 수 있다.
- (4) 幹事會：各期別 幹事의 會議로서 任員會의 要請으로 開催할 수 있다.

第四章 財 政

第十二條 本會의 經費는 贊助金 및 總會時 會費로 充當할 原則으로 한다.

第十三條 本會의 基金은 會長 名義로 公認 金融機關에 豫 置한다.

第十四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十月一日부터 翌年 9 月三十日로 한다.

第五章 補 則

第十五條 本會則 第二條의 支會를 設置하고자 할 때 는 該當支會의 會則 및 會員名簿를 任員會 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十六條 本會의 會計에 關한 收入 支出은 任員會의 決議로 處理하고 此를 總會에 報告하여 追 認을 받는다.

第十七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 出席會員 3分の 2 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十八條 本會則 未備點은 任員會의 決議에 依據 處 理키로 한다.

第十九條 本會則은 通過된 날부터 施行한다.

制定 一九七〇年 十月二十四日
改正 一九八四年 十月九日

追 憶



萬歲橋

良心 自殺한 五萬圓 던 택시強盜

韓 錫 福 (第七回)

한 젊은 教授가 「A. J. 토인비」에게 물었다.

「人間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八旬의 老學者는 이렇게 對答했다.

「나는 사람이 사는 目的이란 사랑하고 예지(叡智)를

活用해 創造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 세가

지 目的을 위해 모든 能力과 精力을 바쳐야만 됩니다.」

一九七一年 옥스포드大學刊 「未來에 산다」(Surviving

The Future)의 冊에 나오는 얘기다. 토인비博士는 對

話 끝에 이런 忠告도 잊지 않았다.

「사람은 무엇인가 價値있는 것을 할 수 있는 限 그에게

는 苦痛과 슬픔이 따른다고 해도 肉體의 生命을 연장시키

는 것이 뜻있고 일의에야」

「사랑」과 「예지」와 「創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은 스스로 자신의 生命을 아껴야 한다는 말도 된다.

「토인비」博士의 忠告는 人間이 苦痛속에서도 왜 살

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그는 太陽·바람·空氣
별·地球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人間의 사랑을 받아야
할 형제이며 자매라는 聖「프란시스코」를 尊敬한다고 했
다.

오만원 던 택시強盜 “良心 自殺” 했다. (지난 五月五

日 朝鮮日報 社會面)

「強盜를 한 죄책감 그리고 아무리 돈이 적다 해도 내가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는

유서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食糧을 들고 택시 운전사를 위협 五萬五千元를 빼

앗아 달아난 뒤 五日만에 野山에서 소나무에 노끈으로 목

매달아 죽었다. 지난 五月(八七年) 五日 새벽 경기도

光明市에서 등산객이 시체를 발견했던 것이다. 犯罪를 뒤우

치는 유서가 그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한다.

돈이 없어 구경이 됐건만 늙으신 어머니와 불구인 형을

찾아 볼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三十一歲의 青年은 택시강도가 됐다고 한다. 결국 그는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하고 만 것이다.

良心에 못이겨 自殺한 택시강도 五萬五千원을 강탈한 것이 끝내 마음에 걸렸던가 보다.

「그까짓 五萬원에…」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良心의 눈금은 돈의 액수로 나타나지 않는다. 남의 재물을 훔쳤다는 사실 자체를 良心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良心을 英語로는 「코선스」(Conscience)라고 한다. 그 語源은 「함께 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고 있다.

「함께」의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自身에 대한 贊成 혹은 反對의 證人」이 良心이라는 것이다.

神學者들은 良心을 神의 權威에서 비롯된 神의 命令으로 神聖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良心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마음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良心은 가까이는 家庭에서 밖으로는 社會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이라고도 한다.

「에밀」이라는 한 孤兒의 生長을 주제로 教育 小説을 이다. 죽은 良心은 사람을 밤낮으로 괴롭힌다. 그래서 세

이렇게 감동했다.

「양심! 양심! 신성한 本能이며! 不滅의 하늘의

소리여 知性있고 自由로운 存在의 確固한 案内者의

善惡에 대한 올바른 審判者며 人間을 神과 닮게 하는 자

여! 「루소」는 그런 「良心은 영혼의 소리고 정열은

육신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물론 東洋에도 良心이란 말이 있다. 孟子는 良知 良

能이란 말을 썼다. 良心보다 더 깊은 뜻의 분위기를 갖

고 있다.

王陽明의 「陽明學」은 바로 良知를 根本으로 삼고 있

다.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엔 先天的인 判斷力 論理的

인 感受性 行爲의 自律的인 規範이 있는데 그것을 良

知라고 하며 그 良知를 實踐하는 것을 「致良知」라고 했

다.

요즈음 어떤 政治人은 그것을 「行動하는 良心」이라는

口號로 만들기도 했다. 行動이 따르지 않는 良心은 죽은

이다. 죽은 良心은 사람을 밤낮으로 괴롭힌다. 그래서 세

상인 良心처럼 편한 베게는 없다는 말도 있다. 良心대로 사는 사람은 편한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亂世에 良心의 폭신한 베게를 베고 편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罪를 지으면 罰을 받는다. 이것은 만고의 法則일 뿐 아니라 人間社會의 秩序를 지탱해 주는 根本이다.

罰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良心에 못이겨 自救한 택시강도는 이것으로써 贖罪의 뜻을 남긴 것일까. 만일 人間이 生命의 神秘 그리고 世界에 가득 차 있는 生命과 自身과의 神秘的인 關係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自身의 生命과 자기 領域의 모든 生命에 生의 畏敬心을 갖게 될 것이다. 生命이란 苦痛스럽다고 해서 세손으로 끊어도 罰을 받을 任意의인 것은 아닐 것이다.

요새 어떤 大學生들은 자신의 政治的 要求의 關聯해서 곧 잘 분신자살 하겠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이것

도 따지고 보면 生命輕視의 한 形態라 할 수 밖에 없다. 그 목숨은 대체 어떤 목숨인가. 宗教的으로는 하늘님이 준 목숨이라는 말도 있듯이 제 목숨은 자기 혼자만의 私物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 부모의 목숨이기도 하고 그 친구와 사랑하는 이의 목숨이기도 하고 또한 生命을 畏敬하는 모든 이들의 공동의 목숨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의 世界와 우리 社會를 너무 生命보다 더重要하다는 양과장되는 것을 때문에 生命이 학대당하고 경시당하는 풍조에 휩쓸리는 듯 보인다. 우리는 다시 生命 사랑과 生命 아끼기의 일대 각성을 促求할 段階에 와 있다고 믿어진다.

高普時節부터 六·二五까지

金 仁 燮 (第八回)

내가 처음 高普에 入學한 것은 一九一九年 己未 獨立運動이
 들해였다. 學校는 雲興里 허허 벌판에 木造 二層 建築物
 홀로 우뚝 서 있었다. 마치 성냥갑을 모로 세워 놓은 듯
 한 쓸쓸한 모습이였다. 雲興里 一帶에는 人家는 드문드문
 하고 墳墓들은 無秩序하게 散在하였다. 隱散하였다.

여름 放學이 가까와질 무렵이였다. 스트라의 일이 일어났다.
 獨立萬歲 翌年이라 그때 興奮이 채 가라앉지 않은 狀態였
 다. 어느 날 上級 兄들이 突然授業을 拒否하고 萬歲를 高
 唱하며 盤龍山을 向하여 脫出하였다. 우리 一學年은 다음
 時間에 學校側의 強力制止를 물리치고 喊聲을 지르
 며 역시 盤龍山으로 뛰었다. 그런데 우리는 山에 이미 騎
 馬 憲兵이 配置되어 있을 줄 미처 몰랐다. 멀리서 憲兵 한
 남이 長劔을 빼어들고 내려오고 있지 않은가. 나는 겁이나서
 꼬리빠져라 달려 재빨리 어떤 人家에 들어가 「나 좀 숨

겨 주시오」 하였다. 그 집 할머니가 문 뒤에다 숨겨 주
 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있노라니 豫想했던 대로 憲兵 한
 남이 들어와 이방 지방 문을 열어보며 「이 집에 學生이 안
 들어 왔느냐」고 소리치는 것이였다. 내 가슴은 두근두
 근 방망이 쳤다. 그러나 그놈은 아무 所得 없이 물러갔
 다. 나는 마음 놓고 學生 아닌 척 하고 大門 밖에 나가
 보았더니 憲兵놈이 學生 한 명을 붙잡아 가지고 오는 것
 이였다. 그 學生이 바로 우리班 學生이였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 하였다. 붙들려 가는 뒷모습이 가없었다.

一學期 放學은 始作되었다.

放學이 끝나고 二學期가 始作되었다. 學校로 다시 갈 마
 음이 없었다. 學校에서는 檢校하라는 督促狀이 두차례 왔
 다. 끝내 拒否하였다. 兄님이 혼자 다녀서 다음해 후
 業하였다. 二年을 쉬고 나니 다시 學校가고 싶어졌다.

入學試驗을 다시 칠 때 文錫烈 先生이 나를 보시더니 「이놈 또 다시 中退할려면 아예 入學 안 시키겠다」 하셨다. 容怨을 빌었다. 우리 兄님 金化燮이 學校 庶務課에 勤務하고 있었기 때문에 文先生이 나를 記憶하셨나 보다. 多幸히 入學이 許可되었고 乙組에 配定되었다. 나는 卒業할 때 까지 줄곧 乙組生活만 하였다.

學校에 다시 들어와 보니 아주 달라졌다. 앞에 講堂과 新館이 세워졌고 뒤便에 音樂教室이 달렸다. 學校다운 面貌를 具顯시킨듯 했다. 學校 뒤에는 넓은 地面을 닦아 넓디넓은 運動場이 생겼다.

우리 二學年 때 품이었던가 學校에서 놀랄만한 事件이 터졌다. 上級生 某兄이 音樂教室 壁에 커다란 落書を 하였다. 다음과 같다.

自由なき辯論 信義なき校長：

天皇滅亡 日本滅亡！！

朝鮮獨立萬歲！！

至極히 놀랍고 고소한 短句였다. 咸興社會가 온통 들끓었다. 日本本土까지도 多少 흔들렸나 보였다.

歲月은 流水같이 入學한 지 於焉 五年이 다 됐다. 우리 들은 어엿한 成年이 되었다. 다들어 주시던 모든 先生님께 感謝한다. 日本人 教師들은 民族的 感情은 있었을망정 恩師임에는 틀림없다. 大庭校長은 人格者였다. 印度哲學者였다. 理論과 口辯의 達士였다. 가끔 咸南新報社와 論爭이 벌어졌다. 번번이 V字를 그렸다. 修身時間 校長先生의 講義는 귓속에 쏙쏙 들어갔다.

우리 卒業앨범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訓句를 넣어 주었다.

着眼高則 見理不感

簡명한 名句였다.

一九二六年 三月 八日 이 날은 우리들에게 큰 「애픈」이었다. 卒業하는 날이었다. 卒業式을 마치고 情든 書を 下直하고 「야」「자」하며 허물없이 뛰놀던 學友가 서로 作別하게 되었다. 서로 握手 抱擁하며 惜別의 눈물을 쏟았다. 「잘 가거라 잘 있거라 언제 다시 만날건가」 하며 期約없이 빨빨이 헤어졌다.

그럭저럭 卒業後 十年이나 되던 해에 傲慢不遜한 日本이 支那事變을 일으키더니 及其也 世界大戰으로 까지 飛

火하여 美國原子彈에 魂飛魄散하고 無條件 降伏하는 바람에 우리는 待望하던 獨立을 얻게 되었다. 그때의 感激을 어찌 여기다 다 적으랴. 그러나 그 感激의 눈물이 마르지도 못한 채 우리의 期待는 霧散되고 말았다. 疆土가 허리 끊겨 北은 蘇軍 말발굽에 짓밟히게 되고 赤徒 支配 下에 呻吟하게 되었다. 우리 醫師들도 그놈들 마음대로 끌려 다녔다. 나도 自營病院을 하다가 市立傳染病院을 맡아 보라는 指示를 받았다. 腸지브스 발진지브스 천연두 디프테리菌이 득실거리는 病室이었다. 生命의 危險을 무릅쓰고 治療에 臨하였다.

當時 咸興市長에 우리 同窓 文錫九君이 앉아 있었다. 하루는 市保健課에서 保健事業上會議가 있으니 와달라는 것이었다. 會議가 始作되었다. 保健課長이 發言하길 「傳染病院長은 어찌하여 事業이 그렇게도 不實하냐」 아마 死

亡者를 많이 내었다는 뜻인듯 하였다. 잠자코 듣고만 있노라니 市長 文錫九가 일어나서 「保健課員은 듣거라 너희들은 말은 바 豫防事業을 等閑히 하여 患者發生 시켜 놓고 그 責任을 傳染病院에다만 轉嫁할 수 있는나」 「一喝 하니 場內가 잠잠하였다. 賊反荷杖이다. 錫九와 나는 理念이 달랐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超越하고 나를 擁護하여 주었다. 고마웠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피 아닌 友情 亦是 물보다 진하구나 하였다. 그에게 變변한 友人情 亦是 물보다 못한 채 越南하고 말았다. 錫九야 부디 무사히 오래도록 잘 살아라. 굶주리고 헐벗은 以北 同胞들 金日成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두고온 錦繡江山 하나도 變치 말고 옛모습 그대로 간직하였다가 統一되는 그 날 반갑게 보여주소서 안녕.

一九八七年 三月 十三日

金日成 治下에서의 回顧의 一端

馬 鍾 國 (第八回)

解放이 되고 보니 우리나라에는 각 방면에 사람이 부족하였다. 우리 社會에 한시도 없어서 안될 종이(紙)만 드는 기술자도 불과 몇 사람 안되었다.

나는 京都帝大에서 人絹필프와 人絹糸방면들을 공부하고 木材에 대한 實驗을 하다가 解放과 더불어 故鄉인 吉州에 있는 필프工場(日帝時의 北鮮製紙)의 整理와 運營을 맡게 되어 그곳의 지배인으로 만 五年間 金日成治下에서 일하게 되었다.

아래에 한 두가지 그때의 經驗談을 털어 놓으려 한다. 하루는 나의 五寸叔이 되는 工員이 나의 집에 찾아와서 실제로 의외의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는 黨의 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행동 을 감시하여 일일이 黨責任者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꼼꼼히 생각하니 그것은 우리 재래 道德上 있을 수 없는 일임으로 이번에 會社를 시작하고 노무자 모집에

應하여 蘇聯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나는 五寸叔이 나의 집에 빈번히 出入하는 것이 친척간의 우의로만 알고 있던 것이 그러한 감시에 目的이 있었다는 데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만류에도 不拘하고 그는 소련으로 갔는데 그후의 생사는 일체 알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 會社의 業務部長은 吉州에 주둔하는 소련사령과의 命令으로 나를 감시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南韓에 있는 나의 妻男 金判述이 보낸 吳根八이라는 사람이 城津港에 와서 필프 製紙工場에 使用할 수 있는 物資를 배에 싣고 왔으니 맞나보고 싶다는 電話가 왔다. 그때는 南北間의 商去來가 있을 수 있는 때라 그의 청에 따라 그사람의 배에 가서 보았으나 規格에 맞는 것이 없어서 平壤에 가서 産業省 資材部와 상의 할 것을 건의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본 業務部長은 내가 이남에서 온 사람과 맞나는 등 스파이 행동을 한다고 蘇聯사령관에 밀고를 한 모양이었다.

얼마후 소련사령관 자신이 나를 불러 나의 행동을 자세히 觀察하였으나 사상이 온건하다는 것이 들어났으니 안심하고 工場管理를 더욱 잘 한다고 오히려 격려하였다.

이렇게 北韓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염탐하고 감시하고 밀고하기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아마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黨員은 條件없이 蘇聯黨史를 비롯하여 때로는 金日成이가 말한 이른 바 語錄을 勤務時間外에 工夫하여야 하는데 問題를 가지고 한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래 組織에서 부터 郡黨 道黨에 이르기까지 몇번씩 되풀이하여 토의하고 또 올라가서 中央黨에서 次年一, 二次 綜合評價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이 學習이라는 것이 第一 싫어서 適當히 구실을 만

들어 불참하는 것이 일쑤였는데 하루는 朴憲永이 綜合評價報告때 놀랍게도 吉州팔프工場 支配人인 나에게까지言及하는 일이 생겼다. 즉 吉州팔프工場 支配人이라는 자는 學習을 하라 하면 그런 時間이 있으면 技術書籍을 뒤지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자에게 우리가 어찌 支配人이라는 막중한 任務를 맡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한다.

이러한 社會에 내가 계속 있었다면 必然 숙청의 對象이 되었을 것인데 六·二五動亂때 나는 그 機會를 놓칠 세라 南쪽으로 도망쳐 왔다.

생각하면 소름이 치는 과거이었다. 나는 南韓에 와서 三豐製紙 副社長으로 있다가 지금은 자식들과 같이 美國에 와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잊지 못할 것은 咸興에서의 中學時節이며 同窓여러분의 健康을 비는 바이다.

威興과 그 周邊

金 載 元 (第九回)

우리 同窓會員들은 반드시 자기가 出生한 故鄉이 아니라도 그 겨울이면 유별나게 바람 많던 威興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威興을 中心으로 名勝地 古蹟 등의 이야기를 쓰기로 하였다. 그곳을 떠난 지 四〇年 이상이니 그간 얼마나 모습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지 만.

平壤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 大同江을 잊지 못하듯이 威興에 살아본 사람은 城川江을 잊을 수가 없다.

이 江은 威興을 이루게 한 앞에 넓게 전개하는 沃土 그것을 우리는 우리나라 三大 평야의 하나라고 배워 왔다. | 의 가장 큰 물줄기이다.

특히 그 江을 건너는 萬歲橋는 威興第一의 명승지로서 우리의 너무나 일찌기 세상 떠난 同門의 한 사람인 安壽吉도 城川江이라는 小説을 남겼다.

특히 만세교에서의 정월 대보름 다리 밝기는 다른 고을

에도 널리 알려 있는 만큼 옛날에는 監司까지 부하들을 데리고 나와 서민들과 같이 어울려 거닐었다고 한다. 이 다리 밝기 풍속은 高麗때 부터 내려 오는 것으로 男女가 쌍으로 짝을 지어 밤새도록 다녔다고 전하여 온다. 그때는 아직은 男女不同席이라고 떼어 놓는 朝鮮王朝의 유교의 規律이 심하지 않을 때이었다.

말할 나위 없이 威興의 유명한 명승지는 城川江을 눈 아래로 내려다 보는 樂民樓이었다. 그러나 樂民樓는 벌써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그 자리에 倭政時代의 유력자 洪某 변호사의 자택이 있었고 그 아래에 역시 줄부가 된 金某가 자기 집을 짓고 살았다. 威興의 명승지를 獨占한 그 사람들에게 威興市民들은 못마땅한 심정이었으나 그런 일이야 참고 살았으므로 별 問題가 없었다. 一九七四年에 새로 펴낸 增補 威山誌에는 옛적 樂民樓에서 갖을 쓴 사람들이 발 아래에 있는 萬歲橋를 굽어보는 사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威興과 密着되어 있는 것은 역시 威興의 鎭山인 盤龍山이다. 옛날 日本사람들은 盤龍山에 蟠자를 썼다. 龍이 서리고 있었다는 뜻으로는 역시 蟠자가 理致에 맞는 듯도 하다. 여하튼 威興을 中心으로 하는 古蹟과 전설에는 盤龍山은 그 中心的인 役割을 하고 있다.

盤龍山 중턱에는 馳馬臺라는 곳이 있다. 威山誌에는 馳馬臺에서 있는 碑閣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지붕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으나 비에 새겨서 있는 李太祖의 친필이라는 馳馬臺의 석자는 뚜렷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中學校 때는 벌써 비는 없어진 지 오래 되었다.

威山誌에 의하면 擊毬亭 위에 큰 돌무덤이 있었다. 그것은 李太祖의 말 무덤이라고 하였다. 그 말은 太祖의 愛馬 중의 하나이었는데 달리는 것이 느려 죽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馳馬臺는 그가 말을 타고 올라 다니던 곳이라는 뜻이다. 격구정이라는 정자도 실제로 있던 정자로 옛사람들의 詩에도 많이 나오는 이름이다.

威興 일대는 이곳에서 세력을 擴張하여 朝鮮 王祖를 세

운 李成桂와 그 일문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古蹟과 명승지가 많은 것은 물론이다.

李成桂 一家는 그 高祖 李安社가 間島에 나가서 주로 女眞族이 사는 地方에서 元나라 벼슬을 하여 威鏡道 地方에 根據를 마련한 집안인데 그 아들 李行里 孫子 李椿들도 元나라 벼슬로 이 地方 勢力家로 浮上하였고 李成桂의 父 李子春은 當時 和州(永興) 千戶의 벼슬을 지냈다. 이러한 가문의 背景으로 兵馬使 자리에 올라간 李成桂가 威興 平野에서 元의 軍사를 무절러 後에 새 나라를 세울 기틀을 마련하였으니 李成桂 一家와 關係있는 古蹟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威興에서 五KM쯤 北쪽으로 가면 雪峯山 아래에 歸州寺라는 큰 절이 있다. 雪峯寺라고도 불리우는데 왜정 時代에는 大本山の 하나로 큰 勢力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李成桂가 공부하던 들 위에 지은 精舍가 있었다고 한다.

歸州寺로 올라가는 바른 쪽에 定陵 和陵이 있어 보통은

합쳐서 定和陵이라 불리우는데 太祖의 父 李子春을 桓祖로
 母를 懿惠王后로 追尊하여 定·和陵에 모셨다. 定和陵은 우
 리가 學校 다닐 때 하루 소풍가는 데 안성마출인 곳이 었
 다. 가는 길역의 진달래를 보면서 우리는 봄을 마음껏 즐
 기기도 하였다.

歸州寺 定和陵과 아울러 좋은 소풍가는 코스로 本宮이 있
 다. 이곳은 建國前에 李成桂가 살던 곳으로 上王이 된 後
 도 이곳에서 살았다. 上王(後에는 太上王)이 된 後 다섯
 째 아들 太宗(芳遠)을 패심하게 생각한 그는 太宗이 보
 낸 使者를 죽이거나 가두었다고 해서 威興差使라는 말이 생
 겼다. 本宮에는 太祖의 유물도 전하여 오고 더우기 記憶
 에 남는 것은 太祖가 심었다는 소나무가 땅으로 기어가듯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 숲은 謙齋 鄭歎의 그림에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화가 자신이 寫生한 것은 아니다.

威州에는 八景이라고 있다. (一) 盤龍山 展望 (二) 城川江
 銀盤 (三) 萬歲橋 夕照 (四) 馳馬台 秋月 (五) 定和陵 白鷺 (六)
 歸州寺 丹楓 (七) 本宮 夜雨 (八) 西湖津 歸帆. 이것은 中國
 詩客들이 잘 쓰는 平沙 落鴈 漁村 落照 遠浦 歸帆 등의 문

구를 본받은 것이나 하여튼 이곳에 威興의 重要な 명승
 지 全部를 包含된 것을 볼 수 있다.

威州郡에는 유명한 新羅 眞興王 巡狩碑 넷 중의 하나
 가 있다. 下岐川面에 있는 黃草嶺碑(五六八年 建立) 가
 그것이다. 이 黃草嶺碑는 一八五二年에 威鏡道 觀察使 尹
 定鉉이 본래 자리에서 지금 있는 곳에 옮겨 놓았는데 그
 가 세운 별개의 碑文에 보면 그때 一百八十五字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一九二九) 崔南善이
 缺失된 일부분을 發見하여 비석에 붙여 놓았는데 지금은
 왼쪽 부분의 三·四〇자만 읽을 수 없게 되었으나 이것도
 다른 巡狩碑의 비문과 比較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
 게 되었다.

高麗史 睿宗世家 三年(一一〇八)에 尹瓘이 女眞을 평
 정하고 새로 九城을 쌓았다고 하는 記錄이 있는데 그 威州
 에 있는 城壁의 일부가 盤龍山의 한 부분에 보관되어 있
 는 것을 나도 본 일이 있다. 女眞이라고는 하나 그들은 그
 後 우리와 同化되어 우리와 같이 살았으므로 그들의 과거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을 것이다.

威興에서 西湖津으로 가는 증도에 倭政 時代의 窰素肥 料工場이 있던 興南이 있다. 六·二五때 수만의 피난민의 哀話를 남긴 곳이다. 이 工場에 전력을 供給하기 위하여 長津 산간 벽지에 人工湖水를 만들었다. 왜 그 산간 벽지에 긴 나무라는(長津) 地名이 있었을까 또 興南의 工場 있는 곳을 天機里 즉 하늘 기계 동네라고 불렀다. 모두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다.

興南에서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보다도 남쪽에 있는 連浦라는 漁港에서 배를 탔다.

連浦 앞에 花島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다. 섬 위에 古墳墓가 있어 秋蓋라는 사람의 묘라고 하여 섬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秋氏의 始祖라고 한다.

連浦에서 멀지 않은데서 定平郡이 시작되는데 廣浦라는 꽤 넓은 灣을 이룬다. 이곳은 淡水와 海水가 합쳐서 겨울에는 이 일대가 얼어 붙는데 이곳에서 威州郡과 接경

을 이루는 곳에 地境(倭政 말기는 興上)이라는 面사무 소 국민학교 金融組合 郵遞局 등등이 있는 촌이 있어 筆者의 誕生한 곳이다. 봄이면 廣浦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근 5KM나 되는 먼 곳에서 들어 지금도 봄이 되면 그때 들려 오는 얼음 깨지는 소리에 鄉愁를 느낀다.

威州는 북쪽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 많다. 그山中 유명한 것이 威關嶺이다. 옛적 어느 官吏가 洪原府使로 임명되어 가는 길 도중 威關嶺을 넘었다. 頂上에서 그는 한 詩를 읊었다.

五月威關嶺 五月威關嶺에

洪原府使寒 洪原府使가 춥다.

時見杜鵑花 때에 두견화를 보니

春亦上山難 봄도 역시 산 오르기 힘들다.

이 쉬운 말이 오래도록 산 위에 있는 亭子에 걸려 있었다. (끝)

懷古談

咸 泰 元(第九回)

一九二八年 하면 어언 六〇年前的 일이 되니 마치 머나 먼 古事와도 같은 이야기다. 그 해 冬寒이 끝날 무렵 書堂道승이었던 나는 문득 잠에서 깨어난 듯 中學에 進學할 決心을 하게 되었다. 같은 마을 同年輩 親舊들과 여러번 謀議를 거듭한 끝에 집안 어른들께는 한마디 말도 없이 夜半家出을 敢行하여 元山을 向하여 出發하였다.

東海岸의 작은 고을 杆城땅에도 新學問의 바람이 불어 오고 新文化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으니 뜻있는 靑少年들의 꿈과 向學熱이 점차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러한 무렵 나의 出身校인 普通學校에 新女性 教師한 분이 새로 赴任해 왔고 그분의 刺戟이 나의 家出의 決定的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當年 一五歲였던 나는 四年制 普通學校를 卒業하고 나서 道祖父님의 嚴한 挽留 때문에 中學進學은 임투도 못내고 있었다. 그 까닭은 나의 막내三寸이 일찌기 水原農林學校

에 遊學했다가 學業途中에 病死한 일이 있었으므로 祖父님 立場에서는 子孫들을 外地에 絶對로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굳은 作定이 있었던 때문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2년 남짓 동안 書堂工夫를 시작하여 論語·孟子·中庸·大學과 詩傳·書傳을 모조리 通讀하고 季節따라 小工風·大工風이라는 漢詩를 지어 訓長님께 바쳐야 하는 書堂道승의 生活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나는 새로 赴任해 온 新女性 教師인 崔恩心先生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만날 때마다 이대로 시골에서 썩을 것인가 하고 進學을 勸誘하는 忠告를 해 준 것이 큰 刺戟이 되었다. 그리고 또 나의 向學의 꿈이 익어가는 것을 짐작하신 나의 生母(나는 長子出繼하였음)께서 淸芬이 모은 돈을 때때로 건내주셨기 때문에 若干의 旅費를 마련할 수 있었다. 以上이 나의 無斷家出의 動機였다.

行動을 같이한 것은 故郷親舊 八名이었다. 目的地는 서 울과 威興 두곳 중에서 既往이면 一年先輩인 威興基君이 가 있는 威興이 便利할 것 같아 入學試驗 二週日 前에 威興行 汽車에 올라탔다. 그해부터 中學入學은 五年制普通學校卒業者에게 資格이 주어지게 되어 우리는 미리 가서 地理와 歷史의 별도의 試驗準備를 해야 했다.

受驗結果는 八名中 4名이 合格하였다. 나는 合格을 確認한 後에 故郷에 電報로 알렸더니 집안 어른들께서는 諦念을 하신 듯 進學을 許諾하여 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집안들은 대개 中農程度의 形便인지라 어른들은 모두 學費 調達の 어려움을 걱정하셨다.

우리 四名은 學校뒤편 雲興里(그當時는 집이 몇채 없었 다)에 共同下宿을 定하고 밥은 白飯이 아닌 粟飯을 먹기로 하였다. 그때 白飯下宿이면 粟飯보다 三원이나 비쌌으므로 조밥을 먹고 每月의 月謝金과 용돈을 위하여 節約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中學生活이 시작되었다. 나는 同級學友들 보다 三·四歲가 많은 터에 書堂工夫도 比較的 着實히 배운 처

지였으므로 一學年 一學期는 工夫하기에 별로 힘들지 않았다. 每日下學 後에는 「쉬었」(수수엿) 내기 화투 놀이를 하며 지내다시피 하였는데 學期末試驗의 結果를 보니 全課目的 半以上이 乙이었는데 一·二·三等成績을 받았다. 二學期부터는 級長의 職分을 맡게 되고 이후 二·三·四·五學年을 계속하여 級長(별로 자랑거리는 못되지만)을 맡아 보았다.

威興에서 中學生活을 하는 동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여러가지 印象깊은 事件들이 있었으니 農校와의 石戰計 劃事件 化學教室壁報事件 그리고 依田先生 排斥運動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依田(요다)先生에 대한 스트라이크 未遂事件은 특히 잊혀지지 않는 일이므로 回顧談 삼아 적어 보기로 하겠다.

요다라는 英語先生은 못된 倭놈의 버릇이 있어 恒時 우리들을 植民地百姓으로 보고 輕蔑하는 態度를 취하였으므로 隱然中에 全校學生사이에 排斥氣運이 팽배하였다. 하 루는 우리 學級에서 授業을 하는데 豫定보다 여러 페이지 앞서는 部分을 배울 터이니 누군가 읽어 보라는 것이었다.

한 두 學生을 指名하였으나 抗議하는 뜻에서 못입겠다 하였다. 先生은 그럼 級長이 읽으라 하기에 나는 읽으려 들면 못입을 글이 아니었으나 級友들의 마음을 背信하고 싶지 않아 豫習을 안하여 못입겠다고 對答하였다. 요다선생은 이러한 분위기에 大怒하고 教室을 떠나 버렸다. 나는 敎務室에서 무언가 問責이 있을 것을 豫想하고 기다렸더니 果然 擔任 先生이 와서 依田 先生에게 不敬스러운 態度를 取한 罪로 一時間 동안 自肅하라는 命을 내렸다.

나는 그날 氣分이 몹시 傷하여 下宿에 돌아왔더니 學級 中의 積極派 數名이 찾아 와서 級長으로서 取한 勇氣를 稱讚하며 그날 밤에 萬歲橋 밑에서 모임이 있을 터이니 參席하라고 일러 주는 것이었다. 級長인 나로서는 立場이 難處하였으나 反對하지 못하고 밤에 나갈 것을 約束하였다. 그 밤의 모임은 積極派 學生들이 主動이 되어 排斥運動의 時間과 行動方法 行動部署등을 決定하였다. 바로 다음날 登校하는 即時 行動하기로 定한 것이다. 이 모임이 끝날 무렵 나는 級長으로서 한마디 할 말이 있다 하고 壇上에 올라 나의 意見을 말해 주었다. 즉 이러한 舉事

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너무 早速하면 失策이 되기 쉬운 法 暫時 深思하는 것이 좋겠다. 舉事에 앞서 一旦 代表를 보내어 夜深터라도 校長에게 우리의 뜻을 通告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였더니 異口同聲으로 모두 贊成하였다. 그리하여 三名의 代表를 選出하고 級長도 함께 그 밤에 校長官舎의 門을 두들겼다.

校長이 直接 나와 우리를 맞이하고 應接室로 案内하였다. 그는 우리의 말도 듣기 전에 너희들 意思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二學期末이니 時期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學生들이 冷徹하게 조금만 참고 있으면 三學期에 들어 依田 先生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先生까지도 包含하여 그만 두도록 校長으로서의 決心을 보여 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本來 大庭 校長은 평소에도 哲學者다운 品格이 있어 學生들의 尊敬을 받고 있던 人物이었다. 우리는 눈치으로 同意하며 그 말을 믿기로 하고 돌아왔다. 그리하여 舉事는 一旦 中止하기로 決定하고 平素와 다를없이 通學하게 되었다. 萬若 豫定대로 舉事하였다면 級長은 물론 여러명의

學生이 容怒받지 못하는 結果가 되었을 것이다.

그 후에도 校內事件이 發生할 때 마다 級長의 立場은 매우 難處하였으나 그런 대로 五年을 지나 無事하게 卒業할 수 있었으니 多幸스럽게 생각한다. 近者에 學生들의 騷擾事件이 發生할 때마다 그 時節의 記憶이 되살아 나며 代表 學生의 責任과 處身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切感하게 된다. 母校의 痕蹟도 볼 수 없는 지금에 나이는 벌써 八〇高

解放에서 越南하기까지

三十六年間 日帝治下에서 許多한 苦難과 自由를 잃은채 呻吟하던 中 우리 民族은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解放을 맞이하면서 喜喜樂樂 그 기쁨을 滿喫하였던 것이라 그當時 特別號外라 하면서 散文을 配布하였는데 以南에는 金九主席 以北에는 듣지도 못하던 武亭 이란 者가 出沒하였다면서 곧 統一이 된다고 하더니 이 웬말 드리어 三八線이란

齡이 되고 보니 여러가지로 恨스럽게만 하다. 同門들의 健鬪와 發展을 祈願하는 意味로 詩 한 首를 적어 본다.

偶 感 曉 灘

對鏡自嘲還訝年 童心脉脉尚依然
兒孫祈我唯康健 我願同門尤發展

金 堉 宋(第十三回)

障壁을 그어 놓고는 오도가도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던 中 日本軍의 武裝을 解除하여 준다는 美名下에 以北에는 蘇軍이 以南에는 美軍이 進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蘇軍의 蠻行은 日加月增 一筆難說이었다. 이리하여 解放當時의 그 기쁨은 잠간 民衆은 恐怖裡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그러나 大衆은 如何히 하면 좋을런지 그 行路를

바로잡기 爲하여 右往左往하였던 것이다. 나는 公職에 있었기에 如何히 하면 을바르게 國家社會에 貢獻 도음이 될까 勞心焦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共產主義자들은 各官公署를 接收하면서 出身性分을 判別한다면서 暗暗裡에 追放이라 할까 整理段階로 急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職場에 있던 사람은 順次的으로 그 職場에서 追放하고야 말았다. 급기야에는 現職을 天職으로 삼고 終生하려고 하였으나 萬不得已 斷念하고 갈팡질팡하던 끝에 意思가 通하는 親友 韓禮根氏(實業家) 崔貴鎔(前威南道廳에 主事로 있던者) 其外實業家 七名과 會議 論議한 結果 韓禮根氏 自宅 威興市 福富町 前 金星寫眞館 집을 使用하기로 하고 威南物産株式會社 看板을 掲揚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東奔西走 活躍하기로 하고 二重帳簿를 作成하여 놓고 職務에 邁進하여 왔으나 그네들의 政策에 容納될 수 없음을 自認하고 그 職場마저 拋棄하고 말았다. 이 때 以南商人에게서 情報을 入手한 巴越南한 者는 日加月增하여 自由로이 活躍할 수 있다는 消息을 傳하여 듣고는 마음이 不安하기 짝이 없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萬事가

안될뿐 아니라 아무리 將來를 내다 보아도 도저히 이 社會에서는 事業도 할 수 없음을 再確認하고 나의 職業이 公職이었기에 이 社會에서는 도저히 容納될 수 없는 性分임을 느낀 나머지 越南할 것을 決心하였다. 그러나 同伴者를 物色하는 데는 普通事가 아니었다. 幾朔을 두고 深思熟考한 끝에 元聖鎬令監님은 나의 父親과는 切親한 사이였기에 安心하고 擇하게 되었다. 잠간 元令監님을 紹介하면 當時 威興市 馳馬町 會長이면서 早稻田大出身 이시고 人格이 圓滿한 崇拜할 만한 분이였다. 그런데 이 老人의 큰 令息이 威興地方 鐵道局 勤務中에 있었다. 그러던 中 어느 날 職場單位로 學習을 받게 되었는데 金日成에 對한 宣傳을 하는 도중 혼잣말로 그자가 방귀만 뀌어도 拍手를 치겠네 하였다. 아마 이것이禍根이 되어 威興教化所에 拘禁懲役刑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이 老人은 恒常 그네들의 政策에 不滿이 있었는데 그로因하여 더욱 憤慨 越南할 것을 決心하였답니다. 드디어 나는 威南物産株式會社 旅行證書를 所持하고 一九四七年 六月十三日 正午 元老人과 함께 威興驛을 出發하여 漣川

驛을 向하게 되었다. 萬若 車中에서 檢問을 받게 되면 漣川方面에 以南物件이 山積하고 있다는 消息을 듣고 物情 探知하려 간다는 口實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當時 列車에는 鐵道警備員이란 者가 配置되어 恒時 旅客을 檢索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元山驛을 通過하여 鐵原驛 到着 直前 公民證을 보자고 하기에 公民證과 旅行證을 提示하였더니 無條件 鐵原驛에서 強制下車시켜놓고는 來日 咸興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同行老人은 單身 漣川驛까지 가게 되었고 나는 하는 수 없이 鐵原驛 附近 無名 旅人宿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자는 동안 등 새우잠을 자고 主人 몰래 早朝 旅人宿을 빠져나와 鐵原驛에서 漣川行 列車을 다시 타고 드디어 漣川驛에 到着하였다. 下車하자마자 驛周邊을 觀望하였더니 同行 老人이 손을 들어 信號를 하여 주었다. 그 어찌고 마운지 말할 수 없었다. 一便 安心하면서도 不安感을 면치 못하였다. 出札口를 向하여 나가려고 하였더니 이에도 警備員이 일일이 注視하더니 疑心가는 者만 索出 停止하게 하였다. 그때 그날 있다가는 如何한 逢變을 當하게 될런지 모르기에

用便을 假裝 許可를 받고 갔다가 그네들의 視線을 피하여 脫走 同行老人의 결으로 가 舍流하였다. 그리하여 漣川市內 뒷골목길을 擇하여 無名 旅人宿집을 골라 하룻밤을 지 내기로 하고 將次 如何히 하면 無事히 갈 수 있을까 謀議를 거듭한 끝에 이제부터는 神經戰입니다. 深夜보다는 正午(白晝)를 擇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意見一致를 보고 朝飯後 서서히 漣川保安署 前面을 悠悠히 活步 無事通過 的地인 漢灘江을 向하여 約 十里를 걸었다. 이에 到着하여 보니 개미 한마리 보이지 않는 寂寂한 곳이었는데 아이들만 三名이 놀고 있었다. 이 아이들을 만나고 보니 한편 반갑기도 하고 恐怖心마저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인데 하고 萬事를 무릅쓰고 말을 건넸다. 애들아 여기에는 「로스케」가 없니 하고 물었더니 지금 점심식사 하러 갔다는 것이었다. 不安한 마음은 多少 解消됨에 따라 마음놓고 이 江을 渡江하려면 船價는 얼마나 되느냐 물었더니 무값이라 하면서 以南에 가면 붉은 돈은 못쓸 것이아니겠음니까 하면서 능청스럽게도 있는대로 다 내고 가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萬若을 위하여 多少 남겨놓고 애들

이 노젓는 쪽배를 타고 渡江하였다. 渡江後 行人을 通하여 三八線이 여기인가 하고 물었더니 險峻한 山을 指稱하면서 그 넘에 陶磁器工場이 있는데 그곳이 三八線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直通으로 가면 十里고 順路로 가면 三十리나 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는 老人과 相議한 끝에 險峻하더라도 十里를 걸기로 作定하였다. 넘으면 또 山이라더니 陶磁器工場에서 멀지 않은 곳에 以南警察署 派遣隊가 있었다. 이곳에서 몸 搜索을 하고 나더니 同行 老人의 所持品中에서 麻雀新品한 틀이 發見되니 이를 탐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 老人은 快히 承諾하고 말았다. 이 派遣隊에는 越南한 사람이 數十名이나 雲集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隊員의 말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저희들의 指揮를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議政府收容所까지 案内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鐵路를 따라 強行軍 하여 보니 美軍의 警護하고 있는 天幕 假建物收容所였다. 이에 到着하자 一列로 整列케 한 후 모든 疾病을 豫防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全身에 디디티를 散布하여 주므로 一便 不快하였지만 感謝한 마음 禁할길 없었다. 五日間 宿食을 하게 되었는데

順次的으로 審査를 하면서 向先地를 定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海州 越南同胞로 立錫의 餘地가 없으니 他處를 定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大田으로 간다고 申請하고 있던 中 드디어 六月二十日 到着地 出發命令과 同時 無賃乘車券을 發付받아 出發하였다. 그러나 車中에서 老人과 相議한 끝에 서울 東大門 崇義洞에 나의 동생이 居住하고 있다는 消息을 들었기에 下午 五時頃 淸涼里 驛에 到着하자마자 隊列에서 離脫 避하였던 것이다. 이리 하여 동생 집을 尋訪 相逢하게 되었다. 그 후 老人과는 매일 食事が 끝나기 바쁘게 집을 뛰쳐 나가는 것이 日課였던 것이다. 爲先 糊口策을 求하여야 하였다. 同行 老人 말에 依하면 親舊분이 美軍部隊에 勤務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서울 周邊의 美軍部隊을 살살이 訪問하였으나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그 老人은 幾朔後 도로 越北하 고야 말았다. 後에 들으니 그 老人은 一・四後退時 큰 令息과 함께 越南하였다는 消息은 들었으나 지금까지 相逢 못하고 있다. 항상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感이 도는군요 越南後 光景 서울市內로 往來하는 사람은 右往左往 어디

로 가건 人山人海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매일같이壁이란壁에는 當時 首都廳長이던 張澤相을 때려잡으라 입에 담을 수 없는 數 많은 辱說이 가득 차 있었고 左右가 每日 같이 서로가 南山 또는 서울 運動場에 集合하였다가는 市内로 進出하여 어수선하게 騷動을 일으켜 民心만 不安케 하였던 것이다. 누가 愛國者인지 分間할 수 없는 난장판이었다. 市内로 往來하는 사람을 보면 活氣가 없고 축

咸興高普에서 겪었던 光州學生事件

나의 咸興高普入學試驗 때 受驗番號는 第三三三番 이었으며 作文試驗題目은 「겨울바람」이었다. 當時 咸興高普의 校長은 大庭先生이었으며 敎務主任은 澤木先生이었으며 三年制의 乙種인 咸興師範學校가 咸興高普의 一部 校舍를 使用하고 있었으며 咸興高普의 先生들은 師範學校의 先生을 兼任하고 있었다.

늘어져 있었고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 째어지고 다니는 사람 심한 사람은 外套를 입고 다니는 사람 等 形色의 떠돌이 生活者였음은 틀림없는 일이었던 것이라든가 들어 나는 서울 西大門 峴底洞에 있던 韓國 刑務官 學校(全國刑務官養成所) 敎官으로 奉職하게 되어 一旦 安住하게 되었었다.

金 溱 次 (第十五回)

當時 韓人先生으로서는 數學의 韓恂鉉先生과 漢文의 文錫烈先生과 漢學者인 서울出身의 柳春熙라는 老先生이 계셨다. 우리 第一五回는 甲乙組五〇名式하여 一〇〇名이 入學하였으며 入學後 얼마안 되어 大庭校長은 京城第一高普(現在の 京畿中學) 校長으로 轉任하고 其後任으로 東京物理學校出身의 上遠野校長이 赴任하였었다.

第一五回の一學年生活은 別故없이 無事히 끝났다. 그러나 其當時는 一九三〇年代의 直前인 만큼 第一次世界大戰後의 大不景氣影響으로 世界的으로 甚한 經濟恐慌이 疊出하여 美國을 爲始한 各國에는 工場들이 門을 닫음으로 많은 失業者들이 續出하여 經濟的으로나 思想的으로 甚히 不安한 時代였다.

그리하여 一九一九年の 三・一運動以後 우리나라 靑年層은 일파동안 民族主義思想을 가졌는데 蘇聯의 赤色政權樹立後 數年을 經過하여 内部的으로 安定을 얻으면서 國際共產黨의 組織되어 全世界에 思想攻勢를 開始하니 우리나라의 靑年層들도 漸次 其影響을 받아 共產主義에 물들어가 는 時代가 되었다. 그리하여 共產主義思想은 一般社會靑年層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學生層에도 浸透되어서 其思想에 물들지 아니하면 時代에 뒤떨어진 人間取扱하는 時代가 되었으며 이 時節에 第一・二次間島共產黨事件들이 일어났다.

其當時 鹽田이었던 西湖의 內湖에 興南窒素肥料工場建設案이 發表되면서 長津에 礫이 생기고 新興에 發電所가 생기게 되면서 其發電所에서 使用한 물을 咸興平野에 流出

하여 灌溉공사로 咸興平野의 밭들을 水田으로 만든다는 水利組合案이 發表되었다.

그렇게 되니 咸興平野에 밭을 가졌던 地主들 사이에 밭이 水田이 되면 白米가 生産되는 것은 좋으나 日本人들이 水稅를 많이 받아갈 것이 豫測되므로 그렇게 되면 水田의 作物代金으로 水稅도 支拂할 수 없을 程度가 될 것이라는 風說이 強하게 流布하게 되니 많은 地主들이 所有하고 있던 밭을 팔기 始作하였다.

이와 같이 地主들이 一時에 競爭하여 밭을 팔려고 하니 買主는 別로 없고 賣主만 많게 되니 其前 밭時代에 一圓하든 밭값이 不景氣까지 合勢하여 坪當 單五錢까지 下落하는 時代가 되고 말았다. 그런關係로 地主인 韓人側에서 咸興平野의 水利組合計劃을 反對하고 日本人側은 韓人側과 反對의 主張을 하여 對立하게 되니 어느날 咸興劇場에서 그일로 公廳會를 하는 모임에 내가 방청한 일이 있다. 韓人側에서는 蔡容默辯護士를 爲始한 韓人辯護士들이 地主側主張을 代辯하였고 日本人側에서는 篠崎市委員을 爲始한 數名이 日本人側主張을 代辯하여 咸興平野가 水利組

습이 되면 白米生産이 될 뿐만 아니라 水稅도 輕微할 것이며 오히려 地價가 上昇할 것으로서 여러가지 면에서 威興의 發展에 크게 寄與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는데 日本人側의 演說할 때마다 韓人側에서 甚한 야지를 하든일이 記憶나며 決局 威興平野는 其後 水利組合이 되고 말았다.

一九二九年 四月에 우리가 威興高普 二學年이 되었을 때는 上記와 같은 經濟的으로나 思想的으로 不安定한 時期였으므로 五月一日을 期하여 盟休가 일어나서 우리들은 얼마동안 登校하지 못하였는데 盟休의 表面理由는 日本人 先生排斥等이었으나 實狀은 赤色思想의 使喚을 받은 一種의 抗日運動이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其 盟休關係로 우리의 學友中 數人은 退學을 當하는 結果가 招來되었다.

그해 十月末에 全南光州에서 所謂光州學生事件이 發生하였다. 十一月初에 우리들 各者에게 光州學生事件에 關한 檄文이 郵便으로 配達되어 왔다. 十一月初 어느날 그날은 눈개비가 나렸으며 스산한 날씨였는데 威興高普에서도 州學生事件에 同調하여 萬歲를 부른다는 風聞이 있었다.

아침에 登校하니 小使室앞의 揭示板에 「事情에 依하여 今朝는 講堂에서의 朝會는 없다」라는 揭示가 붙어있었으며 講堂안을 보니 講堂에서 運動할 때 上衣를 벗어놓는 西쪽에 있는 나무板위에 刑事와 憲兵들이 올라서서 森嚴한 警戒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每朝學校 正門으로 登校하는 學生들은 小使室앞에 있는 揭示板의 揭示文을 보았으나 雲興里에 居住 또는 下宿하는 學生들은 學校後門으로 登校하는 關係로 揭示文을 볼 수가 없었으나 그네들은 登校하면서 于先 自己教室에 들어가서 冊가방을 自己冊床에 두고 每朝朝會에 臨하는 것이 常例였으므로 그네들은 모두 모르고 講堂쪽으로 나왔다.

그런關係로 講堂入口와 小使室앞 복도에는 正門으로 들어온 學生들과 後門으로 들어온 近五百名의 學生들로 -packed 있었으며 學生들이 講堂에 들어가려고 하니 刑事들과 憲兵들이 制止하게 되니 學生들은 興奮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에 主謀者側의 學生들이라고 보이는 몇學生이 「今朝朝會를 안하는 理由가 무엇인지요 校長에게 따지자!」

라고 高聲으로 외치니 「그렇게 하자」라고 呼應하는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에서 들렸다. 其瞬間 講堂入口앞에 있던 學生들이 一部가 校長室쪽으로 移動하기 始作하게 되니 警戒하든 刑事와 憲兵들도 校長室로 가는 學生들을 뒤 따라 감으로 警戒網이 分散하게 되니 나머지 學生들은 一齊히 그 틈을 타서 講堂안으로 들어갔다.

校長室에 到着한 學生들이 校長室門을 노크하니 校長室門은 안으로 잠겨 있었다. 그렇게 되니 여러 學生들이 興奮하여 발길로 校長室門을 차니 門의 널판의 一部가 부서지기 始作하게 되자 校長室안에서 스틱마를 신고 앉아 있던 小遠野校長은 놀람과 두려움에 校長室 正門과 反對쪽에 있는 유리窓門(學校正門쪽을 向하여 있는 유리窓門)을 열

고 아래에 뛰어 내려서 눈개비를 맞으면서 맨발로 學校正門앞에 있는 校長官舎로 가려고 正門을 向하여 逃亡하여 뛰어가는데 것을 우리들은 講堂에서 보았다.

그때에 主謀者側의 學生이 講堂의 講壇에 올라가서 光州學生事件에 對한 煽動演說을 짧게 하고 萬歲를 先唱하니 講堂에 있던 우리 學生들은 一齊히 萬歲를 부르며 刑事와 憲兵들이 달려들며 煽動演說을 한 學生을 逮捕하려고 其學生을 잡으니 興奮한 學生들과 刑事 憲兵사이에 一大亂劇이 버러졌으며 十餘名の 學生들이 現場에서 逮捕되었다.

加納野校長은 그後 全然 學校에 出勤하지 못하였는데 得病하여 日本에 가서 오랫동안 病床에 있다가 別世하였다고 드문 일이 있다.

臣民時代의 邦語有感

「플라토」는 神에 對해서 세가지 感謝를 드렸다. 그를

奴隸아닌 自由民으로 女子아닌 男子로 그리고 特히 「소크라

테스」時代に 태어난 것을 感謝하였다. 이런 것은 모두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偶然이고 運命인 것이다. 경우를 바꾸어 오늘날의 우리들이 「플라토」라면 무엇을 感謝할 것인가? 奴隸아닌 代身에 한 때 말과 歷史를 빼앗긴 疎外된 皇國國民이었던 時代人으로서 女子아닌 男子이기에 砲彈이 쏟아지는 戰場에서 싸워야 했고 또 萬能이란 돈에 올고 웃는 苦行者로 그리고 「소크라테스」 아닌 代身에 分斷된 國土의 한쪽에서 더구나 金日成 같은 逆黨이 批政을 하고 있는 時代に 살고 있는 것을 感謝한다고 할 것인가 感謝보다는 阻呪할 것이 많아 혐이 되기도 하다. 「오스카와일드」의 「싫은 것이 싫은 것만큼 좋은 것이 좋지 않다」하던 말이 떠오른다. 어차피 이러한 世上에 태어났으니 주어진 環境속에서 幸福을 찾고 阻呪보다는 自愛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젊은戀人들」이란 映画의 台詞에 나오는 天國같은 「第三의 나라」는 이 地球上엔 없는 것이니까!

臣民時代의 邦語——이는 지금 이나라人口의 二割도 안되는 나이 近五十以上된 世代들이 日時 公私로 通用했던 日語를 두고하는 말이다. 그때 그 世代들은 어찌할 수 없었던 말

이었으나 우리 民族史엔 지울 수 없는 恥辱이었고 傷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한 時代に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들이고 또 우리의 中學 同門이면 거의 다 그러하리라 볼 때 이전 承繼 없는 母校가 되고 보니 모두 다 그 時代의 遺物같은 느낌이 든다.

却說하고 우리는 그 時代 삶의 過程의 배움터에서 日語를 邦語로 함께 追從 하였으며 또 이의 用語를 바탕으로 「실랄」이 말한 「부로드·윗센사프트」(땀을 爲한 學問)을 하였고 한편 「괴테」의 「파우스트」가 苦惱하며 思索하던 智慧도 헤아려 보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臣民 日語만이 威勢부리게 되었고 普遍化됨으로써 우리 民族이 倭族과 草綠同色이듯 日帝는 狡猾하게 民族同化를 凶計 끝내 우리말과 歷史를 抹殺하였다. 일찌기 弱肉強食하던 英佛和等の 植民地에서도 없었던 殘忍性을 日帝는 敢行하였고 한편 그렇게 當한 우리 民族은 또 얼마나 못 난이었던가 史實이 그러하거늘 지금도 걸핏하면 半萬年 歷史가 어떻게 過去를 추켜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하느자랑이 어쩐지 넘두리 같이 들리기도 한다. 어쨌거나 그

렇게傲慢하고 放恣했던 日帝도 물러간지 이제 半世紀 되
어 가건만 그의 날말 餘韻은 아직도 메아리 치는 듯하니
實로 깊었던 뿌리이다.

經援運用을 審議하던 閣議에서 「세멘토」로 表現했던 B
長官 어느 行事の 祝辭에 영의(領域) 포축(捕捉) 으
로 읽었던 C總理 한때 女大生들의 風紀를 論難하는 議政
壇上에서 「아다라시(新) 어디에 있노」 妄發한 金某議
員 모두가 臣民時代 邦語의 遺産이라 하겠다. 때와 場所
를 分別않은 不察이라 할진대 所謂 識見層이 이러 하였
으니 普通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일까

某國策銀行長이었던 林某氏는 日政時 그의 子女들에게 日
語를 常用시켜 光復後 그들이 우리말을 배우느라 困惑을
치렀다는 「년센스」 또 그 遺産의 愛着에 鄉愁까지 느꼈던
奇人도 있었으니 요지경 속이다. 政府樹立 直後 設置된 反
民特委에 끌려온 金某氏는 當時 그들의 留置所였던 美軍政
時 商務部廳舍(日政時 帝國銀行支店 現國民銀行 本店차
리) 内部에 闖입된 密倉(金庫 文書 備品 등 保管)에 收
監되면서 「아아 나즈카시이 데이고쿠강포데스네」(오호 반

가운 제국은행이로군) 뇌까렸으니 慕情도 이쯤되면 「꿈
이여 다시한번」이다.

한편 그時代 그世代들에 이렇게 까지 입에 붙여 있었
던 日語를 누구보다도 「타부」視한 것이 公人으로서선 李
大統領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는 建國
初期 軍人이나 警察이 過去에 附日했던 않았던 特殊職業
人이라 하여 包容하면서 一般 文民系는 別로 重用치 않았
던 것도 그들이 臣民時代의 日語成分이 있다는 그의 內在
的 偏見이 多分히 있어서 한것 같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했던 性向은 어디에서나 表出하였었으며 休戰무렵 動
亂後 처음 있는 景武台官邸에서의 内外記者團會見時 어느
記者의 「크라아크」(當時 UN軍 總司令官)의 呼稱을 日
語라면서 「클액」으로 訂正 改稱後 日語의 追放을 중용하
였는데 當時 UN軍側 休戰協商을 매우 못마땅히 여기고 있
었던 階梯에서 「클액」(大厄)이라 비아양해 한말같이
들었던 나는 지금도 그의 正確을 모르고 있다.

六·二五事變前 「투루맨」 美大統領特使로 「필립·제섭」
氏(動亂中 拉北)가 來韓하였다. 그때에 그는 財界 招請

朝鮮「호텔」午餐會에서 E.C.A 經援에 對한 官民의 受容體
 制가 共히 不實함을 批判하고 「繁榮엔 奇蹟이 없다」한趣
 旨의 演說을 「스쿠우프」大書 報道한 일이 있다. 그 後
 어느 때 어느 同僚와 閑談하는 자리에 偶然히 들렀다가 함
 께 어울리게 된 當時 英國「로이다」特派員 R氏로부터 密
 히 傳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 무렵 그는 또 外信記者들만의 모
 임에서 「오프더 레코드」로李大統領을 「인폼피덴트 디
 데이터」(無能한 獨裁者) 同時에 「임푸루덴트 자파니즈
 이베이다」(無分別한 日語忌避者)라 評하였다고 하니李大
 統領의 日語禁忌는 外國人들에게도 定評이었던 것 같다. 한
 편 어찌다 위와 같은 「고싶」을 傳해줬던 「로이다」記
 者이야기를 하게 되니 생각나는 일로 그 當時政局의 斷斷
 面을 그린 그의記事 때문에 本意 아니게 내가 휘말렸던
 落穂한들을 주워본다.

釜山避難當時 나는 「로이다」通信과 獨占契約를 맺은
 「S」通信社 取材部長으로 있었다. 그때도 政情은 어수선하
 여 民意로는 不足해 馬意 牛意 가지 動員하는 怪奇한 說
 話를 낭개 하면서 大統領 直選制改憲을 強行한 所謂 政治

波動도 마무리된 어느 때 그 特派員이 쓴 「서울發 로이다」
 에 「李大統領은 政治波動에 功이 있는 元容德 憲兵司令官과
 金昌龍 特務隊長을 各各 一階級씩 特進 中將과 少將으로 昇
 進시켰다. 운운」을 外信面에 掲載 各 日刊新聞에 配付한
 것이 問題되어 三·一社란 名稱의 C.I.C에 連行되어 이
 들간 시달림 받았던 일이 있다.

이미 電波를 타고 地球를 돌고 되돌아온 外信을 選別하
 는 所管 外信部長과 附題와 整理를 맡은 編輯部長이 따로
 있었으나 내가 一線記者의 取材指揮者라 하여 問招받았고 그
 것이 外國特派員이 쓴 外信인데도 그의 取材源等을 內國
 記者에게 糾明한다는 自體 無理인 것이었다. 그때 그 外信
 記事는 國內新聞엔 轉載안되어 一般엔 알려지지 않았으나
 말끝에 생각나 되잖다 보니 웬지 지금도 떠름하다.

回顧하던대 日語의 禁忌는 所謂 海外 抗日志士들만이 아
 니고 國內의 많은 愛國者들도 다 그러하였으리라 짐작되나
 한편 그 時代 어찌할 수 없어 日語를 써야만 했던 世代들
 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의 價値觀에 삶의 手段으로 삼아
 야했던 것도 時代의 事實이고 오늘날 이땅에 그 時代의 人

生들이 各分野에 널리 健在함에 있어서 이는 한때 그들의 歷史的 宿命이었다고도 評定할 수 있을 것이다.

東京遊學時節 어느 經濟學教授는 어느날 講義 때 爲政者들의 無謀한 擴張이 國民의 身心을 共히 營養失調을 助長케 한다면서 當時 軍部內閣을 迂廻的으로 批判하고 또 傳來의 「게르만」民族의 黃禍論 信奉者인 「히틀러」에게 언젠가는 黃色日本은 背信當히리라 論斷하고 無常한 離合集散의 虛構性을 比喻하면서 「모든 것을 歷史속에서 살아갈 지이다」 하던 말이 생각난다.

흐름에 따름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진대 그 視角은 植民地 歷史속에서 삶을 산 우리들에겐 自嘲的인 공치사 같이 느껴짐을 또 어찌하라. 무릇 事理에 그러했던 日本의 知識人들이 아니라면서 우리民族에겐 무엇을 하였던가?

「샤르트르」와 같이 「알제리아 사람이여 알제리아는 그대들의 것이니라」 외쳤듯이 그時代 그 많았던 日本 知性人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을 爲해 그 어떠한 良心의 表示도 없었다는 것이 어찌하면 서글픈 일이다.

이제 民族間에 그 傳統의 異質性이 自明함에 있어서 近

來의 歷史觀과는 달리 司馬, 海音寺, 豊田等 一部 日本의 作家 評論家들이 그네들 皇室內엔 古代 우리 民族의 과거가 흐르고 있으며 오늘날 日本人의 五, 六割이 많은 적든 우리 民族의 피가 섞여 있다고 쓴 글을 보고 그의 眞否야 어쨌든 지금도 殘忍한 그들과 한편 解放된 이 땅에서 同族의 손에 數많은 사람들이 非命에 갔던 우리들을 되살려 볼 때 어딘가 共通點 있는 것 같아 오랜 歷史를 지닌 이 民族의 皮란 그러한 것이던가 하는 생각이 부질없이 들어 「아이러니컬」 하다. 그러한들 말과 歷史를 抹殺하고 온갖 民族性을 유린했던 非人道的 植民時代의 日帝의 犯罪는 時間과 空間을 넘어 언제까지나 이 世上萬人의 指彈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 民族은 새기고 볼 것이다.

「나치」의 「유대」 民族虐殺이 歷史의 永遠한 罪惡이듯이 正邪를 가늠하는 眞理는 하나이기에—設令 이러한 것이 弱小 民族들의 受難의 歷程이라 할진대 그 傷處는 좀처럼 아물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카이로」 郊外에 있는 「알렉산더」 大王의 무덤앞에 「二大陸 數萬里 領土도 좁다하던 그대도 이제 이 한坪의 땅으로써 足하리다」 刻한 碑銘이 있다. 먼 훗날

우리들의 어느 後孫이 이와는 다른 「늬앙스」로 우리를
由緒하여 또 아래와 같은 碑文을 써 놓을지도 모를 생각
을 하니 씩스레하다.

「말과 文化를 빼앗긴 焉敢恥辱 깨물다.

어이 또 光復祖國分斷돼 血肉이 離散하니

追憶과 幻想

내가 威興高普에 입학된 것은 一九三三年 四月 一日 (

土)이었다. 威興 第一普通學校 (錦町)를 卒業하고 흰
줄 셋을 돌리고 高字를 단 모자를 쓴 것이 지금부터 五〇
餘年前 일이 되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이 그때의 선생 중의 몇 사람임으로
그분들에 대하여 남아있는 인상이나 적어 볼까 한다.

二學年 때 담임이던 奥野德一(오구노)라는 키가 작고
검은 테를 한 안경을 썼던 楢部部長이던 사람을 잊을 수
없다. 나는 지금은 그렇지 않으나 그때는 靛스를 좋아하
는데 오구노선생은 「靛스하는 자는 신통한 자가 없다」고

東西南北、春夏秋冬 글레 씌운 自由에

悔恨과 葛藤·愛憎으로 모진歲月 저지며

스스립다 辱된 先人 여기 쉬고 있나나에」

(一九八七年 四月二十八日記)

욕하였던 것이다.

韓 大 淑 (第二十回)

두번째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은 内田爲曄라는 영어선생
三重 眼鏡을 쓴 精力家였다. 나는 영어를 좋아하여 研究
社의 一年의英語“를 읽고 있었고 그때 책을 읽는 수만명
의 전 日本의 學生中에서 일등을 하여 銀메달을 탔는데
이복에 두고 왔다. 선생은 Ethics For Young People 이
라는 책도 가르쳐 주었는데 얼마 전에 이곳 도서관에서 一
八九一年 때 책을 찾아서 감개무량하게 읽어 보았다.
해방 직전에 그가 淸津商業 校長으로 있을 때 그를 찾
아 갔더니 반가이 맞아 주었다. 비누가 귀할 때라 興南工

場에서 비누를 몇 자루를 가져다 주었다.

石川實(이시가와) 敎務主任은 英語를 가르쳤다. 그분은 威興高普를 사랑하여 다른 學校와의 運動시합에 지면 흥분하기도 하였다. 너희들은 P와 F 또 L과 R의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日本式 발음을 할 必要 없다고 하였다.

横田降三郎 교장은 원만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음력 설날 “寒食” “추석날” 등을 자기 직권으로 반公休日로만 들어 주었다.

高橋次平(다가하시) 선생은 獨學으로 專檢에 合格한 사람이나 大和魂이 골수에 박혀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漢文 선생으로 論語, 孟子, 十八史略, 唐宋八大家의 글을 많이 가르쳐 주어서 지금도 중국 고대문학에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또 日本文學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高田重幸(다가다)는 幾何 선생으로(변명은 大塚巡査) 京都大學을 나온 사람으로 野球部長 첫번 공은 절대로 못치게 하였다. 다리를 절었는데 野球에 대한 知識이 많아 지금도 美國에서 職業野球 구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

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지만 아침 조회 때는 皇國臣民誓詞를 외웠는데 이것은 (一) (三)으로 끝이 나는 데 어느날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三)에서 부르게 시작하여 크게 혼출이 났다.

韓洵鉉 선생은 한때는 유일한 한국선생인데 칠판에 ○(圓)을 그리면 콤파스로 그리는 것보다도 더 잘 그렸다. 해방후 내가 釜山 交通病院에 있을 때 찾아 오셔서 여러가지 지 지난 이야기를 하였고 감기 기침 같은 데 쓰는 약을 드린 일이 있다.

韓正오 선생이 朝鮮語 선생으로 오셨다가 후에 北靑女子 學校로 가셨는데 불행하나마 화재로 敎育勅語를 모신 사당(?)이 탔다. 그러나 그는 學生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고 기뻐하였다. 우리 同窓 李基榮 兄이 우리 조선어 時間만은 朝鮮말로 합시다 라고 하였으나 이것만은 통하지 않았다.

우리 재학중에 宇垣一成 총독이 와서 야단치고 갔다. 또 李垠殿下가 方子부인과 같이 本宮가는 길에 威興에 들린 일

이 있다.

川端(가와바타), 키가 크고 무테 안경을 쓴 체조교사, 운동에 萬能 柔道 剣道 陸上, 音樂先生이기도 하였다. 威興高普 응원가의 作曲 歌詞는 山川虎之助 (야마가와)가 지었다. 山川은 詩를 읊는 소질이 있어 詩吟部를 만들어 나도 잠깐 참가하였다. 그는 또 그림도 그렸던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또 이 사람은 生理衛生도가 가르쳤는데 나 그 때 人體의 구조에 많은 興味를 가져 그것이 내가 후에 의사가 된 한 동기가 되었다.

五學年 때 소위 教育勅語發布日에 착각을 하여 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三日間의 정학을 맞고 따귀도 맞았다.

卒業後 세브란스 醫專에 간신히 入學하였다. 三學年 때 에 創氏 改名이 강행되어 나는 韓村大淑이라고 하고 발음은 구니무라라고 하였는데 韓자를 「구니」라고 하는 것은 日本말 사전에는 없었다.

學制가 短縮되어 三年 六個月만에 卒業하고 나는 興南 窒素비료공장 病院에 취직이 되었다. 많은 조선사람 職員

과 징용되어온 農村青年을 나의 職權으로 故郷에 보냈다.

나의 科長은 東大 卒業生으로 反戰論者였다. 그는 興南 憲兵隊長과 親分이 두터워 나는 그 德分에 신분이 절대 보장되었다.

해방 후 八個月만에 越南 서울 交通病院에 취직 六·二五가 되자 釜山交通病院에 자리를 옮겨 있었는데 威興와 세브란스 後輩인 李柱衡 博士가 뉴욕 市立病院의 응모 申請書를 보내주셔서 응모하였더니 오라는 통지가 왔다. 그러나 미국으로 갈 航空料가 없어 우리의 선배 金連珪 大韓重機社長을 찾아 갔더니 大金을 내주어서 서울을 떠나 一九五八年 六月二十八日 뉴욕에 到着 하였다. 이리하여 나의 民主生活이 시작되었는데 韓國에서 현금은 겨우 四十 五弗을 가지고 왔다.

美國에는 六年間 이곳 저곳에 있다가 캐나다에 가서 六 年 二個月만인 一九七〇年 八月二十八日 이번에는 美國에 정식 이민으로 왔다. 캐나다에서는 醫師試驗(LMC)에 두차례 失敗하였다가 세번째만에 合格하였다.

원래 나는 항상 하바드 大學에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八七年까지 三, 四次 그곳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韓國에는 二〇年 二個月만에 一九七八年 九月에 歸國하

여 漢江가의 기적을 목격하였다.

작년 (一九八六)에 아세아 경기대회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의 發達에 놀랐다.

언제인가 우리가 盤龍山 馳馬臺에 산책하고 萬歲橋 다리

를 밟고 定和陵 歸州寺 단풍을 구경하고 — 그리고 咸興

高峯 뒷 은동장에서 再相逢의 큰 잔치를 베풀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同門 여러분의 건강을 비는 바이다. 지금 나는 뉴

욕州 特別醫務官으로 在職중이다.

아프리카大陸에서 一五年間의 WHO 醫療防疫事業을 마치고

朱 仁 鎬 (第二十一回)

二〇年間의 高麗醫大 教授職에서 一九六九 — 一九八四年

間이란 장구한 歲月 積은 大陸에서 UN-WHO 傳染病顧問

官으로 熱帶病 퇴치사업에 종사하였다.

처음의 三年間 (一九六九 — 一九七二)은 西部아프리카에

유행했던 黃熱病 방역 또 七年間 (一九七二 — 一九七九)

은 大陸의 天然痘 박멸사업, 마지막 四年間 (一九八〇 —

一九八四)은 東部아프리카에 퍼졌던 睡眠病 救療事業을 일

선에서 指揮하였다.

도대체 常夏의 大陸에서는 病을 매개하는 昆蟲 魚貝類

野生動物들이 년중 번식하여 농사 사냥을 生業으로 하는

半裸차림 住民과 접촉하게 되므로 傳染病이란 病은 모두

發生하기 마련이다.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 黃熱, 象皮病이 유행하고 체체

파리에 깨물려 수면병 또 들쥐들은 페스트, 出血熱, 그리

고 물가의 다슬기는 住血吸蟲病(지스도마)을 傳染시킨다. 大陸에서 매년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百萬을 넘는다. 近來 異象氣溫에 의한 旱魃로 水源과 牧草가 고갈되어 수십만두의 가축이 폐사하고 영양실조 기아에 시달리는 住民들의 慘狀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특히 에디 오피아 住民들의 餓死狀態는 歷史上 유래가 없는 인류사의 비극이다. 이 나라는 六·二五 當時 우리를 도와준 나라이다. 大陸의 五〇餘個 新生國들은 우리가 옛날 겪은 바와 같이 정치내란과 部族싸움으로 社會混亂이 甚해없이 일어나 難民들의 生活苦는 막심하다.

아래에 一五年間 醫師生活에서 가장 印象的인 것을 추려 소개한다.

一. 西部아프리카 黃熱病防疫

나이지리아 비아프라地方 石油利權을 둘러싸고 이 地方의 이보族 分離獨立反亂軍과 요루바族 中央政府軍사이에 일어난 비아프라戰爭은 一九六七—一九七〇의 四年間이나 繼續되었다. 장글地帶 綠色원숭이들은 黃熱病毒을 가지고 있

어 近處 사람들도 거의 密林속 出入을 꺼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政府軍 攻勢에 밀려 反亂軍은 이곳 장글地帶로 後退하기 시작하자 장글속에서 砲擊戰이 벌어졌다. 이에

놀란 원숭이메들이 農家の 바나나·가사바 터밭으로 逃亡 쳐나왔다. 원숭이를 吸血한 모기메들은 病毒을 가지고 있

어 모기에 물린 사람마다 黃熱을 앓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라의 日本惱炎과 같이 黃熱은 모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에

전파되어 6個月 사이에 전西部아프리카에 유행하여 約五

萬名이 死亡했다. 이 病은 急性肝炎을 일으켜 온몸이 黃

疸色으로 누렇게 물들며 七〇%의 死亡率을 내는 무서

운 열대병이다.

우리들이 마련한 防疫計劃書에 프랑스 美國에서 全幅

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모든 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防疫

에는 約三〇餘名の 유럽 美國 인도醫師들과 一〇〇餘名

의 黑人醫師들이 參加했다. 나 자신도 무더운 더위속에서

三年間이나 一〇餘個 나라들을 드나들면서 防疫活動을 指

揮했다. 나도 모기에 물려 열대 말라리아에 걸려 二주일

間入院治療까지 받았지만 무서운 黃熱에는 걸리지 않았

던 것은 오로지 豫防주사를 맞았던 德擇이었다. 나이제리 아 어느 病院 격리病舍에는 約二〇〇名 환자들이 우리 治療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애절한 심음소리는 지금 까지도 내 귓속에 쟁쟁을려울 때가 있다.

黃熱調査차 가본에 가서 알버트 슈바이처 博士가 시작한 람바레病院을 視察할 기회가 있었다. 博士는 五〇年間이나 이곳 密林奧地에서 未開人에 生命의 尊嚴思想과 人道精神을 가르쳐 가면서 癩病 말라리아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우리들의 防疫活動이 결실을 맺어 이病은 드디어 一九七二年 말에 종식되었다. 約五〇〇萬名에 실시한 예방 주사의 效果는 컸다. WHO 總會 黃熱病分科會 석상에서 나는 아프리카 防疫事業을 보고하고 나서 이 事業에 支援을 아끼지 않았던 프랑스, 美國代表들에게 감사하다는 演說을 했더니 그들은 도리어 우리들의 勞苦를 칭찬해 주어 마음의 호못했다. 제네바 駐在 朴東鎭 유엔 大使님께서도 격려해 주셔서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二. 天然痘의 防疫

一九七七年 一〇月 어느날 내 冊床위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 왔다. 수단·우간다 국경지대에 있는 이태리 天主敎 病院長께서 온 것이다. 이 地方은 수년간 種痘가 실시되었던 덕분에 몇년간 한 명의 환자도 發生하지 않았다. 곧 헬기를 타고 나일강 줄기를 따라 현장에 도달했다.

一〇名 환자가 모두 南部수단人 게릴라部隊들과 그 家族들이었다. 南部수단의 分離獨立을 위해 北部아랍系 中央軍과 지난 二〇年間 게릴라戰을 전개하고 있었다. 國境地帶 「데리데니아」山脈 게릴라 本據地엔 일절 外部人의 出入이 금지되고 물론 種痘實施도 許容되지 않았다. 熟考할 때 大統領은 아프리카機構議長을 말아보고 있었다. 게릴라部隊와 같은 部族의 大統領은 나의 申請을 승낙하고 密使를 보내 反亂軍을 說得시켰다. 그 결과 美國平和奉化團을 알선하여 山嶽地帶 住民에 種痘를 실시할 수가 있었다. 이런 뜻에서 누가 무어라 말해도 아민 大統領은 大陸에서의 天然痘박멸事業에 숨은 功을 세운 사람이었다. 이렇게해서 이 地球上의 마지막 天然痘가 撲滅되었다.

一九七九年 一〇年 二六日 WHO는 東部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市에서 전 世界를 向해 이 地球村에서의 天然痘退
治 成功을 공식 선언했다.

三. 睡眠病의 救療事業

睡眠病이란 病은 체체과리(소과리의 일종)에 물려 病
蟲이 골속 睡眠中樞를 침범하여 사람은 잠들게 만들어 먹
지 못하여 영양실조로 죽는 病이다.

一九七九—一九八〇年 아민大統領 실각시 內亂으로 빅토
리아湖畔일대에 전투가 벌어졌다. 湖畔정글속의 파리 巢屈
이 破괴되어 벌떼처럼 周圍農家에 날아와 닥치는대로 사
람을 물어 뜯었다.

내가 到着하고 보니 벌써 五千餘名이 死亡하고 住民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이 防疫에는 우리 나라에서 二〇台
의 포니 엠브란스를 支援해 주었고 西獨에서도 많은 醫藥
品을 支援해 주었다.

國産포니車에 醫藥品을 가득 싣고 이 고을 저 고을 환
자들을 찾아 다니면서 治療를 해 주었다. 診療車에는 大韓
民國의 원조라는 큰 英文字가 쓰여져 있어 가는 곳마다

韓國醫師를 환영해 주었다.

太極旗와 유엔旗가 달린 우리들 診療車를 바라보고 있었
던 共産國 外交官들도 손을 흔들어 우리를 격려해 주었다.
獨逸製 特效藥 「수라민」의 砒素劑를 5—7回 주사로 환
자를 完治시킬 수 있었다. 한편 殺蟲劑 公중살포로 파리
密度도 격감되어 새로운 환자발생도 적었다. 이렇게 해서
睡眠病 구료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더우기 서울에서
三名의 우리 醫師家族들이 이곳에 와서 나의 診療生活을
도와 주었다. 一九八四年 WHO 退職하고 歸國길에 美國
中國大學에 초대되어 그곳 學者들에게 수면병에 대해 特別
講議를 해 주었다. 北京大學 教授들은 나를 매우 친절히
대우해 주었다.

이상 十五年間 貧困, 疾病, 戰亂으로 시달리는 後進國
에서 醫療活動을 마치고 一九八四年 여름 무사히 돌아
왔다. 우리가 六·二五 動亂中 自由世界에서 받았던 원조
의 빛일부를 갚고 돌아온 기분이 들어 마음이 호뭇하다.

韓 恂 鉉 先生 님과 과 나

韓 喬 石 (第二十二回)

威興高普 同窓이라면 — 직접 배웠든 안 배웠든 — 韓恂鉉 선생님을 더우기 別稱 「韓장이」를 몰라서는 말이 아니다. 누가 언제 어째서 지었는지 근 六〇年을 내리 예사롭게 불러 온 이 소박한 愛稱은 사전에 나오는 「장이」와는 아무런 연고도 關聯도 없다. 「장」이 받침을 鼻母音 비스이 발음하는 점도 분명히 유달른다. 어떨든 그저 「韓장이」라야 정이 들고 구수하며 호뜻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선생님은 溫厚하며 강직하고 嚴格하며 疎脫하셨다. 게다가 前無後無하게도 京城工高를 平均 百點에 가까운 成績으로 卒業하셨다고 橫田校長이 극찬한 朝會辭가 아직껏 記憶에 생생하다.

숙제를 안해 오거나 授業態度가 不實한 學生은 따귀땀 대뚝은 특특이 각오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맞고도 투덜대는 자가 전혀 없었음은 진정코 「개달아 사람이 되라」

는 격려의 채찍이기 때문이었다. 알아서 힘을 길러 나라를 되찾으라는 悲願의 편달이기도 하였으리라. 한편 日本人 교사의 매에는 매로 갇는 學生이 더러 있어 級友인 韓國虎는 川田선생을 치고 스스로 學校를 떠났다.

선생님은 약주를 즐겨 매일같이 自宅에서 素饑를 안주삼아 마냥 소주를 드셨다. 과음으로 손이 떨려 후판의 제자리에 점이 찍히지 않아 무척 고심하신적도 있었다. 과묵에 교제도 태무인자라 술이 유일의 벗이요 술로 亡國의 恨을 달래셨을까?

우리에게 선생님은 주로 數學을 한때 화학과 조선어한 문도가 가르쳐 주셨다. 하나 내가 선생님께 더 가까이 더 자주 접한 것은 운동장에서였다. 정구부 부장인 선생님은 코트에서도 말투가 적었고 매너는 훌륭하셨으며 이따금 내 손을 잡고는 몸소 코치도 하여 주셨다. 卒業後 세 번 나는 더욱 가까이 선생님을 만나 뵈었다.

一九三九年 여름방학 동급생 J군과 雲興里의 선생님께서
 을 찾았다. 간소한 목조대문 기다란 맨홀 마당 그 뒤에
 압전히 앉힌 산뜻한 草家 구석구석이 말쑥하여 스승님의
 天眞을 방불케 하였다. 情談이 무르익자 느닷없이 「똥똥
 이 같은 놈들」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리시어 우릴들도 모로
 게 失笑로 失禮하였다. 어쨌든 즐겁고 훈훈한 장면이어서
 나는 이 추억거리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 特定人들을 가
 리키시지는 않았다. 日本帝國主義 軍國主義者들이 大陸侵
 略에 한창인 때라 세상 되어 가는 꼴이 사나워 몹시 맞갈
 지 않으셨을 것이다. 선생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時局을
 論評하시거나 국가와 民族에 言及하신 말씀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亂世에 天山遁은 못할망정 明哲保身만은 피하
 서야 하였으리라

두번째는 解放 直後인 一九四五年 十月一日이었다. 아침
 일찍 부임인사를 드리러 교장실로 들어가자 대뜸 손을 꼭
 잡으시며 「열심히 하게」라는 단 한마디 구김없는 웃음이
 주름진 얼굴에 활짝 피어 있었다.

이날 나의 추억이던 영장 — A Piece of good advice

— 를 두 學級을 講堂에 모아 놓고 한시간 가르쳤다. 그
 리고는 이튿날 게·페·우의 속임수로 체포되어 이듬해에
 는 시베리아로 押送當했다. 내가 잡힌 날 선생님은 과연
 되었다. 전일 교사를 명도하라는 共產黨의 命令에 不
 服하셨기 때문이었다. 保安隊에 끌려가셔도 初志一貫하
 셧고 온갖 수모에 험박과 공갈에도 굽히시지 않았다. 生涯
 初有의 身命을 내거신 不退轉이 아니었을까?

마지막으로 은사님을 뵈게된 것은 一九五二年 봄의 어
 느날 釜山에서였다. 大新洞 산기슭 서울大學校 판자집 假
 校舍로 선생님은 나를 찾아 오셨다. 송구스러워 몸을바를
 물랐지만 살아서 만난 것만으로도 기쁘기 한이 없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니 선생님은 나에게 일감을 하나 주
 셧다. 그런데 분부라 할까 당부라 할까 여하튼 가벼운 심
 부름을 나는 끝내 遂行하지 못했다. 스승님의 기대를 영
 영 저버리고 말았다. 越南한 몸인지라 世情에 너무나
 어두웠다. 아니 愚昧가 탈이었다. 정녕 무성의의 탓은
 아니었다.

삼가 선생님의 眞福을 祈願하며 容恕를 伏乞한다.

박물관 시간의 붕어와 연못 그리고 앨범

金 禧 庚 (第二十二回)

數日前 들쭉아이의 이사로 冊들을 整理하게 되었다. 그때

고 의논하여 일을 추진키로 하였다.

뜻밖에 그렇게도 찾고있던 中學앨범(二十二回)의 복사 필름이 나왔다. 그것은 金東成 學友(在美)의 앨범을 잠

앨범사진을 보니 흘러간 威南中學의 五年간의 학생 생활이 주마등 같이 떠오른다.

간 빌려 보았을 때 지상에 한 권밖에(남한에서) 없으니

아마도 中學二학년 때 일인 것 같다.

복사라도 꼭 해두어야 되겠다고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博物館 시간의 붕어를 해부해 보는 시간이었다. 붕어를

그 후 몇 차례의 이사로 필름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二十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것이 뜻

一興百貨店 뒷골목에서 구하여 산 것을 정성스럽게 들고 갔었다. 모두들 붕어를 채상 위에 올려놓고 해부용 칼을 들고 흥미롭게 작업에 들어가려고 떠들석했다. 그때

이렇게 찾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나는 통속에서 꺼낸 붕어가 팔뚝팔뚝 뛰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는 기쁨과 흥분을 억누를 수가 없어 단숨에 P. D 집

쌍한 생각이 들었다.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금방우를

에 달려가서 당부하면서 현상을 부탁했다. 후백필름이라 사진 찾기까지는 5일이나 걸렸다. 사진을 손에 든 순간

사이를 헤치며 고단앞의 선생님한테로 뛰뛰뛰 걸어나 갔다.

나는 四十여년전의 중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리운

선생님! 불쌍합니다. 이 붕어를 놓아주면 어떻게 됩

앨범들……. 함남! 함남중! 이 사실을 趙在衡 金聲翰 學友들에 연락을 하였다. 그들도 다시 사진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갖자는 의견들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임을 갖

니가?……? 했다. 그 선생님(아마도 佐方敏男先生?)이라고 생각된다)

도관을 동그렇게 하면서 나를 한참 쳐다 보시더니 한마디로 '요, 로시이' 라고 하셨다. 나는 기뻐서 그 작은 생명체를 안고 내 자리에 돌아와 앉아서 교과서, 봉어 해부에 열중한 그는 금우들을 번갈아 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끝나는 벨이 나자 나는 박물관에서 나와 와다리 로오카를 뛰어 본관을 지나 자전기 통학생들의 자전기 보관소를 거쳐 가운데들의 작은 연못으로 달려가 봉어를 물속에 놓아 주었다. 봉어는 파란 5월의 첫 여름 하늘 아래 못가에 피어 있는 창포꽃 사이를 헤치며 사라져갔다. 나는 푸른 잔디위에 서서 한참동안 고기가 간 방향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실로 돌아왔다.

그후 나는 점심시간이 되면 후관 2층 끝에 마련된 도서관에 가서 잡지나 책을 뒤적거리다가는 연못을 내려다보면서 봉어가 잘 자라는지 하는 생각을 가끔 하였다.

이렇게도 과학시간에 천치같은 소리를 하는 열등생이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가 독립되어 우리말로 공부하는 요즘 지금의 선생님들을 이따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학생

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한다.

나는 10여년전 K대학 박물관장을 지낸 L교수가 별세 하셨을 때 서교동 대에 갔었다. 그때 마당에 노란 창포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모교의 작은 연못가의 꽃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높지않은 곳에 자리잡고 불이 되면 교문 양쪽에 만발하는 빛꽃들 / 눈보라치듯 바람에 날리는 꽃잎 사이로 가방을 들고 오간 그 길 빛나무는 본관(교무실) 앞의 것이 더 크고 꽃도 더 많아서 우리를 1학년 때 빠져소동을 일으키는데 알맞았던 것 같다.

학교 들레에 심은 아카시아의 날은 훈훈한 꽃냄새를 맡으며 추구를 한답시고 뛰어 놀던 일 / 한참 뛰다가는 야구부 그물 뒤에서 쨌물쨌물 (함흥남면 애칭) 하며 철조망 건너편 운흥리 냉면집에 싸인하고서는 그물 아래로 살짝 들어오는 그릇을 부등켜 안고 독특한 기술 / (로 단숨에 처리해 버리던 崔仁根 兄(作故)의 솜씨 白萬吉兄, 검은 표범같이 달리던 孫光柱 兄, 정확한 공 처리를 하던 朱圭演 學友…… 모두들 잘 지내고 있는지……

청소년화도들의 꿈을 키워주는 학교는 수목 정관들의 주

향이 될 만하다.

위환성의 학생들의 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威興高普는 그 당시의 여건속에서도 실로 명문교로서 손색이 없으며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

반룡산 구천각이여 / 겨울에 스케이트 타던 성천강, 정월 대보름날 다라건다 하던 만세교, 전교생이 일제히 萬마라톤 하던 호련천뚝, 소풍지로 알맞은 귀추사여 / 모교와 함께 통일외 그날까지 부디 잘 있어다오 /

우리들 동창회에 거는 期待

李 漢 淳 (第二十三回)

우리들 모임의 종래의 연례적 만남에서 이제 뜻을 더하여 생각을 교환하게 된다는 것은 늦게나마 진 일보라고 보인다. 타향에서의 단체 모임인지라 구성원이 인생의 사양길에 들어서게 되므로 후배와 연속되지 못하는 時限性을 지닌다. 따라서 과거의 회상이나 추억에다 앞날을 연결시키는 가운데 흘러가는 나머지 시간을 보다 뜻있게 맞이해야 하겠다.

우리들은 一九三〇년대 취학적령아동의 三분지 一이 진학할 때 당시로서는 고등이면서 보통교육인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가서 威南의 대표격인 함남 충화교를 마쳤으니 선택된 셈이다. 그러나 일제말과 해방후의 험악한 국제적동 가운데 운명의 장난에 휘말려 고생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다. 한편 최근에 와서는 발달한 문명의 이기와 점점 복잡해져 가는 사회와 가치관의 혼란에

대해 적응력이 떨어져 우리 동창들은 대체로 전환기에 들
어서고 있다. 우리 고향은 이조五〇〇년의 왕조가 난 땅
이다. 허나 조상들이 중앙부대에 크게 참여하지 못했지만
반면에 그 압력에 물들지 않았다. 그렇게 오랜 변방 시대
에도 빛이 들어와 일제시 十三개도 중 한남도는 으뜸으로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그러기에 여기 경상 전라 및 충청
도의 三兩지방 및 강원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다.

물론 고령 이조시대에도 국제화정책으로 남부 이주민이 많
이 들어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향민
이라고보다 사적으로만 고향에 돌아온 셈이되 다만 김만철
씨보다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이다.

그 외 함남도는 일제시 근대화가 진행되어 문자해독율이
높았고 중앙에서 북청 물장수로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열이
높았다. 또한 오늘날 함흥방면이나 보신량 나아가서는 시
장에서 또순이로 알려지듯 남녀가 근검자립심이 강한 점 등
특유의 문화와 기풍이 안정되고 있다.

내 자신 두고은 고향산천과 선조들의 숨결 담긴 문화유산
에 대해 철이들어 감인지 그리워진다. 회상컨대 요란한

興南이나 본궁공장은 보았지만 수화여행 코스인 인근의 부
진장진강 물을 담은 댐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성계의 행
적 등을 왜 가보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던가 안타깝다.

이제서야 왜정시대 자료를 찾고 조상들의 열이 담긴 東
國輿地勝覽이나 威山誌 관북읍지 그리고 최근의 걸작인
道誌을 흥미있게 보게된다. 때마침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민족문화 정리사업에 원고청탁을 받게되니 더욱 좋은계기
로서 이해와 애착을 갖게 된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未及속에서도 원칙적상의 二世들에게
뿌리를 이어주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진국의 문
물습수에 여념이 없는 나머지 부모, 조상의 고향에 대해
등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남북통일의 열 때 부
모, 선친의 고향에 관심조차 없대서야 세대간에 단절만이
생겨날 것이고 면목이 없게 되겠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속에서도 두고은 고향이나 선배들
의 문화유산을 찾기 어렵다. 기대되는 함남민보조차 남겨
둘 기사가 별로 없고 또한 한남도 三市 十六군 중 발간
된 畵誌는 아직 도 밖에 못 미치는 형편이다.

이상 동창들의 전환기에 제 의견도 따르지 못하므로 다
는 우리 道 출신의 유지 동시에 도민 대표격인 동창 여
러분에게 보다 뜻 깊은 모임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기대
를 걸고 싶다.

첫째 동창생들의 노령화에 따른 명맥을 연장하는 방도
를 찾는 일이다. 현재 永生동창과의 합동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편 우리의 二世까지 확대하여 친목회 성격을
가미하는 일이다. 나아가서 高女동창회까지도 연결하여 가
족생활까지의 파급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모임을 상향식으로 운영하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부들의
청년화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령화되는 회원들의 여가선용과 아울러 二世들
의 계몽과 축적된 문화전승과 동시에 전수의 기회를 마련
하는 일이다. 즉 동창회 사무실 겸 연락처를 마련하여 만
남과 대화를 촉진했으면 한다. 이런 점에서 도민출신이 창
설한 대학등 고등교육기관에 관부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유
실되는 서적, 족보, 지도, 문화재 등을 정리하여 강연회
와 인쇄물 발간에 의한 전달, 계승, 축적, 보전 및 이용

이 이루어야 하겠다. 이런 점에서 현재 발행중인 威南
民報는 편집내용을 좀 고쳐 우리 二世들도 애독할 수 있도
록 보다 높은 차원의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세째로 대도시화와 편리한 교통혁명시대에 즈음하여 사
계절에 걸친 야외의 전원적인 모임의 場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수시로 등산, 산책, 낚시, 운동 및 놀이 등 동호인의
산간계곡이나 강, 해변에 모임을 갖는다던가 또는 공동묘
지개설로 자연스러운 만남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나는 영흥군의 해변가에서 태어나 지난번 배포된 동창회
명부에서 우리 형님이 선두로 同窓의 일원으로 이어간 것을
재발견하면서 새삼 감개무량하였다. 즉 선배나 선구자가 계
기와 바탕을 마련하는 중요한 뜻을 여기서 다시 기대하는
것이다.

獨白과 回想

韓 時 坤(第二十四回)

中學校 卒業 直前に 咸興警察署 高等係와 三宅 校長室에 交代로 불려다니며 徹夜로 訊問과 取調를 받고 結局 咸興 農校에서 일어났던 抗日運動(우리집 事件)에 깊이 관여된 不穩學生이라 하여 同期生 近二〇名이 무더기로 無期停學 處分을 받고 父母의 誓約下에 풀려났다.

집에 들어앉아 進學工夫를 하는 한편 每日 反省文을 써서 수북히 들고 擔任 日置 先生 집으로 찾아가 日本學校로 進學하겠다고 懇請하여 志望校 願書에 도장을 받아 가지고 玄海灘을 넘었다. 日本上級校에 入學하고 여름放學에 故鄉으로 돌아오는데 埠頭通路에서 倭警의 檢問에 대들다가 한 나절 留置場에서 쉬고 다시 北行列車를 타고 咸興으로 向했다. 집에 와서 이번엔 母校를 찾아 三宅 校長을 만나 東京에서 같이 지내는 同期生 韓均相君과 함께 咸興 公會 堂地下그릴에서 輕洋食을 待接하고 지난날의 遺憾을 웃음으로 풀었다. 學業 途中 不運하게도 日本軍隊에 끌려가

져 | 中支발판을 피담으로 적시면서 千辛萬苦 끝에 當時 金九 主席께서 蔣介石 總統에 보낸 在中國 日軍內 韓籍將兵爲先歸國措置에 關한 特別要請에 依하여 겨우 一九四六年 七月에 解放되어 獨立되었다는 祖國에 돌아왔다 (當時) 中支 方面 日軍에서 같이 苦生한 同窓은 二一回 金源一 二二回 趙在衡 二三回 朱圭演 二四回 柳炯極 金性均 金壯殷 (陸士 教官으로 六·二五 戰死) 二五回 車寬哲 等) 仁川 埠頭에서 機關短銃을 멘 美軍憲兵의 監視下에 DDT를 흠뻑 뒤집어 쓰고 入國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故鄉 땅 咸興으로 가자고 同行 金性均君과 함께 이남땅 끝 驛이라는 東豆川驛에 下車 이번엔 三八線 境界라는 漢灘江 鐵橋(當時 臨時人道橋로 代用)를 넘어 가자니 다리목에 美軍憲兵이 앞을 막고 檢問한다 事緣을 말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蘇聯 守兵이 우리를 調査한다고 無條件 漣川 蘇軍憲兵隊에 引繼한다 허허 獨立되었다는 祖國에

오니 待接들이 이 지경이라 율화가 치밀고 분통이 터진다. 하기는 남의 사빠로 解放되었다고 해서 無效宣言인가 아 니 日本놈들 보다 더한 놈들이 남의 땅 남의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憲兵隊를 빠져 나와 汽車로 威興으로 들어 가는 데 驛에 到着 하면 또 取締가 있을 것이 귀찮아 列車가 橫內로 들어서기 前에 徐行하는 틈을 타서 아예 車에서 뛰어내렸다. 이것이 歸國 해서 받은 첫 印象이자 體驗이다. 其後 結婚도 所謂 出身 成分 밖으로 남몰래 조심조심 식을 치르고 夜間逃走로 二 泊三日의 新婚旅行을 太白의 險谷 峻嶺을 晝夜로 기어넘 어 越南한지 어언 四〇年 또 六·二五 其後 數 많은 激變 속에 勇게 살아 남아 이렇게 늙었다. 이제 半世紀 前의 中 學時節을 回顧하자니 그간의 삶이 너무 어지러워서 現기증 이 날 지경이다. 떠오르는 일도 별로 없다. 다만 講堂에 서 있었던 일 한 두가지 적어본다. 그 當時 講堂이라 하 면 教育勅語朗讀 戰時體制訓示 등으로 所謂 皇國臣民精神涵 養과 心身の鍛鍊을 시키는 딱딱한 道場이었으나 때로는 기쁜 消息을 傳해 주는 곳이기도 했다. 二學年때로 記憶 된다. 하루는 獨逸 伯林 올림픽大會에서 新記錄을 樹立하고 마라톤에서 世界를 制覇하고 돌아온 孫基禎 選手가 全國 을 돌면서 巡廻講演을 하고 다니던 次에 우리 學校에 들 여서 全校生 教職員 道學務當局者等 많은 사람들을 講堂에 모아 놓고 그 서투른 日本말로 月桂冠에 얹힌 勝戰談을 들려줄 때 모두들 숨을 죽이고 傾聽하며 그저 感激에 잠 겨 있었다. 講演이 끝난 後 터질듯한 拍手와 喝采를 보 내고 學校側의 要請에 따라 우리들은 運動場에 나가 孫選 手를 先頭로 短縮마라톤을 하기로 하고 希望者만 같이 뛰기로 하였는데 百餘名은 競技에 參加하고 나머지는 運 動場 트랙 안에 모여 앉아 求景하기로 했다. 參加者들은 트랙 出發線上에 섰다가 出發信號와 함께 始作하였다. 처 음 한 두 바퀴는 제법 따라 가니 回를 거듭할수록 모두 들 점점 뒤떨어지기 시작 나중에는 先頭그룹과 처진 사 람들이 서로 엉켜서 뒤범벅이 되어 돌아간다. 우리學校 의 트랙이 國際基準인 四百m 트랙인데 이것을 二五回 돌 아야 一萬米 短縮마라톤이 되는데 그때 바로 孫選手를 따라 完走한 사람은 不過 다섯 손가락에 꼽힐 程度 그

것도 몇 바퀴씩 뒤져서 풀인했지만 여기서 珍風景 하나가 벌어졌으니 그것은 이競技에 함께 參加했던 道學務局長 嚴昌燮氏의 모습이였다. 그 南山만큼 볼록 나온 배를 안고 孫選手를 따라 뒤뚱뒤뚱 뛰어가는데 모습은 實로 腰折腹痛을 할 慢面의 한 場面이었다. 勿論 겨우 한바퀴 돌고 棄權했지만…… 한편 始終一貫 똑같은 페이스로 力走하는 孫選手의 그 즐기찬 走力에 우리는 超人間的인 어떤 魔力같은 것을 느꼈다. 참으로 克己의 鬪魂을 우리들에게 심어준 感銘깊은 場面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어느날 當時 全鮮을 制覇하고 日本으로 遠征가서 日本代表팀과 優勝을 놓고 激突하여 堂堂히 勝利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咸興 축구단 단장으로 팀을 引率하고 갔던 金明學 博士가 母校인 우리 學校에 찾아와 亦是 全校生 教職員을 講堂에 모아 놓고 全日本天地를 놀라게 했던 決勝戰에서의 實戰 談을 생생하게 들려줄 때 우리는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비로소 朝鮮 그리고 咸興健兒의 衿持를 느껴 보았다. 歸國後 그 축구단은 解團 直後라 선수들의 모습이 들을 直接 보지는 못한 것이 遺憾이었다.

끝으로 또 한가지 생생한 追憶은 三學年 때 일이다. 우리 學校 陸上部가 咸興地域 中學校 陸上競技大會에서 優勝하고 道代表 자리를 놓고 道内 他地域 代表팀들과 元山 商校 校庭에서 最終 決勝戰이 벌어졌는데 우리 學校팀의 少年部가 個人 및 團體에서 堂堂히 全勝하고 優勝旗 攄 綜合 優勝賞狀을 타고 凱旋하였는데 當時 선수로 參加한 나로서 學校를 爲하여 크게 貢獻했다는 自負心으로 가슴이 부드하였다. 다음날 아침 우리 選手團 引率教師였던 奧野先生이 歡迎式을 爲한 講堂朝禮에서 當時의 競技實況을 報告할 때 全校生이 보내준 拍手와 激勵는 지금도 내 가슴에 고스란히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다. 其他 이 講堂은 週一回 或은 雨天時 朝禮를 實施하는 곳으로 또 劍道修鍊場으로서 많은 追憶을 우리들에게 남겨준 곳이다. 이 講堂을 포함한 우리들의 옛 교사는 지금쯤 어떻게 그 老朽된 몸을 지탱하고 있는지 解放後는 主人을 잃고 그 모진 共產治下의 人民委員會建物로 또는 其他 黨機關의 建物로 전전하면서 얼마나 고된 試鍊을 겪고 있을까 生覺하면 그럽고 애처롭기만 하다. 無常한 歲月에 밀려 失鄉民生活

四〇年 우리 언제 저 그리던 故鄕 땅 盤龍山에 올라
 평 和롭고 기쁨진 威興벌과 그 북편을 짓을처럼 유유히 흐르
 는 맑고 깨끗한 城川江 그리고 그 위로 지나간 浪漫과 鄉
 愁의 다리 萬歲橋를 바라보며 眞正 統一된 自由民으로서 故
 鄕의 豊饒를 謳歌하며 지난 날을 回想하면서 餘生을 보낼
 날이 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 後孫들에게 한 世代의 이
 지 天地神明이시여 부디 이 땅에서 民族分斷의 暗雲을
 거두어 가주소서 끝으로 鷺山 先生의 城川江詩 한首 적
 어 둔다.

城川江

都連浦 千里長城 할어졌어도
 城川江 萬歲橋야 길기도 하이
 哈蘭坪 넓고 넓다 끝도 없어라
 사나이 큰 숨 한번 내쉬어 보자

南中生活과 自然健康法

韓 學 論 (第二十四回)

내가 威興高普에 入學한 것은 一九三七年 봄이다. 永興
 에서 담임선생 引率하에 威興으로 試驗보러 갔는데 그 當
 時는 入學試驗은 한마디로 壯觀이었다. 몇名은 불었다고
 좋아하고 대부분은 떨어져서 서울로 二次 보러 가거나 아
 다. 그 때의 中學校 面接試驗에는 반드시 물어보는 문제
 가 있었다.
 「지금이 어떤 때이냐?」
 그 當時는 日本이 國際적으로 孤立되어 國際聯盟의 制裁
 를 받을까봐 軍備擴張에 골몰하던 때이

예 집으로 돌아가서 農事를 짓거나 하였다.

「옛 非常時입니다」

「왜 軍備을 늘려야 하느냐?」

「옛 平和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對答하지 못하면 학과 試驗이 一〇〇點이라도 落第가 된다고 하여 모두 외우고 갔었다. 하여간 번쩍번쩍 하는 배속 장교(大竹大佐)의 面接을 치른 記憶은 있는데 問題가 어떤 것이었던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이것이 五〇年前的 일

中學校나 女學校에 붙으면 시골에서는 무슨 科擧나 한 것 처럼 조금 여유가 있는 집(하기는 그때는 財産證明이 있어야 志願했다)에서는 소·돼지 잡고 잔치도 벌인다. 日帝 教育政策의 否定的인 面을 생각하면 쓴 웃음이 나온다.

그렇게 어렵게 또 한편으로는 祝福과 期待를 받으면서 入學했다. 그런데 그 뒤의 學校生活은 시원치 않았다. 成績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親舊의 誘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공부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第一 큰 원인은 健康의 不實에 있었던

것 같다. 心身の 輕快함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歲月이 흘러 서울에 와 모 女學校에 勤務하였다. 내내 健康은 시원치 않은 형편 食生活의 잘못 발목의 고장 허리와 목의 디스크 이런 것이 相關되는 것인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아깁을 받던 한 女先生이 뜻밖에도 乳癌으로 무참히 죽었는데 이 때를 계기로 새로운 자연 건강법을 알게 되었다.

「암 두려워 할 것 없다」라는 글이 든 冊을 서점에서 구했던 것이다.

이것이 西醫學 또는 西式健康法이라는 것인데 現代의 醫療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同窓 선후배중에 醫師職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스러움을 느끼나 이것은豫防이나 治病에 있어서 革命的인 것이다. 아예 無病 社會와 國民皆醫를 主張하는 것이다. 이것을 의하고 어찌고 하다 보니까 모교의 시오자키(鹽崎) 선생의 생각이 군득 떠올랐다.

二學年인가 三學年인가 되던 때에 전교생을 講堂에 모아 놓고 이 健康法의 基本을 說明하고 示範을 보여준 일

이 분명히 있었다. 五〇〇명 정도의 전교생이었으니 지금
記憶에 남아 있는 분도 제실 것이다.

學生들을 앉혀 놓고 앞쪽 교단 위에서 直接 示範하셨
다. 지금 補充해서 생각하면 (1) 딱딱한 자리에서 자야 한
다. (2) 목에 딱딱한 베개를 베야 한다. (3) 붕어가 헤엄치
는 식의 運動을 해라 (4) 팔과 다리를 들고 떨어라 (5) 손
바닥 발바닥을 합치는 運動을 해라 (6) 등과 배를 함께 움
직이는 運動을 하면서 生水와 좋은 생각을 해라 하는 등
등이었다. 이것이 保健療養의 六大法則이라는 것이다.

그當時 모교에서는 講堂에 모여 著名人士(?)의 講演을
듣게 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軍國的인 색채 때문
에 마음속으로는 따르지 않는 수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이 시오자키先生的 모처럼의 강의도 별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문제가 건강법이니만큼 그때는 아니 지금도 대부
분은 그렇지만 病은 으레히 사람에게 있는 것 병이나
면발리 醫師의 治療를 받을 것 주사나 藥은 절대적으로
必要的 것 등등이 소위 科學的인 眞實이라고 믿고 있었

다. 無病社會나 國民皆醫의 可能性 따위는 잠꼬대같은 것
이었다.

나의 立場에서 생각하면 이런 점은 참으로 뒤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運이 안되어 그 건강법에 눈뜨
지 못했구나 그當時에 눈떴더라면 지나간 三〇年の 疾
病生活를 거뜬히 청산할 수 있었을 것을 五〇 가까이에
서 이것을 알게 되어 德을 보고 있으니 하기는 그것
도 고마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여
기에 앉아 있지 못했을 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同窓 선후배님에게 寬容해 주실줄 알고 懷古와 아
쉬움을 적었습니다. 이 健康法을 잘 理解하고 實踐하시는
분으로 조 재형 부회장님이 계심을 부언합니다.)

京橋莊과 遲刻 醫學徒

趙 嘩(第二十五回)

〈京橋莊〉 白凡 金九. 지금 나는 京橋莊 아닌 高麗病院의 앞문을 거닐고 있다. 無常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感傷의 물결이 내 머리를 감들고 있다. 江山도 變한다는 十年이 내년도 더 지난 四十餘年前으로 感傷의 물결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스무살 안팎의 醫學徒였다. 예쁜 아가씨들이 곧잘 내 뒤를 따르는 美男(?)이기도 했다. 그러기에 우쭐대기는 했어도 戀書 한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한 숙매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患者의 돈주머니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麻痺의 醫學徒는 더욱 아니었다. 썩어가는 患者의 상처를 治療하기에 앞서 精神改革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醫學의 길을 버리고 木대를 든 文豪 魯迅과도 같이 그때 나는 醫學보다는 政治現實에 더 민감했던지 몸속의 피는 스물거리기만 했다.

大韓民國 臨時政府 主席 白凡 金九

解放된 이듬해라고 記憶된다. 險하고도 긴 亡命의 길에

서 환국하시어 先生이 起居하시는 京橋莊(서대문 적십자병원 옆)의 문을 두드린 것은 이때였다.

사람을 죽이려는 한낱 形式노름인 소위 인민재판으로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던 아버지 反動이라는 낙인으로 괴뢰의 魔手に 걸려든 형님 나는 人間否定的 참상을 더는 참지 못하고 三八線을 넘었다.

先生을 찾아간 내 氣魄은 대단했다. 반겨 맞아주시는 先生의 모습은 그저 尊嚴하시기만 했다. 그런가 하면 어딘지 모르게 慈父처럼 인자하게 느껴지는 풍모의 先生이시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解放이 준 비찬 물결만이 용솟음치며 混沌의 極을 이를 때였다. 때에 純粹하면서도 血氣旺盛한 젊은 의학도였던 내가 反託 反共에의 隊列에 앞장섰던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反託 反共에의 에너지의 排出口를 白凡 金九先生의 愛國心에 결부하려고 한다. 당시의 내 行動을 단순히 젊은 혈기의 발로라고만 단정지을 수도 없

을 것이다.

假飾없는 性品 獨立에의 熱火같은 執念과 愛族으로 그 生涯를 다 바치신 金九 先生이야말로 愛國者의 산 聖像으로 나는 믿으며 숭앙해 왔다. 내 열혈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던 先生은 조용히 말씀하는 것이었다. 「자네는 의학도라 했지 이제 우리는 제각기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을 더 충실히 해 나가야 할 때가 왔네 政治現實에 뛰어드는 것만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닐세 의학도는 모름지기 醫師의 道와 術을 닦아서 이 겨레의 病苦를 덜게하며 예방하는데 專念하는 것이 자네에게나 나라를 위해서도 더 유용하고 有益한 일이 아니겠나」 政治는 政客에게 맡기고 의학도는 醫術의 길을 잘 닦으라는 先生의 따뜻한 가르침을 나는 어거가면서까지 醫學 아닌 政治소용들에게 말려들어 恨의 눈물을 삼킨 때도 있었다. 뒤늦게 철이 들어 「自己의 길」로 되돌아와 遲刻 醫學徒로서 醫師의 末席을 더럽히고 보니 이제야 先生 — 품으셨던 大義를 알 것만 같다.

無常 先生 가시어 近四十年 幽明을 달리하시던 京

橋莊 자리에는 비극이 벌어진 역사의 장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려병원이라는 醫療機關이 무심하게 서 있다. 天壽를 다하고 가시어도 國民된 者는 서러워했을 터인데

非命에 가신 그 자리에 이제 人命을 다루는 커다란 병원이 들어섰다함은 病든 이 겨레를 구하시려는 先生의 뜻이 런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매 세상은 너무도 아이로니칼하기만 하다. 兇漢의 銃彈에 先生이 쓰러지시던 날 民族의 號哭이 하늘을 찌를 듯 서러웠던 그 京橋莊 옛터에 인간 生命의 소생의 기쁨을 안겨주는 이 병원 뜰에 나는 서서 눈을 감아본다. 이 京橋莊 옛자리가 白凡紀念館으로 永久히 保存되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어찌나 혼자만의 부질없는 욕망일 수야 있겠는가 어썩든 이제 京橋莊 아닌 고려병원으로 변신한 이 마당에서 나는 이 병원이 先生의 크나큰 뜻에 부응하게서리 營利追求 아닌 救民濟世의 仁術의 殿堂으로서 발전하기를 충심으로 빌어본다.

「氣山心海」 先生의 遺墨에 보이듯이 氣象은 山같이 지니고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라 — 이는 곧 白凡 金九 先生이 우리 젊은 사람에게 남기신 教訓임에 틀림없

었다. 고려병원이나 京橋莊의 옛들을 거닐면서 나는 바
이런의 詩 한 句節을 여기에 옮겨본다. 「네가 선 땅은

英雄이 선 땅. 英雄이 쓰러져 먼지로 化한 땅」이라고.

學窓時節을 回顧하되

梁 泰 鱸(第二十六回)

벗꽃이 만발할 때의 우리 學校의 아름다움과 아카시아
숲에 둘러 싸인 運動場에서의 五年間의 學窓生活은 정말
내 一生에 잊지 못할 추억과 감결과 그리움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므로 一年에 한번씩만나는 期別 同窓會는 생일
날 같이 즐거운 날이다.

나에게 깊은 印象을 주던 몇가지 일들은 오늘날에도 學
生들 앞에서 서슴지 않고 들려주곤 한다. 入學하여 一學
年이 된 어느날 威興 극장에서 상영하는 「너와 나 (君と
僕)」라는 映画의 團體觀覽에 갔다 집에 돌아온 나에게 當
時 五學年이고 같은 故鄉이신 朱乾 兄이 저녁에 자기 下宿
방으로 오라는 것이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갔더니 三·

四名의 故鄉先輩님들이 와 계셨다. 이윽고 오늘 영화에
대한 소감을 일일이 후배들에게 질문하시고 나서

오늘 본 영화는 잊어 버려라 보지도 듣지도 않은 것
으로 해라

하고 尊嚴하게 말씀하시면서 許由와 巢父의 潁川에 귀 씻
은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祖國
과 民族에 對한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 라고 생각하며 지
금은 東京에 계시는 그분의 健康을 빈다.

두번째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어느 날 酒회를 마
치고 親舊와 이야기하며 교실로 들어갈 때였는데 누군
가 내 옆구리를 찌르기에 돌아다 보니 上級生이었다.

그는 뒤에 日本 사람이 오니 日本말로 얘기 해라” 하고 지나갔다. 나는 일본 日本말로 고쳐 말했다.

이런 일들은 나의 母校의 先輩들이 얼마나 後輩들을 아껴 주었으며, 우리를 모두의 가슴속에 맥맥히 흐르는 共同點이 무엇이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 주던 일들이어서, 오히려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上·下 級生間의 구타같은 일은 찾아 볼 수도 없었던 것 같다.

다음은 내가 平生 잊을 수 없고 그리워 하는 친구의 일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났을 때 人氣없는 日人 先生이기에 K君이 큰소리로 先生의 別名을 불렀다. 되돌아 온 先生은 누구냐고 다구치며 좀처럼 물려서지 않고 캐묻는 것이었다. 이때 한 안경 쓴 學生이 제가 했음니다. 하고 나서는 바람에 事件은 진정되었으나 그는 教室에 끌려가서 큰 곤욕을 치루고 돌아왔다. 내가 왜 네가 자신해서 경을 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K君이 만일 이번에도 또 걸렸으면 退學을 맞게 되었을 것이 아니냐고 태연히 대답했다. 元來 校則이 嚴格하기로 유명했던 學

校였던지라 나도 그의 말에 感動하여 그를 다시 認識하게 되었고 그 後부터 더욱 親한 친구로 사귀게 되었다.

그는 그 외에도 金剛山 修學旅行中에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짐 좀 가볍게 해 달라며 全部 우리에게 나눠 주던 일, 여행중에 校則위반 학생 색출과정에서 끌려가 곤욕을 치루면서도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어서 결국 나쁜 학생으로 카인 적혔는데도 굴하지 않던 내 친구 劉 兢은 확실히 우리 學校의 참 君子였고 聖人の 모습이었다.

내가 징병으로 日本 軍隊에 끌려갈 때 내 故鄉 利原까지 나를 격려하며 기차가 막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 하나님께 가서 / 훈계로써 인 도하며 / 도와 주시기를 바라네 / …….” 하는 찬송가를 부르며 안경 너머에서 눈물 방울이 떨어지던 모습은 永遠히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映像으로 남을 것이다. 只 수는 以北 어느 곳에서 醫師를 하고 있을 그를 나는 希望을 갖고 相逢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소식에 依하면 은 家族은 다 越南하였는데 兢만이 越南 안한 경위를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더란다. 그가 人民軍部隊에서 휴가왔을 때 國軍이 진군하니 너도 가지 말고 있다가 南下하자고 하였더니 어머니 저는 가야 합니다. 부대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休暇를 주며 제가 돌아가야 다른 사람의 休暇를 許諾하겠다고 하니 제가 안가면 다른 사람이 休暇를 못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理由는 많은 전상병들이 내 손을 기다립니다. 어머니 그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닙니까 라고 하더란다. 어머니인 자기도 아들의 이 말에는 더 만류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登山路와 北녘 땅

내가 태어난 곳은 定平 廣德이란 곳입니다. 國民學校 三學年이 되던 해에 靑雲의 꿈을 품고 威興 黃金町 小學機에 轉學하게 되어 威南中學校 進學의 길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入學이 되어 祝福을 한 몸이 지닌 것 같은 기분이었

나는 내 人生에서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만 威南中(威興高普)學校時節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내 친구 劉兢이의 安否라도 알고 싶은 것이 나의 所望이며 내 기도의 제목이다.

이제 半白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니 故鄉山川과 잊을 수 없는 人情의 사람들이 그리워지며 祖國統一의 念願은 갈수록 짙게 마음을 물들인다. 城川江의 모래사장 君子川의 맑은 물이 보고싶어 진다.

元 章 煥(第二十七回)

지요 入學當時에는 一三名이었으나 卒業 때는 겨우 七〇餘名에 不過한 것으로 記憶이 됩니다.

威南道の 三市 一六郡에서 한 郡에서 겨우 一, 二名이 승格될 程度로 競爭이 極甚한 것은 다 아는 事實입니다. 저

희郡에서도 저 외에 二名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父母님의 財力 德分에 小學時節부터 下宿生活를 하면서 南中 入學 目標로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入學의 榮光을 차지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日帝 末期의 險難한 中 學生生活를 回顧하면 戰鬪帽에 하이노(배낭) 게를 國防色 차림의 學生服 겨울에는 國防色 만토로 正裝하였으며 其他 創氏改名 우리 語文學의 抹殺, 皇國國民化 徵兵 등 갖은 壓制 속에서 살아온 五年間의 學窓生活는 참으로 感懷가 깊습니다. 더우기 勤勞奉仕生活 電波事件 流言囂語 事件 등으로 많은 學友들이 犧牲이 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읍니다. 卒業人員이 減少된 原因도 여기에 起因됩니다. 저는 解放直後 리구사구 하나 메고 單身 越南 六·二五의 慘禍 속에서 겨우 學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後 三十年間 金融界에 從事하다가 停年 退任 지금은 조그만 한 빌딩을 經營하면서 餘生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數年前부터 健康維持를 爲하여 아침마다 典農洞에 있는 拜峰山 登山을 하게 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例外 없이 어둠컴컴한 새벽길을 혼자서 걷습니다. 귀족은 뜻이

고요한 이른 새벽에 티없이 맑은 아침 空氣를 흠뻑 들며 마시면서 山行하는 그 상쾌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우거진 솔밭숲 사이로 이어진 오솔길을 따라 빠꾸기와 평의 요란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頂上에 오르면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눈 아래에 고요히 펼쳐 있는 長安의 朝景을 한 눈에 바라보노라면 불현듯 승리자의 쾌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하여 저 멀리 앞산 위에서 막 솟아오르는 눈부신 햇살이 솟아 오릅니다. 無限한 希望과 歡喜를 느끼면서 아카시아 꽃과 其他 이름모를 꽃들이 한창인 녹음의 오솔길을 다시 계속 누빈다. 바위틈에서 솟아 나오는 약수터에도 착하여 샘물을 한 컵 마신 후 메고 온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一化 體操會에서 約一時間 가량 運動을 하고 또 다른 새 길을 따라 下山하여 집에 돌아오게 되니 여기에서 아침마다 내 나름대로 참다운 삶의 人生을 즐깁니다. 저는 解放直後 祖父母 兄弟 姉妹 家族 血緣을 다 두고 單身 越南하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徹底한 離散家族의 한 사람입니다. 이곳 南쪽보다 幼年時節에 내가 살던

故鄕山川이 얼마나 秀麗하였는지 이루 形容할 수 없을程
 度였으니까요! 지금은 오고 갈 수 없는 休戰線 너머의
 赤地 下에서 한계적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家族과 同胞
 들의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糧券으로서 배고픔을 참고 견디며 強
 制勞動에 시달리며 마치 動物처럼 人生을 살고 있습니다.
 旅行과 居住의 自由마저도 剝奪당하여 조금도 搖動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자나깨나 世襲王朝 構築을爲한 宣傳과
 學習에 지칠대로 지쳐 健康을 위한 餘暇善用的 하나로서의
 觀光旅行이나 登山같은 것은 그들로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치한 노름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北韓의 참
 모습을 고발한 「凍土의 世界」나 지난번에 集團 越南한
 金萬鐵氏 一家族들이 暴露한 北韓實情 報告書에서도 드러
 나고 있습니다. 勿論 北韓땅에는 어떤 뜻에서는 훌륭한 자

然 景觀 내지 名勝古蹟들이 더욱 즐비합니다. 白頭山 이
 나 金剛山을 비롯하여 赴戰高原 明沙十里 등 世界的인
 觀光名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天與
 의 景觀들은 그들 同胞들에게는 한낱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山을 權力 維持의 道具나 特定人을 讚揚하기
 爲한 宣傳場으로 汚染시켜서는 안되며 더우기 이번 金剛
 山 建設의 경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自然을 毀損하
 여 도리어 同族相殘의 발판으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 이제는 어떠한 犧牲을 치를지라도 이 南北에 隸
 屬해 있는 아름다운 錦繡江山을 戰爭으로 말미암은 毀損
 으로부터 막아내는 데 온 國民이 協心 努力하여 子孫萬代
 에 넘겨주어야 할 使命感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南北이 自由롭게 往來하며 自然을 觀光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期待하면서

못다 핀 꽃들의 추억

金 鍾 殷 (第二十八回)

우리二十八회가 입학했던 해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 반년전인 一九四一年 봄이어서, 때는 바야흐로 완전 전시체제의 돌입기였다. 서울

점은모자에 유난히 돋보이던 높을 高 자 교모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그후의 국방색 빵떡모자에 가운데 中자

가 달린 교모마저 바뀌어, 우리들은 일본군의 전투모에

中자가 볼품없이 매달린 초라한 것을 쓰고 다녔다. 다리

에는 각반을, 책가방 대신 배낭을 메고, 거기에다 겨울

이면 망토를 뒤집어 썼으니, 그 모습이란 곱추를 연상케

하는 몰골이었다. 그럼에도, 모교전통이 무언중에 안겨주

는 강한 민족의식과 긍지만큼은 대단하였던 것으로 기억

된다.

우리二十八회의 특징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우리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입학정원이 종래의 120명 두 배를

라스에서, 180명 세 반으로 증원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던 一九四五년 봄, 전시학제라 하여 4년제로 일년 위의 5학년 클라스와 함께 강제(?) 졸업을 당했다는 점이다.

2학년때까지는 그런대로 정상수업을 하여 몇 선생님들

의 인상이 기억에 남는다. 세 모눈에 준임하면서 어딘지도

르게 「민음직스러움」을 풍기시던 대수(代數)의 한순형

(장이) 선생님의 인기는 우리 때에도 여전하였으니, 선생

님이야말로 우리 모교의 영원한 대부였다고 믿어진다. 일본

말이 서투르셔 거의 무언으로, 그러나 말대신 수식(數式)

의 예시로 간결하고도 정곡을 찌르는 선생의 명강의는 당

대의 고장의 명성을 함몰케 지니셨다. 생물의 양(楊) 장(章)

선생님의 인상도 기억에 남는다. 선생의 생활강의는 어느덧

자연법칙, 그리고는 인류역사의 의미 등으로 내용이 바

뛰어지면서, 중국의 여러 고사(故事)의 예시와 함께 어린 우리들에게 독립정신을 심어주는 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은 곧 일경에 체포되어 해방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다.

일본선생이라고 다 군국주의 나팔을 불어대는 것도 아니며, 영어의 쓰다(津田) 선생의 인상이 기억에 남는다.

영문법보다 발음에 역점을 두고 가르치면서 F자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 스스로 검지 손가락을 자기 윗입술에 대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서는, 윗 치열을 드러낸 채 교실안을 몇 바퀴고 빙빙 돌던 모습이라든가, 거의 미영(米英) 격멸이란 당시 구호를 입밖에 내지 않으므로써 학생간의 인기가 대단 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선생님은 술을 몹시 좋아해서 교실에 들어서기 직전 낭하에서 밖의 아카시아를 쳐다보면서 술그머니 한쪽 호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약병에 담은 소주(?)를 꼬집어내어 주루룩 마시고는, 다른 쪽 호주머니에 서는 소금에 절인 마른 생선(가소오부시)을 꼬집어 내어 한두번 뽀다음, 입가의 볼기를 맨손으로 썩 댄던 모습도 기

억난다. 당시에는 전시라 술이 아주 귀한 때였지만, 항상 제자들이 갖다 준다면서 「성천강(城川江) 물이 마르면 말랐지 우리집 술은 마르지 않음」을 항상 자랑하였다 함은 당시의 알려진 비화였다.

3학년애 올라가면서 일본군은 태평양 여러 곳에서 미군에 의해 격퇴 당하고 일본 본토에 대한 미군폭격도 격화됨으로써, 우리들은 어느덧 학교수업보다 강제노역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깝게는 연포, 선덕에 있는 일군비행장으로, 그리고 멀게는 원산(元山)의 해군기지에까지 끌려가 몇 주, 또는 달포 이상 호를 파야하는 노동을 강요당했다. 밤에는 적납고에 가마니를 간 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새우잠을 자던 생각이 난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 어린 우리들도 은연중 일본의 패망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어, 한편 희망도 가졌으나 날로 험악해지는 시국 앞에 과연 우리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몹시 불안하기도 했다. 이미 학병제 실시와 함께 징병연기제 폐지로 의과계를 제외한 문과, 이공과계의 대학들은 폐교되다시피 되었으므로 좌절 또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몸

과 마음이 겁없이 커가고 부풀어 가던 반항기의 10대 중반에 이른 우리들 중에는 차츰 반일인사를 노골적으로 내뽐는 경향이 짙어갔다. 그렇게 되니 군국주의 나팔을 불어대는 일인교사에게는 「똥무지」니 뭐니 하든 고약한 별명을 붙여 놀려주기 일쑤였고 또 서로 마음놓고 그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끼리 구름을 형성하는 경향이 일제 되었다.

당시 우리 구름에는 과학에 특출한 재능을 지닌 이재류(李在瑠)군이 있었다. 장래「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발명가가 되는 것이 꿈임을 입버릇처럼 뇌갈리던 재주꾼 재류군은 드디어 단독으로 단파 라디오를 만드는데 성공하였고 연합군의 방송을 청취하게끔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하여 그를 통하여 그와 친한 우리들 「김익남」(金翊南), 「전아진」(田振), 「부사장」(高景榮), 「해군소장」(張成節), 「화백」(崔斗勳), 「피남」(張成節), 「화백」(崔斗勳)은 이미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 그리고 중국에서는 김구 선생이 이끄는 임시정부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일군 패전

소식도 소상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방송 내용을 서로 주고 받던 우리들은 어느덧 단순한 친구 사이 이상으로 밀회(密會)가 찾아졌다. 모임 장소는 주로 우리집이 이용되었고, 멀리 않아도 가을이 모르는 봉기때를 위하여, 쇠불이가 강제(強迫)로 귀하던 당시였으므로, 가느다란 쇠파이프 같은 것을 보아도 혹시 권총 재료가 될지 몰라 땅속에 파묻곤 하였다. 물론 재류군의 제안에서였다.

그러던 어느날 누군가(일설에는 이웃)의 밀고였는지, 재류군은 그만 일경에 체포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들끼리 저이기 당황하였으며 곧 잡혀가는 것 같았고, 오직 믿는 바는 재류군의 입 하나였다. 이미 우리는 죽어도 입을 열지 않기로 맹세는 하였지만 사실 재류군의 입만 열었다면 우리들은 꿈쩍 못하고 체포 당하고 그 후 어떤 운명에게 처하게 되었는지 누구도 짐작 못할 일이다. 그러나 모진 일경의 고문에도 끝끝내 우리의 재류군은 약속을 지켜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상황을 회상해 보건대, 우리 화년 중에는 우리 그룹 외에도 비슷한 다른 세력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四학년이던 一九四四년부터 미군정찰기가 함흥 상공을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하얀 비행구름을 길게 내뿜으면서 만미터 이상의 고공을 유유히 비행하는 미군기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가슴 속으로 패재를 올리며 우러러 보았지만, 일본군이나 공습정보만 요란하게 되풀이 울려 놓을 뿐 거의 속수무책이어서 꼭 닭 쫓던 개 모양으로 그저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는 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근로봉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이를 안타까이 여기는 몇명 안되는 한국인 선생들의 마음도 표정으로 읽을 수 있었다. 다만 표현을 못할 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일도 기억난다. 추운날 새벽이었다. 그 날도 근로봉사를 떠나기 전 교정에서 조화가 있었다. 캄캄하여 열골이 잘 분간되지 않았다. 순서에 따라 선임인 한장이 선생님의 등단하셨다. 이때 올라오시는 품이 어찌 좀 자세가 흐트러진 것 같았다. 선생님은 경례를 받으신 후 대뜸 밑도 끝도 없이 「오마에라 잇따이 나니까, 즉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여 화를 내시는데 혀를 완연히 꼬부라진 발음이었다. 아

무런 잘못도 저지른 일이 없던 우리들은 그저 오들오들 떨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선생은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너희들」이란 우리 학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줄에서 우리를 마주보고 서있던 일인 선생님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너희 일본놈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이런 것들을 추운날 첫 새벽부터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는 울분은, 좋아하는 슬기음을 빌어 대갈일성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묵묵히 듣고 있었다. 당황한 일인 선생님들이 한선생님을 부추하는 척 하면서 끌어내리다시피 하였다. 지금 생각해 봐도 만약 다른 한인선생이 그랬다면 영락없이 체포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의 존재는 그야말로 함흥 전체의 존경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 감히 일경도 손대지 못하는 존경받은 위치에 계셨던 것이다.

그런 반 지우과 같은 상황에서 一九四六年三月, 五학년생과 함께 四년제로 쫓겨나다시피 졸업한 클라스가 바로 二十八회이다.

해방과 함께 일제 감옥에서 출옥한 재류군은 심한 영양실조와 피부병 등으로 거의 빈사상태였다. 이북 피퇴에 서는 그를 「영웅」시하여 「모스크바」 유학까지 권고하였으나 그는 끝내 물리치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행을 결행하고는 피난보따리를 든 채 수소문 끝에 서울의 우리집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우리집에 탈포 남짓 머물던 어느날 재류군은 이승만 박사의 연설을 직접 들어 보겠다고 서울 유동시장에 갔다 오더니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었다. 「난 그동안 여러 애국지사들의 연설을 직접 들어 봤지만 이박사의 연설내용에 제일 동감이 가」하면서 다음날로 곧 구방군 입대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두 그가 공대로 진학하여 위대한 과학자가 될 인물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그 저를 알 뿐이었다.

구방군의 입대한 재류군은 곧 특기를 인정받아 공군의 통신장교가 되어 김포 비행대에 배속되어 관사까지 배정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뜻밖의 六·二五를 맞아 김포 비행장의 수비대장을 맡고 있던 재류군

은 끝까지 비행장을 사수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권총을 쏘고 끈질긴 주위의 후퇴권유를 거부한 채 끝내 적탄에 쓰러지고 만 것이다. 정말 재류군다운 최후였다. 꽃다운 나이 二十五세에다 한 꿈을 안은 채 그는 끝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 동기 중에서 연회대를 거쳐 육군 장교로서 개성전투에서 산화한 김경운(金景潤)군과 함께 이재류(李在瑠)군은 六·二五 초기의 희생자들이다.

이북에서 좀 뒤늦게 월남한 崔斗勳군도 여러 청년단체에 관여하다가 뜻한 바 있어 신학교에 다니던 중 다시 세브란스의예과로 진학, 기독교생 위원장으로 활약 중 동란 중에 피납되었으니 우리 동기들도 다른 기 못지 않게 초기 희생자를 낳은 셈이다.

현재, 동창회지에 기록된 동기는 五十七, 그간 몇 작고 동기를 합하면 六〇여명이 월남한 셈이니 一八〇명 중 약 二三分의 一에 해당된다. 명단들을 훑어 볼 때마다 명석하던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연상케 한다. 일제 말기의 긴장기에 들다가 해방직전의 암흑기에 마치 철호의 망망대해를 헤매는

난과선과 같이 내일의 생명을 기약 못하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쫓겨나 다시 피 四년제로 졸업한 二十八회 일제 막내동아. 사실, 우리 중의 많은 급우들은 우수한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해방후의 피난생활, 그리고 六·二五의 고난으로 청춘의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경우가 많다. 아쉬운마음 동창회지를 뒤적일 때마다 느끼곤 한다.

그래도 함흥고보에 이은 남중의 전통은 어찌할 수 없음인지 五十七명중의 현직교수 六명을 포함한 교직자가 十四(五명)에 이르러 많은 편이고 의약계가 도합 一〇명 그 밖의 대부분의 공직에 봉사하다 지금은 이선으로 물러났으니 이 또한 다른 기와 유형이 비슷한 것 같다. 물론 큰 부자도 없고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없는 그저 「보통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전역시 전통을 답습한 민민이다.

이제 우리 일제 막내동아들도 졸업한 지 어언 四十二年 대부분이 환갑고개를 넘어서는 나이에 이르렀다. 매년 연말에는 한번씩 남한 각지에서 모여 소주의 힘을 빌어 소년

기의 추억에 흠뻑 젖어보기도 하고, 스무명 남짓한 재경 동기들은 몇 달에 한번씩 종로 Y M C A 뒷골목에서 선배가 경영하는 함흥방면집에 모여 회상에 차 있던 南中 소년기를 잃기 싫어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한다. 모교교정을 둘러싼 아카시아 나무들이 너무 그리워 그 이름도 (아카시아회)로 하고.

분명, 남중 二十八회중의 꽃중의 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체포되었거나, 조국수호에 목숨바침으로써 동창회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급우들을 회고하며 동창회지에 기록으로나마 남기고자 몇 자 적어 보았다.

별난 우리 二十八회

주 역 순 (第二八回)

우리 함남중학교 二十八회는 참으로 별난 회기다.

二十八회의 별난 이력은 입학시험 때부터 시작한다. 답안지는 있는데 문제지가 없는 소위 기끼도리(聽取)란 시험과목이 새로 생겼다. 시험관이 문장을 두번 읽어 주고 그 문장에 관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필답하는 형식의 시험이다. 일본본회의 생활화(和) 일본본회의(구어)(상용어를 한창 떠들어서 대단 시절이라 중학교 입학시험까지 이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덕천마부시대의 학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읽어준 문장이었는데 여러 개의 물음중에 기외에 답하는 것은 11내용에 제부를 붙인다면? 하는 문항 하나 뿐이다. 四十五년도 더 지난 오늘까지 잊지않은 까닭은 그 점답이 “나 기리메시(주먹밥)”라는 문항이 같기도 하고 그럴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장의 제부 붙이기와 주관식정답의 있다나, 객관식선택형답안의 무무출문제문도 문답부장관의 치맛바람에 한비백산쟁기때 말입니다. 불쌍한 우

리들 어머님에게는 치맛바람이 없었습니다. 치마래야 맥이 없는 “스·프(S·F)”가 고작이었고 몸빼였으니 바람을 일으킬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二十八회생의 三분지 一은 엄밀히 말해서 조건부 합격자였다. 합격자 발표 때엔 一一〇명 六〇명의 명단이 따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三분지 一이 요행으로 입학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왜냐 지금이나 변치않은 나리들의 적식 좋아하네에 연유된 것이다. 흥흥의 적어대야 죄상이 풀리는 나리들의 도장이 미처 찍히기 전에 합격자 발표일이 당도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六〇명인 정식으로 등급이 인가되면이라는 조건부였던 것이다. 입학식때에는 당연히 조건부가 없었고 一八〇명 전원의 강당에서 다모트리집에서나 실상인 긴 나무의자에 보호자와 동소하고 작은 키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입학축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다. 横田교장선생님, 선생님은 다래(縱)가 아

나라 요꼬(横)다의 성함에 충실하느라고 키는 크지 못 하였읍니다. 중화생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컨닝”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입학생 일동에게 교장 선생님은 물으셨다. 독서면에 조수이어서 당시의 성인잡지 인킹구(Kings), 히노데(日出), 고오단(講談) 등을 심심치 않게 읽었던 필자는 간단한 영어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이들 잡지는 한자에 일본 가나로 토를 달아주었으며 소설의 내용에 액센트를 주기 위해였음인지 간혹 해당하는 영어의 음을, 가령 //제2의 셋뿐(接吻)//엔 “세컨드 키스” “사랑의 고백”에 “프로포스”, “절호의 기회”엔 “찬스”하는 식으로 달아 주기도 했음으로 “컨닝”의 뜻은 알 수 없었다. 입학식 기억이 다모토리집 긴 의자와 “컨닝”뿐이라니, 어쨌든 우리 二十八회는 三개학급 정원의 시초가 되었으며 응원가의 건아 六〇〇이 건아 七〇〇, 건아 八〇〇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세기의 궤변 한마디, “태평양전쟁은 二十八회가 입학했음으로 일어났고 졸업했음으로 끝났다.”

우리가 입학한 해의 十二월 八일에 일본은 겐토 미·영에 세계공격을 감행한다. 二학기 고사를 치르다 말고 감독선생의 지시에 따라 시험지를 뒤집어 놓고 교실에 방충되는 일황의 선천포고척어를 머리를 숙인 채 들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보다 우선 고사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안도감으로 칩어는 저리가라였고 시험문제의 풀이를 머리 속에 그리던 어리석었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진다.

二十八회는 일제의 마지막 졸업생이라는 기록을 또 갖는다. 졸업에 앞서 단과청취사건등에 연루되어 삼십학년 二十七회 선배와 함께 二十八회는 경찰부 특고에 호출되는 등 시련을 겪는다. 그래서 졸업식에 인천소년형무소에 갇힌 몇몇 학우는 동참치 못한다. 경찰부 유치장 조사실에 불리어 야옆방에서 새어 나온 //이놈, 하와이의 이승만에 관한 이야기 한 일이 있지? // 중경의 임시정부며 김구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어? // 라는 금시초문인 해외사정에 눈을 떴던 기억, 그날 야스다라는 동족의 형사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도새어 나오는 그 말에 구타의 아픔이 기쁨으로 승화되

던 환희가 새삼스럽다. 간단히 들려온 목소리는 옆방에 서 매 맞으며 취조당하고 있는 주인공은 27회의 Y선배 임이 분명하였다. Y형은 인천소년형무소에서 八·一五를 맞이했지만 S대를 졸업하고 지금 서울에 건재하다. 이런 저런 목적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봄에 졸업했고 여름이 되더니 일제는 마침내 패망하였다. 우리들은 일단 해방의 환희 속에 빠진다. 궤변도 한마디. 二十八회를 겨우 一년 빨리 졸업시킬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一년 더 빨리 졸업시켰던들 해방이 一년 더 빨라졌을 것을, 소련이 대일전선에 나서기 전에 해방되었을 것을,三八선도 없고 六·二五도 없고 휴전선도 없고 이사가죽도 없는 새 나라가 되었을 것을.

우리 二十八회는 비록 三분지 一의 조건부 합격생이었지만 수재(?)의 집단이었다. 五년과정을 四년에 마치고 졸업하는 시초의 희기인 것이다. 그래서 二十七회와 二十八회의 五개학급이 함께 졸업한다. 전후적으로 졸업생은 二배로 늘어났지만 상파대학 문인 그대로니 입시경쟁이 예년의 二배로 심해진다. 입시경쟁 二배가 별 말 없이 통양된 당

시는 //이길 때까지 탐내지 않겠습니다//의 전쟁구호에 순치된 백성아닌 백성의 세월이었다. 전쟁이 막판이고 나라가 망하고 해방이 될 마당에 상급학교 입학이 무슨 대수냐는 체념의 세월이기도 하였다. 당시의 문교당국은 교육정책으로 상급학교의 입시제도를 대변혁하였다. 출신중학교에서 추천순번을 명기한 소견표와 함께 입시원서를 일괄 제출하면 상급학교에선 소견표를 참고하되 원칙적으로 추천순번에 따라 정원의 배수를 전행하고 이 배수에 대하여 간단한 필답고사를 치뤄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출신교별 합격자수는 과거 三년간의 평균 합격자수에 준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해의 우리들의 입시성적은 일차전형부터 참패였다. 성대예과의 경우 예년에 六, 七명 합격이었는데 배수를 뽑던 일차전형에 四명, 예년비 三분지 一도 못되었다. 졸업 전에 있었던 단과청취사건들이 원인이라고들 하였다. 관련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七회 선배의 성적이 더욱 부진(상기 성대예과의 일차합격자 四명 모두 二十八회생)했었던 점에 비추어 수상이 가난해석이었다.

八·一五후 모교는 새 교사로 옮겼으니 二十八회는 아카시아동산에서 졸업식을 치른 최후의 졸업생이기도 하다.

우리 二十八회는 일본식 이름으로 입학했다가 제 이름을 찾지 못한채 졸업한다. 가짜 이름으로 일관한 유일한 불명 예스러운 회기인 것이다. 一년 위인 二十七회는 우리 이름을 로 입학했다가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고 一년 아래인 一후八회는 일본식 이름으로 입학했지만 제 이름으로 환원된 후 졸업했다. 그래서 八·一五후 만나지 못한 동기들의 진짜 이름을 우리는 모른다. 이곳의 동료끼리 만나서 여기에 없는 동기생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의 아니게 일본식 가짜 이름으로 부를 수 밖에 없는 불행한 회기다. 소위 창씨개명, 우리 성(姓)과 이름(名)이지만 일본은 씨(氏)와 이름이다. 그러나 없는 씨(氏)를 새로 만들고 (創氏) 이왕이면 이름도 그에 어울리는 일본식으로 고쳐자(改名)는 것이지 결코 성을 갈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당시의 총독 미나마미·지로(南次郎) 일당의 이론이었다. 그래서 개성개명이 아니고 창씨개명이라고 강변했다. //성을 갈면 개자식// 하는 편이니 개성은 아니라고 예방

성을 쳤을 것이다. 본시 일본의 평민에겐 씨가 없는 사람이 많았고 개화기에 들어서서 이들에게 새로 씨를 갖게 하였다. 즉 시혜적인 창씨를 경험한바 있는 그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창씨로 시혜(施惠)했으니 병역의무로 보답하라는 억지로 우리들에게 징병제도를 강요하였다. 그때까지는 태능의 지원병훈련소에서 지원병을 훈련합네, 이인석(?)인가 하는 미봉하던 병력동원을 징병으로 해결하려 했다. 당시의 지원병훈련소 자리가 현재의 육군사관학교다. 왜 여기에 아직까지 우리의 육사가 있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구민학교 6학년일 때 이 창씨개명은 법은 아니라면서 강제로 이루어졌다. 입학원서에 창씨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입학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학년 출석부엔 일본인과 구별이 안되는 야마모토·사부로(山本三郎) 같은 이름과 씨는 그럴싸한데 이름은 그대로인 하세가와 슌타이(長谷川俊泰), 이름은 물론 그대로고 씨도 할 수 없이 만들었다는 식의 리노이예·다이쇼(李大家植) 같은 것이 공존하였다. 이 창씨의 고난기를 쉽게 넘길

벌써 二〇년도 넘었을까? 하루는 서울의 어느 은행대

합실에 앉아 화보를 뒤적이는 데 「잊어버린 고향」이라는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남(南) 선생들이다. // 남상호
 // (南相昊)는 // 난소오꼬 //에서 // 미나미·소오꼬 // 도
 남(南)을 일본발음의 음(音) 읽기에서 훈(訓) 읽기로
 하면 탈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성명을 빼앗자는 숨
 겨둔 그들의 본 뜻에서 보면 꽤 씩죄에 해당하겠지만 일본
 에도 한글자의 씨가 있고 더구나 주창자인 총독도 미나미
 (南)가 아닌가 우연치 않게 남선생들은 일본 종씨(?)의
 의덕을 본 셈이다. 아이노꼬 선생의 이명을 가진 쓰다선
 생의 영어시간이다. 출석부로 호명하시다가 // 긴조곤 // 하
 면서 의하해 한다. 창씨개명하지 않은 생도가 끼여있는 것
 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성중의 대성인 김(金)이 건
 재한 것이다. 외모가 동양하고 그 모양새가 뒤질새라 성격과

우리 萬歲橋

김 순 욱 (第二十九回)

저 무뚝뚝한 김근 왈 // 김조곤이 아닙니다. 곤·노부모
 도(金序根)입니다. // 그의 항의는 우렁차고도 당당하였
 었다. 김은 일본음이 // 긴 // 도 되지만 // 곤 // 도 되고 // 조
 곤 // 은 훈읽기로 // 노부모도 // 라는 것이다. 씩씩하던 김서
 근형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별나고 불행한 회기지만 우리二十八회는 복 받을 회기이
 기도 하다.二十八회의 주체는 바로二十八년생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회감은八十八년이 된다. 아아八十八년은 또 서울을
 림픽의 해! 그러나 서울을림픽은 우리들의 회감잔치이기
 도 하다. 전세계에서二十八회생의 회감을 축하하려 모여 드
 는 것은 아닌지? 어쨌건 우리는 복 받을 회기임이 분명
 하다.

표제아래에 반통산에서 내려다 보는 성천강과 만세교의 사진이 걸린 것을 보고 온몸의 피가 머리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고는 직원에게 이 사진을 떼어 가져도 좋으나고 청하여 집에 갖고 온 일이 있다.

우리 고향의 심불인 성천강과 만세교, 이름도 찬란하지 않은가 만세 만만세의 다리.

몇주 전에 어느 집에서 만세교 碑文과 詩가 적힌 책을 보고 동문들에게 알리고 싶어진 것이다.

처음에 만세교는 목조로 건설되고 역대 군왕들의 장수무장을 기원하는 뜻에서 태조가 명명하고 一九〇五年 로일 전쟁때 퇴각하는 로군이 방화, 소실되어 一九〇六年 일본 공병대가 다시 목조로 착공 一九〇八년에 준공 一九二八년의 대홍수로 유실된 후 시에서 총공사비 二七萬원으로 철근콘크리트로 개조 一九三〇년 十二月에 완공 五〇〇미터 길이에 五·四미터 넓이라고 되어 있다. 옛적 만세교 비가 있었는데 원 비문은 다음과 같다.

萬 歲 橋 碑 文

府城西樓俯城川江之橋曰萬歲萬歲何稱焉我聖祖肇興于咸亦嘗臨幸故以之頌禱江出太白劔山溱野三百里至橋流益盛東匯入海路自京國行十里歷橋距直二千里橋長數千步橫大江通大路成三勝而架木駕石淹毀秋設亦萬歲不贊之圖也始橋之材皆出於民按使李昌誼設庫儲財以償其費舊有短碑揭橋額今剝落通判李候廷恢刻之大石堅橋之東頭又其不轉之意也於戲江流哀儕路長在岡陵之祝興之無極府民願識其事故追于陰時己酉七月既望之

뜻을 풀이해 보니 다음과 같이 되었다.

성서루서쪽편에서 성천강 다리를 내려다 보며 외친다. 만세 만세,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태조가 함흥에서 일어난 제 이곳을 찾아, 강이 태백에서 시작하여 산과 들을 흘러 삼백리 만세교에 이르러 흐름이 풍성하고 동해로 들어감을 칭송하였음이라. 서울로 가는 길로 십리에 다리를

거쳐 인천리를 향하니 다리는 수천步의 길이에 넓이 또한
 커서 강을 넘는 큰길을 이루니 이곳 세가지 명승지의 하
 나를 이룬다. 다리를 지을제 목재와 돌을 쌓고 들의 추
 곡을 묻어야 했음은 만세를 외칠 공사는 아니었으나 民按
 使 이창의가 모든 자재와 비용을 마련했더라. 전에는 다
 릿목에 작은 비가 있었으나 이제는 너무 낮아 통판 이후
 정이 큰 들로 새로 지어 다리 동쪽편에 세워 오래 간직하
 려는 뜻임이라. 구슬피 흐르는 강 만세교를 지나는 그
 길 그리고 그 언덕들에 무궁함이 있이라. 부민들이 이
 옛일을 알기를 원하여 기유년 칠월 십육일에 이를 적는다.
 이 글을 누가 짓고 누가 휘호하였는지는 적혀있지 않고,
 작자미상이라는 단서가 붙은 萬歲橋詩가 실려 있다.

萬歲咸陽不霽虹 芳草落花烟雨裏
 雲擁羅公步步空 楊柳無枝夕照紅
 傷心離別年年路 風生列子冷冷過
 城川江上一條通 去牛來馬古今中

풀이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만세합양에 꺼지지 않은 무지개
 성천강 위에 한줄기 뗏내
 서생들 찬바람 맞으며 지나고
 벼슬아치 구름속을 허허히 걷는
 시푸른 화초 지는 꽃 사철내내
 허구한 세월에 오고간 牛馬들
 그리고 가슴아픈 이별들이 있었던
 그 길 벼들가지 사이로 석양의 붉네.
 이제는 옛날이 된 삼십여년 전 갈 수 없는 고향길을 꿈
 에서 헤메기를 십년이나 하였을까? 소학교 다니던 유군
 관사길, 중학교 다니던 그길, 정문앞, 어릴적 부터 뛰놀던
 반룡산의 길들, 그리고 만세교가 흰히 내려다 보이는 가파
 른 언덕길, 낙민루정자...: 심년의 넘어서니까 더 이상 꿈
 에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 비문과 만세교지를 대하니 불
 현듯 그 산천 그 길들이 흰히 눈앞에 되살아난다. 아아 우
 리의 만세교.

一九七四年 咸山誌編纂委員會에서 出版한 增補 咸山誌 第一
 編 原誌는 高大殿書의 咸山誌를 寫眞版으로 復寫한 것인데 그
 곳에 실려있는 萬歲橋碑文(九六面)은 이곳에 김순우氏가 서
 쓴 萬歲橋碑文과 약간 틀리는 곳이 있습니다.(編纂委員 白)

어린과 어린의

김재정 (第二十九回)

요 근래 환자들의 대화 중에 세월의 흐름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더우기 한 해가 지나면 연 말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四〇대 후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되풀이 하는 것을 듣는다. 한 해가 어느덧 꿈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 나도 동감이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사람은 나이를수록 세월의 흐름이 유수와 같다함을 더욱 느끼나 보다. 간혹 二〇대의 어린들이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을 듣는데 과연 그들의 세월의 흐름을 느껴서 인지 또는 그것이 사교적인 표현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나의 二〇대 시절은 六·二五사변으로 부모, 형제와의 이별이라는 슬픔과 고통속에서 세월의 흐름에 대하여 느껴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세포조직 CELL SURFACE RECEPTORS 에 관한 논문을 쓸 때 SENSORY RECEPTOR 에 관한 연구분야의 권위자인 소련의 Y. VINNIKOV 의 문헌을 참조 인용

하여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노어 공부를 시작하였다. 노어는 어린 시절 일제에서 배웠던 다음해에 일년 동안 대학 예과 과정에서 정식으로 배웠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하여야만 했다. 처음의 수개월은 예정대로 진행이 비교적 순조로워서 흥미도 나고 마음도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어린 시절과는 달라서 예정한 대로 진행되자 못하는 것이었다. 외국어를 독학자습하려면 중단함이 없이 매일 꾸준히 계속하여야만 되는 것인데도 자주 중단하여야 할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다. 二일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계속하면 三일전에 공부하던 부분을 복습하여야 한다. 一주일 동안 중단하면 二주일 전에 공부하던 부분을 다시 복습하여야만 진행이 된다. 다시 말하면 중단은 일본전진에서 이보 후퇴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단할수록 결국 제자리에서 돌고있는 격이 되고 만다.

흔히 사람들을 나의 들면 어린 시절과는 달라서 기억력
이 둔하고 흥미를 잃고 공부진행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말
한다. 공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중요원인으로 기
역력의 둔화를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아직은 없다. 해가
지남에 따라서 생겨난 주위환경의 변화가 중요원인이 된다
고 생각하고 있다. 二十五년전 어린 시절 의과대학 졸업 후
에 독일어 자습으로 서독유학시험을 받은 경험의 있는 관
계로 그때를 회상하고 본다. 그때에는 해외유학시험을 앞
두고 제한된 시일 내에 몇 권의 책을 완전히 습득하여야만
했다. 그때는 아이들도 없고 생활비에 대한 가장 (家長)
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없었다. 공부 한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독일유학하려면 독일어시험에 반드시
합격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이 다르다. 노어
시험에 합격되어야 할 일도 없고 노어공부를 반드시 하여
야만 할 이유도 없다. 반면에 가장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
서 하루 하루 하여야 할 여러가지 책임과 의무들이 앞에
놓여있다. 가령 지금 나이에 주위환경과 조건이 어린 시절
과 같다고 가정한다면 지금도 어린 시절과 다름없이 자습

으로 노어책 한편을 예정한 대로 수개월 내에 완전하
게 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겨대고 싶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면 으레히 이 해도 어느새
꿈같이 지나갔다 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 순식간에 지나가는 한 해를 생각한다면 하나,
둘, 셋 - 五〇까지는 순식간에 헤아릴 수 있는 짧은 기
간이기에 사람들은 나이 五〇세가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맘이 그대로 남아 있다함을 느끼게 된다. 어른이란 어
린이의 연장인 관계로 어른과 어린이는 비교적인 용어(用
語)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三〇대
는 一〇대의 어린이에 비하면 어른이지만 五〇대에 비하면
어린의 이고 五〇대의 어른도 七〇대에 비하면 어린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어른이란 나이에 든 어린이이다. 어린이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생존경쟁의 주위환경 속에서 오랜 경
험으로 이해성과 관대성과 인내성을 지니게 되면 어른이라
부르게 된다.
지금 나는 五〇대의 어른이노라고 三〇대 시절에 체험한
일들을 어린 시절의 일로 회상하듯이 七〇대가 되면 지금

생긴 일들을 五〇대의 어린 시절의 일들이라고 회상하게 되리라.

현 사회의 어린이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인지도 모르지만 소년은 듣기 쉽고(노인이 되기 쉽고) 학문은 이룩되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一寸의 光陰)도 등

한시 말고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내용을 한문 시간에 선생님을 따라서 소리 높여 외치던 어린 시절 (威南中學 時節)이 어제 일만 같이 생각된다.

一九八七年 四月 二日

거울

韓 鎮 慶 (第二十九回)

내가 개업하고 있는 병원에는 몇 개의 거울이 걸려 있다. 진찰실에는 왕년에 몸 담았던 대학의 피부과교실에서 개원을 축하하면서 보내준 것이 있고 대합실 일부 복도에는 피부과학회에서 보내준 것이 있다. 그 밖에 또 하나의 거울이 대합실에 걸려 있는데, 평소 내가 제일 아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중학생들이 병원건물 준공을 축

하하며 보내준 것이다. 그 거울은 환자 대합실의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걸려 있고 거기에는 「祝 發展 威南中學 校(威興高普) 第二十九回 同窓會」라고 쓰여져 있다.

十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八년 가까운 지겨운 셋방 살이 끝에 그 옆에 남은 건물을 한 채 구입한 후 나는 내 나름대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 시공업자를 독려해 가며 새

로이 지금의 건물을 지었던 것이다. 내가 일생을 두고 일할 터전을 내 스스로의 손으로 지어 보겠다는 집념같은 것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으리라.

흠흠단신 맨 주먹으로 三八선을 넘어 온 몸이 서울역의 동서를 잇는 제일 큰 도로의 하나인 新設洞로타리 근처 旺山路 길가에 크지는 않지만 아담한 자신의 병원건물을 완성시켰을 때의 기쁨이야말로 이 두 표현할 수 없을만큼 컸던터에 동창들이 걸어준 이 거울에 내 시선이 유달리 머무는 것은 어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거울이 대합실에 걸린 후 나는 이것을 보고들어오는 환자들로부터 종종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다.

「원장님은 고향이 이북이시군요. 저도 이북입니다」

「명절때가 되니 고향생각이 더욱 간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족들도 함께 넘어 오셨나요?」

「저 학교가 이북에서는 꽤 명문학교였다면서요?」

「저 학교가 함경도에서는 여기 경기같은 학교였다면서요?」

「저 학교야말로 진짜 명문학교네요. 아제는 들어간래야

갈 수 없는 학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나는 낮선 초면의 환자들한테서까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신향민의 설움을 얼마만큼이나마 위안받기도 하고 威南中學을 다닌 것에 대한 긍지같은 것을 새삼 느끼게도 되었다.

기실 나는 이남에 나와 군에 입대, 장교생활도 해 보았고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八道에서 모인 여러 의사들과도 같이 어울려 보았지만, 지방학교 출신들은 더욱 그랬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서울의 소위 一流학교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기초실력도 그저 그렇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일제말기 교사부족으로 유난히 合併수업도 많았고, 근로 봉사와 교련 그리고 日人교장 교사들의 그 길고 지긋지긋한 소위 「大東亞共榮圈의 지도자」를 강요하는 훈화 설교에 시달리면서도, 내가 이만큼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도 모교의 오랜 전통이 나에게 그 어떤 저력같은 것을 심어주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던가, 이제는 地緣

도學緣도 휴전선과 함께 다 끊기고 비빌래야 비빌데도 없
는 외톨이 인생이 됐으니 굶이 굶이 흐르는 城川江을 끼고
펼쳐진 田園의 고장 내 고향 州北산천과 盤龍山 기슭 울

창한 벗꽃나무와 아카시아 나무에 둘러싸인 古色蒼然한
모교의 아득한 影像을 나는 오늘날 이 겨울속에 아련하게
投影해 보는 것이다.

愚公의 統一祈願

朴 定 仁 (第三十回)

中國地圖를 보면、河北省과 山西省 사이에 太行山脈이
남북으로 놓여 省界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옛
날에는 이 太行山脈이 河北省 중앙에서 남쪽으로 河南省까
지 뻗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太行山脈은 본
래의 위치에서 서쪽으로 옮겨진 셈이다. 이 太行山脈이 어
떻게 해서 옮겨졌을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故事가
있다.

太行山이 河北省 중앙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던 옛날, 이
산의 북쪽 어느 마을에 愚公이란 나이 아흔살에 가까운
노인이 살았다. 愚公은 그의 집앞에 큰 산이 놓여 있어

나들이를 할 때면 멀리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였다. 愚公은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산을 허물
어버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저 太行山을 허물어 없
애버리자.” 하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동원하여 산의 흙
을 퍼담아 멀리 東海에 버리는 산 허물기 作業을 시
작하였다.

그러자, 이웃의 어떤 사람이 “자네는 죽을 날도 얼마 남
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산을 평지로 만든단 말인가?” 하
고 빈정거렸다. 愚公은 태연히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
고, 내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하면 될것이 아니냐?”
子子孫孫계

속해서 산을 허물어 낸다면 언젠가는 저 산도 평지가 될 날
이 올 걸세.” 하고 대답하였다.

太行山の 山神靈이 이 말을 듣고, 愚公이 산을 허물어 내
는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愚公의 자손들이 언젠가는
산을 허물어 평지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겁을 먹게 되었다.
山神靈은 하늘의 玉皇上帝에게, 人間이 太行山을 없애려고
한다, 고 아뢰고, 산을 구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玉皇
上帝는 太行山을 서쪽의 山西省과의 경계지역으로 옮겨 놓
았다.

이것이 中國古典 「列子」의 湯問篇, 에 나오는 「愚
公移山」의 故事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겨 놓았
다, 는 이 故事는, 至誠이면 感天, 이라는 것을 뜻해 주
기도 하고, 人間이 意志만 가진다면 무슨 일든지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다. 때문에, 人間の 힘으
로는 不可能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움직여 奇蹟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愚公移山」이 가능성을 이스라엘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인들이야말로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해 愚公과 같은 意志를 가지고 努力했던 것이며, 그럼으
로써 그들은 마침내 잃었던 나라를 다시 세웠던 것이다.

近者에 統一問題에 대한 論爭이 있는바 있다. 나는 政治
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平生의 信條로 삼고 있으나, 이
統一問題만을 분명한 線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나의
所信이기도 하다. 南北統一에 대한 나의 見解를 結論 부터
말한다면, 南北統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되, 自由民主
主義의 확고한 基礎위에서 우리가 主導的인 역할을 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북녘에 故
鄉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믿는다.
북녘땅에 故鄉을 두고 越南한 以北五道 출신은, 八·一五
解放직후 이른바 “解放軍”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고향을
짓밟고 다니면서 갖은 蠻行을 다 저지른 소련軍과 北傀徒黨
의 實相을 너무나 확연히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血氣로 그러한 蠻行을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
어, 一九四六年三月十三日, 級友(三〇期)들과 함께 舊
起하여 威興學生義學의 隊列에 참여하였다. 그 후, 고향을
등지고 越南하여, 共產徒輩를 몰아내고 내 고향을 다시 찾

졌다는一念으로軍門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고향을 다
시 찾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은채 半平生을 軍門에서
보내고, 끝내 고향을 다시 찾지 못한 悔恨을 안고 軍門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고향을 다시 찾겠다는 생각은 잃
지 않고 있다. 비록 軍門을 떠나 있지만, 共產徒輩들을
무찌르고 내 고향을 다시 찾겠다는 意志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도 나는 내 고향을 찾는
北進의 隊列에 앞장을 서리라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統一이 不可能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唾棄
한다. 또한, 어떻게 되었든 統一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
람도 唾棄한다. 統一이 不可能하다고 보는 사람은 分斷의
現實에 安住하려는 敗北主義者들이며, 어떠한 方法으로도
統一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生存權을 度外
視하는 위험천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共產徒輩를 우리
손으로 무절려 없애고, 우리 손으로 고향을 되찾는 그리
한 統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야 하는 것이다.

나는 白骨師團長이었던 一九七二年 一〇월 二十二일에 漢
灘江 입구 休戰線 南方限界線 가까운 곳에 國土統一祈願塔
을 建立한 바 있다. 白骨師團(제3사단)은 一九五〇년
一〇월 一일 國軍이三八線을 돌파하여 北進했을 때, 咸鏡
南道를 收復한 사단이다. 나는 내 고향 咸鏡道와 緣故가
있는 이 白骨師團을 지휘하면서 더 한층 강렬하게 統一의
意志를 불태우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一九七二年 六月 十七일에
일제 白骨師團과 咸鏡南道 道民會와 姊妹結緣을 맺고, 咸
鏡道를 수복한 白骨師團의 武勳을 기리면서 北進統一의 意
志를 가다듬기 위해 國土統一祈願塔을 사단지역에 건립했
던 것이다. 나는 國土統一祈願塔을 건립하면서 塔을 동북
방향으로 세워 母校 옆의 公會堂(咸興市民會館)을 향하
게 하였다. 내 고향을 수복하겠다는 念願과 意志를 쏟아
부어, 白骨師團이 또 한번 咸鏡道를 收復해 주기를 期待한
것이다. 國土統一祈願塔이 건립된 그 이듬해 一九七三年
仲秋節(九월 一八일)에 첫번째로 咸南道民의 望鄕祭가 統
一祈願塔에서 거행되었으며, 그 후로 매년 仲秋節에 道民

의 望郷祭가 그곳에서 올려지고 있다.

나는 國土統一祈願塔에서 望郷祭를 올리는 鄉友들의 統一意志가 塔앞에 焚香하는 향을처럼 꺼지지 않고 피어날 것을 기대한다.

分斷四〇년을 되돌아 볼 때, 統一이 쉽사리 실현되지 않을 것임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統一을 향한 熱情과 意志가 더욱 굳건히 가다듬어지고 또 줄기차게 이어가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나는 나의 統一意志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 내 외 아들을 내 대신 軍門에 投身시켰다. 내 아들을 통해서 고향을 찾

解放 前後의 南中生活

우리 三十一回、一八〇名은 生徒控室이란 標札이 붙은 講堂에서 一九四四年 四月 五日 入學式을 가졌다. 三個 學級으로 나뉘어져 校庭의 東南端에 位置한 單層建物에서 一

는 統一의 꿈을 이루어 보려는 것이다. 내 아들이 統一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손자에게 그 꿈을 이어 받게 할 것이다.

或者는 나에게 “愚公移山の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愚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人間の 意志를 믿는다. 子孫孫 統一意志를 계승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 질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統一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愚公(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金明哲 (第三十一回)

學年을 지냈다. 그 무렵던 萬年少尉 白井教官의 令息인 紅一點(?)으로 우리 學年에 있었는데 어질고 착하여 우리 모두와 스스럼없이 잘 어울렸다. 上級生들은 中庭을 걷

二層建物에 있었고, 五學年(二十七回)만 甲·乙의 二개 學級이었을뿐, 그 아래 學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甲·乙·丙의 三개 學級이었다. 四·五年生들은 勤勞動員으로 學校를 가끔 비웠다.

三平들에서의 모내기, 校庭을 울창하게 둘러싼 아카시아의 伐採(空襲의 目標物이 된다는 理由로) 등의 所謂 勤勞 奉仕를 가끔 하였으나, 그래도 工夫는 제대로 한 셈이었다. 津田, 佐護의 두 先生에게서 배운 英語가 바탕이 되어 우 리 同期 一〇餘名은 六·二五 動亂時 通譯將校로 服務할 수가 있었다.

校庭朝會 때의 軍人勅諭暗誦、講堂朝會時的 禱(미소기)、 先生 不足으로 因한 大教室(三個學級)과 中教室(二個學級)에서의 合併授業 等이 생각나는데, 特히 講堂朝會에서 三宅右祐校長이 訓話할 때 上級生들이 一齊히 //음! // 하고 입을 담은 채 소리를 내면 校長은 아무 말 없이 애기를 中斷하였다가 그 소리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訓話를 계속하던 일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봄과 가을에 上級生들이 점심時間에 그 넓은 運動場의

이 구석, 저 구석에 三·三、五·五 모여서 冊을 보든가: 얘기를 나누던 光景은 구석에서 장난에 정신이 없던 우리 一年生에게 아주 印象的이었다. 우리의 入學 전해에 一高、三高等 日本의 有數高校와 城大豫科等 一流上級學校에 많이 進學했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되었다.

여름의 開校記念日(六月十四日)에 있었던 會陽里까지의 全校生 마린톤, 西湖津에서 가졌던 水泳講習과 돌아올 때 本官에서 만났던 B 二九의 空襲, 가을의 年例行事인 教練查閱에서 上級生들의 不隱思想(?) 때문에 // 概ね可なるを認む//라던 根岸大佐(朝鮮第四三部隊長)의 講評도 생각난다. 겨울에 陸士에 合格한 五年生을 新興里 모래벌판에 새로 지은 威興驛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한 上級生이 本校生은 高等學校에 가지 陸士같은 덴 가지않으 나 지금은 戰時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일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一九四五年 三月에 四·五年生들(二十七回·二十八回)이 함께 卒業하였고 우리는 二學年이 되었다. 新入生(三十二回)、二四〇名이 들어와 一、二、三、四組로 나뉘니 우

리와 上級學年들도 甲、乙、丙이라고 부르던 組名을 一、二、三으로 바꿨다. 教室이 가운데의 二層建物로 옮겨졌다. 三宅 校長이 退任하고 平壤第三公立中學校長으로 있던 宇野勇彥이 새 校長으로 赴任하였다.

三、四學年生들은 所謂 學徒動員으로 興南工場으로 갔고 우리는 솔부리 캐기, 마초베기, 등으로 끌려다녔다. 教科書는 받았으나 工夫는 하질 못했다. 그래도 岩波文庫, 新潮社의 世界文學全集等, 어른스러운 冊을 읽는 級友들이 있었다. 學校에는 中國의 桂林에서 왔다고 하는 日軍이 駐屯하였고, 그後 곧 解放이 되었다. 解放後 처음에는 威興人民中學校, 그리고 “人民”이란 두 글자를 뺀 威興中學校로 校名이 바뀌우더니 校舍를 道人民委員會에게 빼앗기고 威

興高女자로 쫓겨났다. 解放되던 해의 소련革命記念日

(十一月七日)에 있었던 市街行進 때 全校生이 赤旗를 찢어버려 學校에 休校令이 내렸고, 다음 해에 三·一三事件이 일어났다. 韓恂鉉 校長이 他意로 떠나실 때 우리 모두는 울어버렸다. 威興高女講堂의 마루바닥에 떨어진 물이 午後의 햇빛을 받아 유난히도 반짝이던 것이 생각난다. 新任校長의 就任式에서 우리는 先輩들에게서 배운 “음 1 ”으로 抵抗하였다. 많은 級友들이 南으로 갔고 그 자리들은 編入生들이 메웠다.

一九四七年 七月에 三〇회가 四學年, 우리 三十一회가 三學年으로 卒業하고 威興中學校가 없어지니, 그나마 命脈을 이어오던 威興高普, 威南中學의 傳統은 영영 이世上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파라과이」를 거쳐 호주에 定着 나의 移民 手記

韓 碩 愚 (第三十二回)

一九七五年 五月 八日 가족을 데리고 김포공항을 출발

하여 파라과이로 移民의 길에 올랐다. 南美의 내륙에 있는

파라과이에 가는 길은 현재의 교통수단으로도 쉽지 않았다.

우선 하와이를 거쳐서 로스엔젤리스에서 一泊, 그곳에서

남미의 비행기를 타고 페루의 수도 「리마」에, 다음은 다

시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볼 수 없는 프로펠라機를 타고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市에 도착할 때까지는 마치 관

광기분이었고 처음 타는 비행기여행도 즐길 수가 있었다.

서울을 떠날 때의 나의 移民자금은 모두 합하여 七千一〇

〇弗인데 비행기표를 제한 돈으로 東대문 南대문 시장에

서 衣類 즉 스웨터나 內衣같은 파라과이에서 쉽게 팔 수

있는 물건을 샀다. 배로 부친 물건을 제하고 우리의 여섯

식구가 수하물로 가지고 떠난 물건을 모두 十二 보따리를

아순시온 비행장에서 통관시키는데 五五〇弗이라는 우리에

게는 巨額의 돈을 지불하였다.

처음 도착하여서는 그곳의 우리 僑胞들의 신세를 많이

졌다. 우리가 있는 사이에 그들의 인심은 많이 변하였는데

그것은 아래에 다시 쓰기로 하겠다. 나는 원래 파라과이移

민을 계획한 것은 나의 동서 金允築이가 그곳에서 製材所

를 경영함으로써 그를 의지하고 갔는데 그의 의견을 따라 우

선 산에서 原木를 사서 제재소에 팔던가 또는 그것을 운반

하는 운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립된 미국

제 「닷지」트럭 一대를 샀다. 처음은 목재의 七〇프로이

상을 내는 「까까수」라는 곳으로 갔다. 그곳은 정말 원목

이 무진장으로 나오는 위대한 장들이었다. 제일 좋은 「세

드라」 「라파조」 「이라보망」같은 나무가 얼마든지 있

는데 파라과이는 이들 목재, 綿, 大豆, 옥수수, 코코아, 설

탕들을 수출하는 農業국이기도 하다. 이곳의 八월은 겨

을인데 나는 金氏라는 고향사람과 같이 처음으로 트럭을 몰고 山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네 시골에 비할수 없을 만큼 뒤떨어진 곳이었다. 처음은 그럴 저력 가족과 떨어진 외딴 생활의 괴로움이 있었으나 겨우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입만 있었다.

그러나 十一月말 경부터 그곳의 길고 긴 여름이 시작되는데 소나비는 매일 오고 昆虫에 시달리고 三十三도 내지 四〇도된 기후의 이 외딴 나라의 開拓者가 된 나의 팔자를 생각하니 나의 운명의 기구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생활은 고됐다.

한번은 金氏와 같이 브라질 국경을 끼고 一〇〇km나 되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알도빠나나」라는 큰 강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존」강의 줄기의 한 부분이 브라질大陸을 횡단하여 흐르는 남미의 生命線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이다. 우리는 권총을 차고 갔는데 무인지경인 그곳에는 그런 武器가 있어야 되었다. 어느 原住民이 간단한 점심을 주었는데 양담배 두박을 주었다. 선물리 현금을 주머니에 보이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과라과이는 독일계인 「스트로스넬」이라는 사람이 三〇여년 전에 쿠데타로 執權하였는데 現政權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한 모든 일이 자유로워 그 나라의 환율이 안정되어 남미에서 제일 안정된 경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나는 이곳의 고된 일을 언제까지 하나 내가 왜 이 막노동을 큰 돈도 못벌고 하나 하고 밤잠을 못이루는 일이 한두번 아니었다. 이곳에 자세히 쓸 수 없으나 나의 一年간의 나무장사는 절망과 초조한 심정으로 고생의 연속이었다.

나무 장사를 접어치고 그러나 다른 별다른 기술이 없는 나는 역시 運輸業을 계속하여 어느 發電시설을 하는 공사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과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의 「알도빠나나」강을 막아 세계에 제일 가는 一二〇〇만kw를 발전할 수 있는 某將軍이 착수한 공사에서 일을 하였다. 돌산에서 돌을 운반하는 일같은 것인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속인수요 不正투성으로 우리의 노력을 착취하고 있었다. 우리의 作業回數를 속이고 우리에게만 일부러 우란비를 적게 책정하고 결과적으로 나의 몸이 쇠약하여

가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헛소리가 날 정도로 지쳐 버렸다. 나는 트럭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되었다.

「아순시온」에 돌아와서 새로운 일을 할 작정으로 호텔業을 시작한 鄭성일이라는 사람과 상의하였다. 「아순시온」에서 「코론」이라는 지구에 상점을 낼 수 있는 건물을 구하여 一九七七年 四월에 우선 酒類「리코아」와 담배를 팔 수 있는 상점을 내었다. 때는 마침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등지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때여서 이 장사는 의외로 처음부터 잘 되어 商店 이름도 스키·세븐(777)이라고 지었다. 술·담배 외에 더이윤이 많은 香水, 玩具, 保溫병, 목걸이, 반지등도 파는 선물가게로 변모시켰다.

장사는 의외로 잘되어 점원도 二명을 채용하고 차차 都賣·小賣도 겸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상점 위치가 「아순시온」市에서 제일가는 곳으로 나의 장사 스타일의 의외로 히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나의 가게 소문이 僑胞사회에 알려지자 계를 하

고 또는 빛을 내어 二년반 쯤 되니 나의 장사를 모방하여 술과 선물가게를 낸 한국사람이 六〇군데가 되고 이러 한 상황은 곧 과라과이 사람간에 소문으로 퍼지고 점차 本土의 비위에 거슬리고 반감을 사기 시작하였다. 혹 중국 사람이나 日本사람을 보고도 한국사람으로 잘못 알고 코리아／ 코리아／ 라고 부르고 어떤 자는 노골적으로 코리아는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원래 우리 교포는 農業이민으로 왔는데 장사로 돈을 벌고 어떤 자는 맨스홀에서 춤추러 다니는 것을 업으로 삼고 本土인에게 나쁘게 소문이 났다.

우리와 달리 日本移民들은 약 七〇년 전에 와서 지금은 二世, 三世들이 대부분인데 역시 일본이 국력을 배경으로 우주무선중계를 하여 주는 등 여러가지 국가적인 차원에 원조하여 그곳 사람들은 日本사람들은 고마운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포들의 경쟁때문에 우리의 장사도 예전처럼 이윤이 많지 않았음으로 우리는 교포사회에도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韓人商人組合을 만들고 林錫濟씨가 회장

에 내가 부회장이 되어 물가를 통제하고 本土人과 같이 하루 몇 시간까지 土요일의 오후와 日요일 오후는 휴업하는 등 自制하는 운동을 벌려 그런대로 일어나마 효과를 내어 우리의 회원도 八〇가구로 늘었으나 그것도 오래 가지 않고 계급에 의존하여 장사하다가 利子 元金を 갚지 않고 出血 경쟁을 하고 일부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좋은 대신에 反面에 유감스러운 일도 많이 생겨 어떤 자는 교포의 돈 三〇만불을 쟁겨 도망치는 일도 생기는 등 내가 처음에 본 후한 인심은 찾기 힘들게 되었다.

나는 이런 아순시온의 사태의 진전을 보다가 一九八一年二月 다시 만 나라로 移民가기로 하고 우리의 상점은 만 사람에게 인계하였다. 여러가지 곡절은 많았으나 우리는

어린 것들을 먼저 한국에 보내고 미국에 가서 그곳 사정도 보고 결국 지금 있는 이곳 「오스트레일리아」에 왔다. 이 이야기는 또 긴 이야기나 우리는 비교적 운이 좋아서 이곳 정부가 이른바 白濠주위를 버리고 새로이 아시아 사람도 받게 되는 첫번 케이스로 事業移民으로 이곳 永住權을 받고 우리의 자식들은 이곳 大學에서 거의 돈 안들이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威南中學의 막내동으로 三八선을 넘어서 남한에 올때의 나의 모습을 들이켜 보면 나는 어느 정도 새 人生을 시작 한 셈이다.

그래도 못잊는 것은 저 盤龍山과 城川江 그리고 나의 동문 여러분이다. 부디 여러분 안녕히!

六·二五動亂回顧

“宿命的五分”

金 東 一 (第三十二回)

경동의一九五〇年 六月 二十三日 平壤의 거리는 平素와 다름없는(아무도 눈치 채지 못한)고요한 날이었고 우리 大學(平壤音大)年中 定例行事인 卒業 演奏會가 平壤 國立극장에서 三日間の 幕을 올리는 때였다.(當時 以北은 九月이 入學이고 六月이 卒業인)

初日인 二十三日 晝間公演을 無事히 끝내고 夜間公演에 임 하였을때 아무런 通告도 없이 우리 全校生 出演者의 入場 檢査이 實施되었다. 영문도 모른채 檢문을 當하고 公演場에 入場 하였을때야 비로서 알게 된것은 이 公演이 金日成 一行의 초청 特別公演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 것이다.

演奏會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 그런대로 進行되어 마지막 날인 六月二十五日의 三日째 公演이었다.

午前十一時에서 午後一時 五回 公演을 無事히 마치고 公演場을 떠나 거리에 나서고 보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속

에 거리 거리마다 장치된 大型 스피커에선 “國防軍이 오늘 새벽 미명에三八線 全城을 北침 감행하여我三千八百名대와 대치 交戰中”이란 報導가 계속 되풀이 放送되고 있었으며 오가는 市民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져 있었다.

심상치 않은 날이었으며 全 報導기관은 戰鬪報導와 一色이었고 戰時體制들입의 一元化 였었다. 全 사업체는 말 할 나귀없고 各 級學校에도 夏季放學을 全面取消하고 戰時體制下의 待期令이 下達되어 非常動員 體制를 갖추었으나 UN軍의 參戰으로 連日 계속되는 공습에 當局의 궁여지책으로 일단 희생을 最少化 하기위해 地方學生의 귀향分散을 示達하였다.

父母님의 相面도 이루지 못한채 죽으리라 믿었던 心情에 핏불이 불불게 된 계기가 되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 총으로 돌리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황급히 짐을 챙겨 여행증을 발부받아 귀향길을 재촉하여 平壤驛으로 向했으나 大同橋는 이미 通行不能이라 도선으로 도강後 五分後에 다시 공습을 받았다. 오! 주여 이 말 외에 또 뭘 생각하겠습니까? 別故없이 무사히驛에 도착 羅津行 기차에 몸을 싣고 지옥에서 탈출하는 기분으로 흥분에 젖어 있을 무렵 또 다시 美空軍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多幸히도 民間 목표물의 공습은 단행되지 않았기에 기차는 힘차게 前進하여 翌日 아침 내고향 萬歲橋와 平壤산이 선명히 바라보이는 城川江 철교를 통과하여 威興驛에 無事히 到着하였다. 이제 다시 못 오리라던 故郷 땅을 밟으며, 곧 일싸 안아줄 부모님의 얼굴을 그리며 발자욱 옮기는 순간 요란한 공습경보가 울리고 B二九세薑

가 上空에서 모습을 나타내더니 광 광하는 폭음이 온 市內를 진동 시켰다. (알고보니 이것이 威興의 첫번째 공습이라고 하였음) 폭격 결과는 막 五分前에 통과하였던 철교의 폭과였었다.

만약 五分만 지연되어 그 철교위를 달렸다면 나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도선으로 大同江을 도강中 폭격當하였다면 어찌 되었을까?

平生 잊혀지지 않는 숙명적인 五分:

이제 간절한 소망은 이 모습 다하기전 五分동안 만이라 도내 고향 山川을 다시 볼수 있는 그날이 오려는지?

任員吳期幹事名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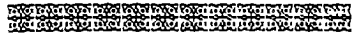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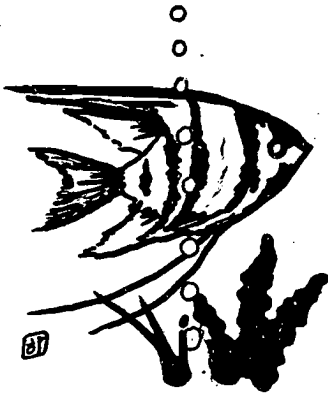
任員 및 期幹事名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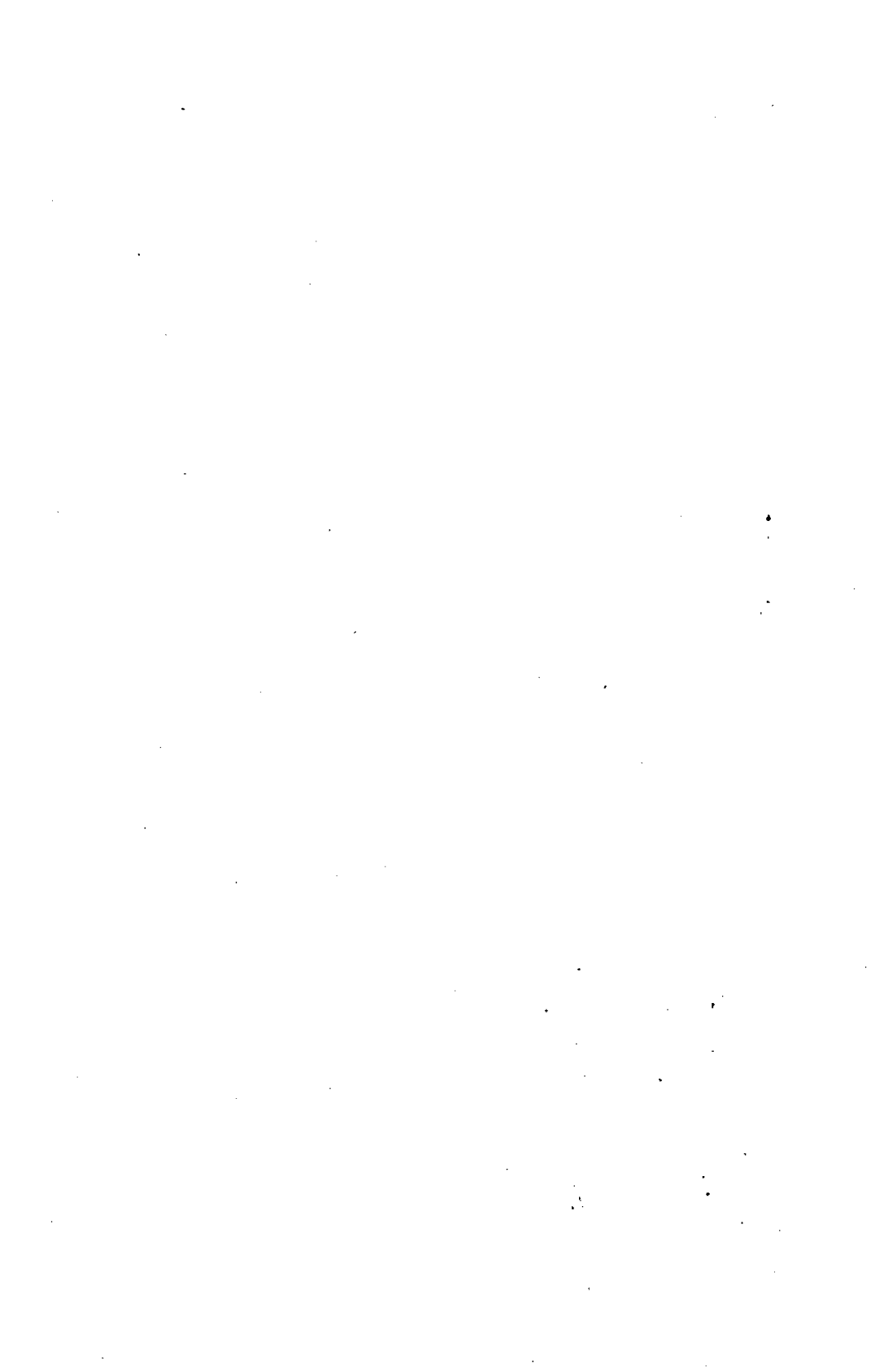
任員區分	回數	姓名	電話		住
			自宅	職場	
名譽會長	一	李東準	4 2 3 1 1 6 3 0		江東區 蠶室 5 洞 住公 A P T 5 1 8 棟 8 0 6 號
顧問	十六	金連珪	4 7 3 1 2 3 4 2		江東區 明逸洞 5 4 高德漢陽 A P T 1 棟 8 0 6 號
"	五	姜洙楠	4 8 2 1 3 7 7 3		江東區 遁村洞 住公 A P T 4 2 0 棟 7 0 4 號
會長	九	金載元	7 8 2 1 2 1 3 8		永登浦區 汝矣島洞 示範 A P T 1 8 棟 9 3 號
副會長	二十二	趙在衡	8 2 8 1 2 0 5 9	2 6 9 1 1 6 3 5	銅雀區 上道 1 洞 7 1 2 2
"	二十七	元章煥	9 6 6 1 7 8 2 9		東大門區 典農洞 5 9 7 1 2 6
"	二十八	趙東喆	2 3 3 1 6 2 1 1	2 6 6 1 6 4 1 3	城東區 玉水洞 4 5 1 1 1 3 號 A P T 3 棟 3 0 5 號
監查	八	朱洛璋	3 7 3 1 6 0 9 1		西大門區 弘恩洞 2 6 5 1 2 1 5
總務	三〇	朴溶夏	9 8 8 1 4 7 0 0	9 8 0 1 3 1 0 0	道峰區 弥阿 5 洞 4 8 2 1 8
副總務	三十一	金泰	9 9 3 1 8 7 5 8	8 7 7 1 0 1 3 1	道峰區 水踰 4 洞 5 7 6
幹事	十	李東沂	5 3 2 1 4 7 9 0	2 9 0 0 4	江南區 方背洞 1 9 1 3
"	十一	朴忠鎭	2 5 3 1 6 6 2 7	2 3 4 1 5 4 2 7	中區 新堂 3 洞 3 7 3 1 3
"	十三	蔡永福	6 9 4 1 4 1 4 4		江西區 木洞 5 0 1 號 住公 A P T 1 0 棟 2 0 1 號

幹事													任員區分		
三〇	二十九	二十七	二十六	二十五	二十四	二十三	二十二	二十一	二〇	十九	十八	十七	十五	十四	回数
李鎬植	鄭哲周	尹元基	韓鼎燮	韓承五	朴聖熙	宋基澈	申泰燦	元勳基	金明植	朱槿源	韓翊洙	金漢范	蔡奎燦	廉禮寬	姓名
92412144	58310094	44618992	36215824	90212309	55617196	54210022	48511421	35518792	1034413776	76212320	91413283	73712080	38915489	47812186	自宅
84317667	27410928	556112898	79710581	44510061	98511041	73519095		63313507	53219155	27319350					職場
城北區 敦岩洞 6061738	江南區 方背2洞10811 方背三益APT3棟606號	城東區 中谷洞 259123	西大門區 北阿峴洞 189142	道峰區 水躡5洞4121140	江南區 瑞草洞2011 三益APT2棟908號	江南區 清潭洞134 三益APT1棟601號	江東區 城內洞 396	恩平區 龜山洞21210131	安養市 冠陽洞 現代APT3棟804號	城北區 城北洞 97128	城北區 貞陵3洞 69213	鍾路區 紅把洞 1911	恩平區 津寬內洞 299174	江東區 風納洞 257110	住所

<p>幹事 //</p>	<p>任員區分</p>
<p>三十三</p>	<p>回數 三十二</p>
<p>金基元</p>	<p>姓名 金東一</p>
<p>76219698</p>	<p>住宅 自 電 91911087</p>
<p>26619401</p>	<p>職場 職 場 91412321</p>
<p>鍾路區 東崇洞 市民 APT 13棟 103號</p>	<p>住所 城北區 貞陵 2洞 20016</p>

同窓會員名簿





同窓會員名簿

1 回 (舊制)

李東準 134 江東區 蠶室5洞 住公APT

518棟 806號 ☎42311630

5 回 (舊制)

吳正根 120 西大門區 阿峴洞

11287 ☎72311547

2 回 (舊制)

韓泰然 150 江西區 禾谷洞 350

102 天道教中央總部宣道師 ☎60318600

李廷浩

5 回 (新制)

金桂淑 135 江南區 論峴洞

254134 ☎54512849

3 回 (舊制)

李鍾箕 135 江南區 押鷗亭洞 現代APT

72棟 906號 ☎56711189

6 回 (舊制)

金楨龜 110 鍾路區 昌信2洞 6401

249

4 回 (舊制)

金載鼎 120 西大門區 弘濟洞 156176

☎72412314

6 回 (新制)

姜洙楠

尹範模

金聲遠 170 水原市 西屯洞 151

☎(0331)614667

李鳳寅 15020

江西區 禾谷洞 46116

8回 1501710

富川市春衣洞 217140

東和技術團 代表理事

金仁燮 13486

江東區文井洞可樂谷斗APT7棟804號

李鍾奎

在美

☎ 26517228

金龍涉

☎ 65410057

朱源 135

江南區 論峴洞 151

金鍾律 122

恩平區 北加佐洞 9317

☎ 56617310

朴在極 130640

楊平郡 江下面 成德里 養蜂業 ☎ 37211733

7回(舊制)

林璧榮 603

忠武市 中央洞

李經濟

趙啓聖 300

大田市 銀杏洞 72 ☎ (042)

趙永星

西大門區 弘恩洞 2651215

蔡洙崗 公州市 前教育監

朱洛璋 122

☎ 37316091

7回(新制)

姜錫福 110

鍾路區 樓下洞 236

池鏞夏

在美 Spellman House

☎ 73714342

金世偉 133

城東區 杏堂洞 1281155

馬鍾國

Apt. 316, 4711 Berwyn House R.d. College Park Md. 20740 USA.

☎ 75219793

☎ 25313319

170 60 King James Way Londonderry tower 520

Gaithersburg, Md. 20877

全永商 110

鍾路區 新營洞 214129
 α그림물감製造會社 33521028893

黃起然

在美

12 回

李升圭 150

永登浦區 汝矣島洞 11989
 三扶APT9棟 1303號
 서울大學農大名譽教授 78215167

金廷鶴

文希樂

崔弼憲

13 回

金峻宋 110

鍾路區 母岳洞 聯立住宅 7棟
 21號 73019010

金鼎鉉 122

恩平區 葛峴洞 47214
 33881163

李大林 140

龍山區 厚岩洞 35217
 75418525

蔡永福 10520

李英植

黃東駿

14 回

廉禮寬 134

安鎔彪 122

俞孝植

李秉植

黃德駿

金熙春

15 回

1034

江南區 押鷗亭洞 現代APT
 81洞 705號 54419681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金信熙 140

龍山區 西界洞 53의20
 71417939

金基稷

114-14 38AVE, 4C FLUSHING, N.Y.
 11354 U.S.A

江西區 木洞 501
 壬子APT 41144棟

江東區 風納洞 257110
 47812186
 恩平區 礪磻洞 8212
 38516039

16
回

金永燮 在日本
姜穩求 1 05 20 江西區 鹽倉洞 2 4 2 1 1 69 4 1 5 6 1 1

金子勳 63-11 QUEENS BLVD, #C-19
WOODSIDE, N. Y, 11377 U. S. A
806 號
金連珪 1 3 4 江東區 明逸洞 5 4 高德漢陽 APT 1 棟
4 7 3 1 2 3 4 2

金澄次 2214 LINWOOD AVE. FORT LEE,
N. J, 07024 U. S. A
世運工藝社代表
金斗漸 1 2 2 西大門區 弘恩洞 3 3 8 1 1 6 5
3 0 2 1 5 3 6 4
2 6 7 1 0 4 3 1

高聖均 1 05 20 江西區 禾谷洞
金聖河 1 3 2 城北區 安岩洞 1 街 5 5 5
9 2 1 2 7 5 7
三省製藥專務 4 4 5 1 1 2 4 2

盧瑞玉 1 2 1 麻浦區 東橋洞 1 4 2 1 6
金星奎 6547 E. MARENCO DR,
ANAHEIM CA. 92807 U. S. A
3 2 2 1 6 1 2 8

朴俊燮 1 3 2 城北區 東仙洞 4 街 3 5 9 1 2
金弘集 1 05 20 江西區 禾谷 4 洞 8 4 1 1 1 8
6 9 2 1 6 7 1 4

蔡奎燦 1 2 2 恩平區 津寬內洞 2 9 9 1 7 4
金麟河 1 3 2 道峰區 弥阿 3 洞 1 2 5 1 4 8
3 8 9 1 5 4 8 9

咸潤根 1 05 70 光明市 光明 3 洞 住公 APT 1 3 園地
方成勳 1 3 1 9 棟 1 2 0 9 號 6 8 4 1 4 6 5 4
楊春澄

劉漢鳳 2-16 CAPSTAN CT. COLLEGE POINT
N. Y, 11356, U. S. A

(7-18)
7 6 7 1 1 0 4 8

李東秀 10520

江西區 禾谷洞 111174

☎ 60212533

☎ 60413519

朱永在

釜山市

☎ 93134217

釜山백인제중합병원연구실

韓昌淑

1034

江南區 盤浦洞 新盤浦 A P T

☎ 53311595

崔昌植 110

鍾路區 社稷洞 311121

☎ 73511695

韓萬燠

600

釜山中區 大廳洞 1街 38

文化음셀社

韓建淑

韓弘林 155

江南區 盤浦洞 住公 A P T

☎ 59011291

高允明

127430

江原道 三陟郡 道溪面

中央醫院

文昌沼

釜山市

18回

金完龍

140

龍山區 二村洞 302186

金義鉉

124 W. FRANKLIN ST. #413 BASILICA PLACE BALTIMORE, MD 21201 U.S.A

☎ (301)75211944

17回

金禹涉 121

麻浦區 新水洞 8519

☎ 71515249

유성안과국

☎ 71515249

金寅彪

131

東大門區 里門洞 346151

☎ 96216588

金漢范 (舊鋪八)

110

鍾路區 紅把洞 1911

☎ 73712080

朴謙會

140

龍山區 元曉1街 1718

☎ 71311150

徐永昱 150 江西區 空港洞 71 電話 66216326

李中性 電話 47415482

趙漢龍 110 鍾路區 益善洞 91 電話 76513577

朱東雲 110 鍾路區 平昌洞 345176 電話 35214295

崔英植 135 江南區 盤浦洞 235114 新盤浦 APT 104棟 402號 電話 59011919

韓豪淑 120 西大門區 驛村洞 75125 電話 38910480

韓翊洙 132 城北區 貞陵洞 69213 電話 91413283

韓宗鎬 123 京畿道 廣州郡 五浦面 5리 11호 電話 (0434) 4412916

19 回

金水濟 151 冠岳區 方背洞 尙실 APT A棟 205號 電話 58317924

카톨릭 醫大名譽教授 電話 59317131

金春燻

金河駿 121 麻浦區 滄前洞 30412 電話 39310755

都相禱 # 9 Everbloom Drive Cranston, R.I., 電話 32319608

文錫垠 日本高知縣 幡多郡 大目町 大角 國民診療所 電話 02920 U.S.A

朴旻會 135 江南區 新寺洞 534124 電話 54213293

朴炳顯 1 3 5

江南區 押鴨亭洞 現代A P T
3 3棟 3 0 5號 ☎5 4 2 1 4 5 0 5

朴燦國 1 13 4

城南市 丹岱洞 5 1 7 1 1
城南 ☎2 3 4 2 7

安炳鎬 1 3 3

崇信女中高校 城南 ☎2 1 8 4 6
城東區 紫陽洞 6 1 4 1 3
☎4 4 7 1 8 3 2 5

李湧垣 1 7 1

京畿道 安養市 비산동 4 1 7 미릉A P T
7棟 1 1 0 5號 ☎4 1 1 4 1 9 0

李在亨 1 3 5

江南區 廉谷洞 2 6 5 5 6 2 1 4 0 8 9
城北區 城北洞 9 7 1 2 8
☎7 4 2 1 2 3 3 7

朱權源 1 3 2

韓國自保顧問
서울醫大 名譽教授
☎2 7 3 1 9 3 5 0

朱基鍾

恩平區 新寺洞 1 9 1 7 3
(新寺洞 3 6 1 3)
연세약국 ☎3 0 2 1 1 5 7 9

韓景鎮 1 2 2

麻浦區 延南洞 5 6 1 1 8
富川保健所 ☎3 2 2 1 0 6 7 1 1 8 8

韓相榮 1 2 1

麻浦區 延南洞 5 6 1 1 8
富川保健所 ☎3 2 2 1 0 6 7 1 1 8 8

韓弼夏 1 4 0

龍山區 漢南洞 7 4 0 1 3
高大名譽教授 ☎7 9 3 1 6 9 7 0

20 回

權泰弘 1 3 5

江南區 方背洞 7 7 1 1의 1 三湖A P T
3棟 6 1 0號 ☎5 9 1 1 2 4 4 7

金明植 1 7 1

韓谷同法律 (事) ☎7 5 5 1 4 5 3 8
安養市 冠陽洞 現代A P T 3棟 8 0 4號
(庸奎) ☎3 3 4 3 3
三貴海運(株) 韓國事務所
☎5 3 2 1 9 1 5 5

金宗海 1 2 2

恩平區 佛光 1 洞 2 2 8 1 4 9
☎3 8 7 1 2 2 5 8

金亨穆 1 3 4

江東區 遁村洞 住公A P T 4 0 8棟
4 0 3號 ☎4 8 2 1 2 4 6 3

金興洙 1 3 5

江南區 方背洞 8 8 3 1 1 0 황실A P T
A棟 3 0 5號 ☎5 8 5 1 3 0 0 3

金世龍 1 2 1

麻浦區 桃花 2 洞 9 0
☎7 1 2 1 2 4 4 9

朴管鎮 1 3 4

江東區 遁村洞 住公A P T 1 0 6棟
4 0 4號 ☎4 8 3 1 0 2 4 7

朴演珽 1 4 0

龍山區 漢南 2 洞 7 2 6 1 2 9 7
☎7 9 8 1 8 0 1 3

白萬吉	仁川市北區十井洞436-4 內 APT 1棟109號	1760	金泳鐘	在美	207 FRANKLIN ST, NORTHVALE, N. J. 07647 U. S. A (201) 768-5114
徐光洙	麻浦區倉前洞402의18	121	孫俊得	在美	日本國神戶市東灘區住吉山手 8-22-15 078-11275
李基炯	徐光洙小兒科 西大門區峴底洞209	120	李壽永	第一診療所	M. N. D. HAHN, STATION. A. OGDENSBURG, N. Y. 13669-2291 0(315) 393-33000
林炳書	釜山市釜山鎮區凡一洞870의15 부산 089-4066 現代齒科 부산 068-17382	601	韓大淑	21回	
曹圭福	永登浦區新吉洞4915의3	150	金立鉉	麻浦區阿峴2洞667-112	0363-1601
崔玉德	中區新堂4洞346의159	100	金鏡煥	銅雀區舍堂3洞우성APT 4棟 408號	0599-5909
咸淳福	仁川市南區朱安6洞住公APT 16棟403號 仁川 0425-4698	1601	元勳基	恩平區龜山洞210-31	0388-8792
洪澄杓	鍾路區仁寺洞98	110	李相胤	水原市遠川洞81-6	0333-1161
黃載駿	江南區驛三洞진달래APT 3棟701號 0553-7041	135	李相胤	法典B/D 2204號 0333-1161 李相胤法律事務所所長 0333-11308	13508

李英環 150 永登浦區 道林洞186-9

李凡醫院院長 88333-9593
88333-9593

全明洙 160 仁川市松林3洞92-35

미주언과 032-762-5736

朱仁鎬 131 坡東區 杏堂洞320-10

保健病院 295-2225
295-2223

朱軫淳 133 坡東區 紫陽洞691-8

漢陽紫陽빌라203號

翰林大學(春川)教授 447-7752

崔昌奎 170

京畿道安山市 聲浦洞 藝術APT
1棟503號 863-33006
新進建築設計事務所所長 1528

765-11096

韓喬石 134

江東區 蠶室6洞 장미APT28棟

201號 423-4241

韓近淑 133

坡東區 九宜洞 211-46

447-8429

韓東允 160

仁川市南區 龍峴2洞三益APT

1001號 032-882-2667

金時彦 1644-A, Kalakaua Avenue Honolulu,

Hawaii, 96826 U.S.A

808-941-6567

安省信

211A67S.T.Brooklyn 718-833-1
N.Y.11220 U.S.A. 5477

劉喆 151 冠岳區 新林洞2洞 103-252

877-2972

日本沖繩縣名護市字茂佐1765

名護療育園 千 905-11

001-181-0985-210957

李林學

4194 Yuculta Crescent, Vancouver, BC.

V6N, 3R5 CANADA 604-296-0699

Professor, Dept, Mathematic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B.C. V6T1Y4

CANADA

李虎 大阪市八尾市東山本新町8丁目22-1

001-81-6-752-2126

東洋鍼療セソタ 關西東洋醫學研究所長

001-81-6-728-3713

朱 乾

東京都杉並區永福2-16-45
TEL(001) 81-324-5515

金 祐 燮

1 3 4

江東區 松坡洞 88-22

☎ 423-0198

金 東 燁

1 4 0

龍山區 西水庫洞 241-21 新東亞
APT 6棟 1003號

☎ 794-7757

朱 翰 裕

#2 Park Avenue Eastchester, N.Y. 10709
U.S.A

金 亨 信

1 6 0

仁川市 東區 松林3洞 66

☎ (914) 793-2012

☎ 仁川 3-6025

黃 石 峰

917 S. Bronson Avenue LosAngeles,
California, 90019, U.S.A

孔 守 範

1 3 3

城東區 紫陽洞 漢陽 APT
5棟 107號

☎ (213) 639-9026

☎ 432-3598
孔小兒科醫院長(清涼里洞)

申 允 稷

Prof. Dr. D. Med. Paulo Hirayama
Kegelstrabe 2 D-7520 Bruchsal 1
West Germany ☎ (07251) 14010

廉 元 德

1 3 4

江東區 蠶室洞 市營 APT
158棟 206號

☎ 966-4003

22 回

安 霖

1 3 2

城北區 普門洞 6街 118

金 旻 奎

1 3 4 江東區 城內洞 467-2 寶成住宅
2棟 205號

柳 炯 容

1 3 5

江南區 方背洞 430-7

☎ 95-3903

金 聲 翰

1 3 5 江南區 驛三洞 개나리 APT 33棟
1206號

趙 在 衡

1 5 1

銅雀區 上道1洞 7-22

☎ 583-9901

金 禧 庚

1 3 4 江東區 芳夷洞 漢陽 3次 APT 2棟
407號

☎ 412-2372

코리아通商(株) 社長
☎ 269-1635

崔龍煥 135 江南區方背洞988-1 新東亞APT
1棟1402號 ☎58510274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 副社長

☎75411679

崔昌奎 170 京畿道安山市 聲浦洞 예스진
1370

APT1棟503號 ☎

黃石峰 在美L.A

516 W Appletree Rd. Glendale, WI.
53217. U.S.A

崔俊植 110 鍾路區平洞2315 ☎76511096

徐昌仁 (泉山昌仁)

日本仙台市中江町 2013

☎(001)811222
72718589

(仙台市中江町)中江病院長

韓暈洙 132 城北區貞陵3洞880116 ☎91410490

朱乾

日本東京市

☎32318086

洪昌杓 171 京畿道果川市 住公APT5團地

東京都港區麻布 橋居留民團本部

企劃調整室長 ☎45414910

洪德熙 152 江西區鹽倉洞26613

수환住宅103號

☎69917048

金虎吉

日本名古屋市千種區田代町4貫音通

申鉉和 607 釜山市東萊區水晶1洞1011

☎4215938

金周炯

116110メツン月宮殿2128
☎05217221
0777

李柄一 150 濟州道西歸浦市 玄근리150112
140

(419)☎62519419

姜鎔根

金龍聲

23 回

徐 甲 承
韓 鎭 洵
韓 鎭 洵
韓 鎭 洵

金 寅 浩 633 慶北 七谷郡 와관읍 석정2동 421

대성여관 ☎15451660

金 斗 埴 150 永登浦區 汝矣島洞 11506

홍우빌딩 605 ☎78313611

과라마운트기공사

金 瑛 河 151 冠岳區 新林3洞 62811

남강빌라 103號 ☎85516336
김병헌辯護士事務所 ☎73313959

金 曾 鎬 在美

金 鎭 洪 在美

朴 東 鼎 135 江南區 開浦洞 49913 現代 APT

202棟 803號 ☎57613636

식량경제신문사 사장 79711283

朴 晶 浩 134 江東區 可樂洞 現代 APT 1次

13棟 702號 ☎40010589

동창기업 ☎27412421

朴 昌 均 133 城東區 金湖洞 3街 18

광산업 ☎29515587

徐 日 揆 150 九老區 航洞 115 그린빌라 C棟 25號

崇義女專 ☎68516784

☎75317069

徐 正 溶 171 安養市 비산동 三益 APT 1棟

901號 ☎0343131

정우엔지니어링(고문) 78713471

宋 基 澈 135 江南區 淸潭洞 134 三益 APT 1棟

601號 ☎54210022

沈 澤 高 楊 仁 謨

李 光 薰 133 城東區 中谷 2洞 54129

☎44616410

李 燮 杓 630 釜山市 西區 보수동 1街 116

李世得 135 江南區 押鷗亭洞 현대 APT

87棟 703號 ☎54414226

화실 ☎54412059

李漢淳 134 江東區 蠶室洞 27주공 APT

518棟 1007號 ☎41516946

弘益大學校

林陽均 600 釜山市 西區 토성동 1街2

삼광의원 ☎(051) 2713267

任昱彬 135 江南區 大峙洞 동원 APT 10棟

403號 ☎56816698

鄭良殷 150 永登浦區 汝矣島洞 시범 APT

21棟 86號 ☎78217131

서울大學校

趙誠福 132 道峰區 月溪洞 일계미성 APT

13棟 701號 ☎97217173

대광중학교 ☎92216206

朱圭演 110 鍾路區 東崇洞 50195

☎74314974

池昌龍 100 中區 新堂洞 110

☎25217966

崔敏煥 110 鍾路區 長沙洞 2512

평화의원 ☎27411756

崔宗相 135 江南區 論峴洞 경북 APT 8棟

606號 ☎54518952

崔宗仁 135 江南區 盤浦洞 612

☎54215329

韓東湖 140 龍山區 西水庫洞

신동아 APT 8棟 809號 ☎79811160

韓信 171 성균관대학교

安養市 관안동 현대 APT 7棟 ☎03431421

韓鎬權 134 江東區 新川 7洞장미 APT 17棟

207號 ☎41514651

玄鳳學 95 ACORN Rd. WATCHUNG, N. J. 07060

방원상사 ☎77812761

黃忠炫 134 江東區 風納洞 388 우성 APT

2棟 503號 ☎47412018

建築業

24回

姜基喆 151 冠岳區 奉天 6洞 100180

☎88214555

高明元	133	城東區聖水洞 聖水APT	南哲祐	300	정남빌라가동302號호
	3棟406號	☎46413888	朴聖熙	135	江南區瑞草洞三益APT2棟 ☎(042)6241126
	禮國大學校 工大教授	☎79710581		908號	☎55617196
金東勳	11711	果川市 별양동 住公APT507棟	朴泳馥	131	磨永商社代表 ☎58511041
	506號	☎50215930		東大門區徽慶2洞431216동성	31
	서울大學校 工大教授	☎87712808	廉仁必	132	城北區貞陵2洞439 ☎91410788
金性均	10510	江西區開花洞454171	魏在珪	152	大一學院 ☎75410111
		☎69910302		九老區始興洞漢陽APT1棟	3
金聲燾	120	西大門區延禧洞437147		411號	☎80215231
		金聲燾小兒科醫院		信光女中校	☎71316711
金應浩	1600 CENTER AVE, #11G FORT LEE N.J. 07024 U.S.A.	☎(201)94710116	柳炯極	110	鍾路區通仁洞137116 ☎73710862
金廷圭	134	江東區可樂洞122現代APT36棟	李萬鎬	111	果川市果川洞38911 ☎73710862
	1004號	☎40315601			
金泰錫	100	中區新堂洞292125	李雲澤		韓國看護補助員養成所 理事長 在美
		金泰錫 產婦人科醫院			
		☎25313120			
		☎25214987			
		대전시동구비내동14415			

李漢國 135

江南區瑞草洞 569 진흥 APT
5棟 1201號 ☎56215134

黃圭錫 12750

京畿道華城郡장안면서포리
26111 ☎03391241
華城牧場 2203

周喜銓 120

西大門區倉川洞 50018
☎33411797

黃炳峻 135

江南區開浦洞 64611 京南 APT
8棟 308號 ☎57310011

崔雄 131

東大門區回基洞 60163
☎96714939

中央大學教授 中小企業銀行本店
理事長 ☎75214591

崔皓 120

西大門區延禧洞 132159
☎39314422

25 回

崔昌彬 134

江東區新川洞 7 장미 APT
12棟 707號 ☎41313096

權宅淵 135

江南區清潭洞 111 三益 APT
13棟 1002號 ☎54312801

韓錫範 121

麻浦區西橋洞 47816
☎32316667

高麗大學校 理科大教授
☎9412641

韓承銀 134

江東區明逸洞 56 現代 APT
11棟 703號 ☎47810660

金珉河 151

冠岳區新林洞 475133
☎85513257

韓時坤 121

麻浦區鹽里洞 23178
☎71615587

金建述 120

西大門區阿峴洞
土建業

韓學綸 132

道峰區弥阿洞 12641138
☎98811872

金相熙 10520

江西區牧二洞 534129
土建業 ☎69416104

韓國自然健康會 ☎71216556

金聲進 135 江南區 方背洞 830-110

황실APT A棟302號

☎582-11277

金聲進 內科醫院長

☎713-12032

金世翊 122 恩平區 新寺洞 349-117

☎373-19646

梨花女大 文科大教授

☎362-6151

金永郁

R.M.6, B-10 Bedge 10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Bethesda,

MD 20014, U.S.A

盧庚兩 135 江南區 論峴洞 44-9

☎542-13345

第一病院長

☎273-10151

朴鼎惠 135

江南區 大峙洞 965-15 한성빌라

205號 ☎555-1458

建國大學 理科大教授 ☎445-10061

徐甲成

1534 Alexander St. Honolulu.

Hawaii U.S.A.

濠州航空社 호남우주支社

2034 Avilachine Quebec H8T TV.

Canada. 매길大學 HLA研究室長

金銀式 151 銅雀區 黑石洞 50-35

☎814-0303

劉秉千

2650 Pine View West Bloomfield

Michigan. 48033 U.S.A.

Wane State 大學 英文學教授

金仁鶴 151 銅雀區 黑石洞 198-41

☎718-14135

劉炳敏

622 慶南 합천郡 합천면 합천리

592-13 ☎합천2348

嶺南醫院長

金昊麗 134 江東區 吉洞 390-4

☎483-15121

劉長得

134 江東區 高德 470 洞 高德大宇 APT

2棟 201號 ☎482-10037

金熙宰 110 鍾路區 明倫3街 1-973

☎762-4970

李圭元 132

城北區 東仙洞4-187

☎923-8834

現代文藝社代表

☎94-0348

李亨白 10310

東大門區 面牧3洞465-6

☎432-3078

李楨敏 607

서울醫院長(☎0351)63-2097
釜山市 東萊區 釜谷洞2洞214-1162

大榮木材所代表

趙曄 10510

江西區木洞新市街地APT306棟

902號 ☎647-1306

第一醫院長 ☎324-2644

趙成國 133

城東區 聖水洞2街49-78

趙藥局 ☎464-1907

趙程崙 151

冠岳區 奉天洞 178-264

☎878-8678

大昌보일러社代表

趙載高 100

中區 武橋洞33-1

☎778-3450
신코리아寫場

崔浩益 122

西大門區 弘恩洞277-135

☎302-8058

大韓理化學社長 ☎265-4385

韓相約 135

江南區 開浦2洞8團地 公務員APT
808棟815號 ☎573-0896

論峴國民校 校監 ☎547-1104

韓承五 132

道峰區 水踰5洞412-140

☎902-2309

26 回

金塔煥 121

麻浦區 孔德洞105-138

☎713-3472

丸紅(株) 서울支店 ☎779-0501

金元鐸 140

龍山區 漢江路1街65

☎793-2159

金鍾麟 150

永登浦區 高尺洞52-88

☎612-0086

金熙宰 110

鍾路區 明倫洞3街山1-341

☎762-4970

朴一均 15040

永登浦區 梧柳洞山5

石東壽	601	釜山市釜山鎮區堂甘洞三益A P T 9棟609號	☎80413245	仁濟醫大病理科教授
安景烈	131	東大門區新內洞47816	☎49410543	
梁泰鱸	134	江南區細谷洞 170140 忠州工業高校長	☎42412429	
柳榮海	120	恩平區碌礪洞131175	☎38818933	
李三悅	134	大田乙支病院 江東區蠶室本洞93選手村A P T	☎26171911 交203	
李楨敏	600	延世大醫大教授 釜山市西區下端洞48912	☎39310673	
林祥榮	130 120 40	東興木材 忠南瑞山郡高北面保健支所	☎2815341 ☎9212811	
陳一憲	600	保健支所醫師 釜山市東區佐川洞997121	☎87918424 ☎4315173	
		草梁中學校	☎9210646	
崔華聖	110	鍾路區杏村洞 180111	☎73819726 서울電子(株) 常務 水原 (033) ☎4512830	
韓炳喆	121	麻浦區東橋洞17717	☎39310141	
韓炳瑚	133	江南區大峙洞 234129	☎56712111	
韓荃淑	150	弘益大教授 永登浦區堂山洞 江南區舍24棟404號	☎32210151 ☎67614112	
韓鼎燮	120	서울大哲學科教授 西大門區北阿峴洞189142	☎88015281 ☎36215824	
玄斗鎰	133	檀大建築科教授 城東區中谷洞24114	☎79710581 ☎44617636	
洪德泳	135	建國大教授 江南區盤浦洞盤浦A P T	☎446191290 ☎50214695	

洪 欽 燾 150 永登浦區登村洞636-1-11

(0)694-9212

崔 昌 彬 134 江東區新川洞7 장미APT12棟

7號

孫 陽 鳳 在美

吳 炳 憲 #17. SHORT STREET FORT LEE N.J.

07024 U.S.A

李 根 虎 在美(201)944-2035

李 圭 永 #13501 BARTLETT ST ROCKVILLE, MD. 208

(錫銜) MD. 20853 U.S.A

李 柱 銜 #247 CAMELOT DR. MORGANTON, N.C

U.S.A (704)497-0493

李 浩 敏 #14561 SWEETAN ST. IRVINE. CA

92714 U.S.A

權 頴 城 3008 N.UNIVERSITY AVE. PEORIA Illi.

61604 U.S.A

27 回

金 秉 萬 58-30E. HAMPTON BLVD. BAYSIDE, N.Y. 11364 U.S.A

(0)(718)423-8679

金 明 壽 135 江南區瑞草洞 科學APT2棟

302號 (0)591-9201

金 澤 濟 2518 SMITHFIELD RD. CHARLOTTE VILLE. VA 122901 U.S.A

(0)(804)971-8090

金 光 陰 在亞拉巴馬州

(0)814-99611

朴 在 恭 CHAI B. PARK MD. 7103 PILLA PLACE

HONOLULU, HI 96825 U.S.A

金 珞 柱 500 光州市北區 科學2洞345-1-2

(0)523-18742

南燦佑 100 中區新堂洞366-117 ☎259-5199

元章煥 131 東大門區전동동 597-26 ☎966-7829

盧興德 MR.N.J.6700 NW 57TH STREET.
BETHANY OKLAHOMA 73008 U.S.A

劉鋼 134 강원상가빌딩 대표 ☎966-7829
강동구 삼전동 94-8 ☎413-3276
인천전문대

朴 暎 善 642 慶北상주군다동면다동리792-1
124 ☎상주다동 333

尹元基 133 城東區中谷洞259-23 ☎467-8992

朴照會 RED #2 PUJNAM CONNETTICUT
U.S.A

李炳國 121 麻浦區신산동255-17 ☎323-9376
상호산업 常務理事 ☎556-1288
12889

邊 焄 140 龍山區東部一村洞302-86
작구가 빌라맨션1503號 ☎794-6941

李 洙 灝 135 江南區盤浦本洞 반포APT8,4棟
104號 ☎599-3323
培材高校教師 ☎485-8174

沈 鳳 燮 140 龍山區태원동1洞22
청화APT 2棟1106號 ☎793-6883

李 鴻 範 601 釜山市 부산진구 담장1洞
262-59 부산 ☎805-1294
서울 ☎783-3397
유성의의원장 ☎805-2949

安 滉 110520 江西區木洞二團地233棟507號
카톨릭大學院長 ☎593-6524
交 611241

廉 聖 龜 134 江東區蠶室5團地504棟
1504號 ☎418-9278
보해양조고문 ☎583-7391

성화심유Co진부이사 ☎865-1700
647-0748

張元龍 607 釜山市 東萊區 사직3동262-59
부산 ☎82-4151

현대의의원장

丁基範 600 釜山市東區凡一洞 1381

☎부산 6815325

서울 32317731

韓淳輔 133

城東區本室洞 1281496

☎29210521

趙誠國 122 恩平區 祿磻洞 152175

☎38813232

☎75314734

韓泓模 134

江東區 신창동 蠶室 6洞 장미 APT

16棟 1207號 ☎42219053

미성의원원장 ☎26517866

朱炳七 600 釜山市 西區 土城洞 4街 16

주외과 산부인과의원원장

☎2719715

☎27176066

曹圭榮 3803 Larazlie Pl. Alexandria

V.A. 22309 U.S.A

朱舜五 300

1208號

☎52512977

洪昌疇 135

江南區 瑞草洞 신동아 APT

3棟 409號 ☎55615194

大田大學教授

☎(042)2521

0251133

한양여중교사 ☎29212117

河烘權 100 中區 사직동 181

☎72212303

화이마산업사장

☎77717741

高景榮 122

恩平區 葛峴洞 문화 APT 6棟

308號 ☎38715188

韓明洙 140 龍山區 二村洞 302170

복지맨션 5棟 505號

☎79412380

高明東 133

城東區 聖水洞 聖水 APT 3棟

501號 ☎46212807

高明東齒科醫院 ☎75313362

28 回

신원企劃 71918901

仁荷大學校	032-1821	劉衡均	18850	京畿道平澤郡松炭邑 신사리
江東區千戶洞110-9	478-0108	尹允燮	在(美)(L.A)	松炭 409
의대國民學校	477-6122	尹治玉	151	冠岳區奉天1洞670-24
江原道東草市青鶴洞山181	東草 2248	李樂斌	全南	879-4170
東草高等學校	2006	李命英	132	城北區貞陵洞716-183
48 MOZART STR, FREIBURG NI BR, WEST-GERMANY. ☎(0671)3-3387	鍾路區東崇洞129호千戶C棟1號	李密森	1600	成均館大學校 762-3335
宋榮冕	742-2847	李三龍	542	京畿道揚平郡揚平邑 양촌리218
宋外科醫院	275-8433	李載淵	133	揚平女子高校
申道均	151 冠岳區奉天6洞106-222	李英得	5. KETCHAM COURT EAST, NORTHPORT N.Y. 11731 U.S.A. ☎(516)261-5117	全南麗水市西橋洞857
吳哲求	132 城北區城北洞 762-1725	李夏國	在(美)	城東區紫陽洞225-17
吳聖昱	520 全州市慶園洞1街126-48	李微男	在(美)	世宗大附屬高校 445-0080
食堂 五六島經營	0602-7174			

李漢祚	135	江南區 大峙洞 銀馬APT	☎56216646	曹翼奎	135	江南區 驛三洞 동신APT	☎56212449
8棟 915號	☎56216646			라棟 1101號	☎56212449		
西江大學校	☎32416041			城東區 玉水洞 한남하이츠APT	☎25214548		
道峰區 道峰洞	615150			2棟 1002號	☎92318811		
林珍洙	132	道峰區 道峰洞	☎99210665	한형주의원	☎92318811		
林鎬燮		釜山市	☎8417526	釜山市			
		林鎬燮醫院	☎8315463	釜山市			
張成筍	155	江南區 方背洞 京南APT 2棟 303號	☎58218982	春川市			
嚴仁植		斗室經營		永登浦區 汝矣島洞 三益APT	☎78217480		
鄭元浩	121	麻浦區 阿峴洞 2洞 338125	☎36219125	A棟 706號	☎78217480		
		食堂經營	☎26916006	駐韓오스트리아大使館			
趙東喆	133	城東區 玉水洞 4동 APT 3棟	☎78416256	江東區 蠶室洞 86亞細亞選手村APT	☎72417510		
		305號	☎23316211	麻浦區 延南洞	☎509113		
朱赫淳	132	城北區 安岩洞 三益APT	☎9412750	西大門區 漢芹洞	☎11712		
		2棟 1107號			☎36215359		
				韓忠錫	120		
				韓鳳鍾	121		
				太範植	134		
				韓仁浩	150		
				崔宇教			
				蔡憲哲			
				全鳳翊			
				韓炯周	133		

29 回

洪亨淳 牧師

洪鉉杰 121 麻浦區 桃花洞 麻浦 APT

10棟 303號 音樂 ☎ 712-11780

黃慶鎮 120 西大門區 鷹岩洞 1-27

서울루자신타 ☎ 388-6391
☎ 777-0013

高惠榮 100 中區 雙林洞 155-1

☎ 265-5159

江西病院産婦人科長 ☎ 613-17781

金光浩 608 釜山市 南區 남천동 비취맨션

APT 215棟 605號

☎ 622-4245

佛汎亞公社

☎ 44-0473

金炳宇

金鳳舞 55-25 98 Place APT 3L Corona.

NY 11368 U.S.A. ☎ (2-2) 592-5216

金北之 120 西大門區 弘濟洞 130-7

☎ 737-9742

金淳郁 4221 Humboldt Dr. Huntington Beach

Ca. 92649 U.S.A 醫師 ☎ (714) 840-6483

金雄植 730 Island Court Columbus Ohio 043214

U.S.A EMBA 醫師 ☎ (614) 457-2079

金載範 110 鍾路區 慶雲洞 47-1 建大3호빌딩

308호 ☎ 735-9100

동아방송출판사 ☎ 733-5045

金在楨 4521 N. Wildwood Ave Milwaukee,

Wisconsin 53211 U.S.A 醫師 ☎ (414) 862-5161

金楨殷 在 브라질

金正宰 134 江東區 방위동 반포 APT 104棟 808號

德蔭續業所 ☎ 423-2933

金弘杓 41-42 Elbertson St. APT 411 Elmhurst

NY 11373 U.S.A ☎ (2-2) 429-6881

金和極 29 Duke Dr. New Hyde Park, N.Y.

11040 U.S.A ☎ (519) 395-7487

金熙國 1130-城南市 수진동 4773-4

☎ 46-1446

- | | | | | | | |
|-----|-----|-----------------------|---------------------------|------|---|------------------------|
| 南萬松 | 135 | 江南區 盤浦洞漢陽A P T 3棟803號 | ☎471039657 | 朴浩高 | 15 Oakridge Court Timonium Md
21093 U.S.A | ☎(301)2441111 |
| 都重浩 | 135 | 江南區 方背本洞77211 | ☎59014315 | 白萬鍾 | 171 시흥군의왕남내순리6224
포일주공A P T 115棟407號 | ☎5614997 |
| 孟厚彬 | 135 | 江南區 論峴洞219 | ☎59116970
(0351)211275 | 白昌烈 | 現代海上火災保險
江東區 千戶洞5419 | ☎75616996
☎47816528 |
| 文昌基 | 132 | 道峰區 道峰2洞625121 | ☎99212343 | 徐尙郁 | 1211 Hawthorne Lane Fort Washington
Pa. 19034 醫館 U.S.A | ☎(215)54218329 |
| 朴升鐸 | 152 | 九老區 禿山洞378182 | ☎99213226 | 徐昌政 | 150 江西區新亭洞木洞新市街地A P T
1402棟1101號 | ☎64813692 |
| 朴在容 | 520 | 全州市 중화산동2가213 | ☎73212601
(4533) | 鮮于碩河 | 134 江東區 三田洞9113 | ☎53319461
☎42310759 |
| 朴在炯 | 151 | 冠岳區 奉天11洞1650122 | ☎77713324 | 宋徽林 | 135 江南區開浦洞京南A P T 1棟1202號 | ☎57511083 |
| | | 樞暎女高 | ☎613313 | | 世益通商(株) | ☎54717629 |
| | | 駐韓美大使館 | ☎80419049 | | | |
| | | 만세약국 | ☎99212343 | | | |
| | | 東西文化社 | ☎54610333 | | | |
| | | 문성인쇄사 | ☎77713324 | | | |

安 震 1099 Topaz Ave Apt. #9 San Jose CA.

95117 ☎(408)246-2794

李 培 石 407 Bohi Dr. Marietta Ohio 45750

醫師(614)☎373-6294

李 炳 杰 13020 道峰區孔陵二洞253

☎978-8625

柳 吉 鋪 131 東大門區 清涼里洞미주APT

895503호 ☎966-8131

李 盛 茂 110 鍾路區 三清洞157-44

☎733-9761

柳 憲 一 607 釜山市 東萊區 채송동310-113

☎89-1082

李 垣 植 131 東大門區 中和洞295-48

每日航運 辦 ☎734-2020 2027

劉 澤 鍾 133 城東區 金湖洞2街501-93

☎234-0015

李 殷 鳳 132 道峰區 水踰5洞408-18

東大門商高 ☎923-0037

李 甲 杓 122 恩平區 갈현洞463-16

문선사 ☎735-0606

李 正 昊 135 江南區 盤浦洞257-3

한신4차APT212동1101호

李 求 輪 607 釜山市 東萊區 西2洞산27-14

☎523-1687

李 枝 遠 永豐商事院附屬醫院 ☎533-7404

삼원양행 462-3900

李 權 燮 206-14 Emily Rd. Bayside N.Y.

11360 U.S.A (718)☎952-7060

李 通 璵 3224 Quarry Dr. Fayetteville N.C.

28303 U.S.A 醫師 ☎(919)864-4310

李 芳 秀 708 S. Lorraine Blvd L.A. Ca

90005 U.S.A (213)☎639-7057

李 鎬 允 151 冠岳區奉天洞673-72

☎886-6757

林舜均 135 江南區 大峙洞 미도APT
105동302호 ☎56714479

鄭哲周 稅務士事務所 ☎2774120942858

瑞草中學 ☎58310228

鄭治島 135 江南區 瑞草洞 164813
세원주택나동201호

林鍾一 134 江東區 可樂洞 可樂APT
32棟307號 ☎460199369

☎58212146

매일향운 ☎7341202097

張聖洛 日本國 오키나와 讀谷村 賴名波 F B I S

趙英濬 150 永登浦區 汝矣島洞 시범APT
11동91호

張之煥 135 江南區 方背本洞 중앙APT
가동901호

가동901호

中央大學附屬女高校長 ☎59110951
☎81417912

趙鎰齒科 ☎78510782
☎76218785

全龍珠 100 中區 南大門路5街690

☎23310021

코암인더내쇼날빌 ☎2741096115

鄭景鍾 170 龍仁郡 남사면 진봉리
7739115549454

鄭炳殷 133 道峰區 水諭3洞 134135
☎90419855

朱東雲 EMBASSY OF ROK 61 DUNDONALDST,
PORT OF SPAIN P.O. BOX 1181
TRINIDAD TOBAGO
트바고大使(627)769113

二友實業代表 ☎2521715

朱相彥 150 永登浦區 堂山洞 5街712 유원APT
20棟303號

鄭哲周 135 江南區 方背2洞 101811
방배삼익APT 3棟606號

☎58310094

駐韓英國大使館 ☎73517341
31

陳炳珍 2034 N. Mirasol St. Santa Ana CA 92701

☎(414)547

千歲林 151 銅雀區 本洞126-15

☎814-3401

崔萬楨 135 江南區 盤浦洞 盤浦APT

☎114-3085

崔錫勳 132 城北區 東小門洞7街115-3

☎95-8385

安養中央病院 ☎857-1771

崔學洲 152 九老區 九老4洞313-128

☎855-1445

韓極 134 江東區 明逸洞高德子공APT362棟

☎503號 476-4159

韓錫元 135 江南區 押鷗亭洞 현대APT

73동204호

☎542-5385

韓國運輸機

☎557-2199

韓世鎬 2960 Grand Concourse 4B Bror X.N.Y

10458USA 藥師(212)9633-5190

韓昇燁 133 城東區 紫陽洞23-52

☎452-3881

韓依天 135 江南區 方背洞948-20

☎584-0386

韓在壽 韓鎮慶 110 鍾路區 崇仁洞1051

☎234-9037

韓鎮慶皮膚科院長 ☎923-5043

韓鴻吉 606 釜山市 影島區 동삼동

☎49-7961

海東中學 ☎49-3801

咸性球 韓斗正 134 江東區 遁村洞遁村APT404棟

☎414-6561

洪逸 135 江南區 押鷗亭洞現代APT24동

☎542-7309

高明三 135

江南區押鷗亭洞現代APT82棟

1101號 ☎54316440

서울大學工大教授 ☎87716148

구내 365718

孔麟洙 1630
1711

大邱市枝底洞775129

☎K21445015
48615

權甲周 133

城東區中谷洞25813

☎44516431

光漢企業會長

☎54811070
603759

金光彬 121

麻浦區老枯山洞40113

☎71514374

美八軍카미서리支配人

☎790414412

金斗燦 110

鍾路區社稷洞164126

☎73612243

VICE-LOCK INTERNATIONAL

金冕燮 133

城東區聖水洞668110

☎46416951

漢陽大學工大教授(化工研究室)

☎29212111

金炳建 120

西大門區延禧洞133126

☎32415010

東洋火災保險(株) ☎72318371

金秉喆 135

江南區方背洞725三湖APT4棟

601號 ☎53411300

韓國電力補修(株) ☎54610672

金秉浩 110

鍾路區弘智洞9419

☎72414166

성광開發(株)

☎78413351

金始源 110

鍾路區蓮堅洞44112

☎76415208

金信根 121

麻浦區東橋洞177-8

☎39318496

서울大學校藥大教授☎87716140

金榮注 16030

京畿道高陽郡元堂邑주교리563장미APT3차가棟406號

삼지상사 ☎24615763

朴裕夏 132

道峰區彌阿5洞482-8

☎98814700

信來稅務會計事務所☎980131000

金容海 135

江南區方背本洞822-5

☎59316030

朴垣相 600

釜山市中區新昌洞1街6

☎2619164

大成學院

金龍喆 100

成均館大學內 成均館大學教授 ☎76215021

朴定仁 135

江南區三成洞79홍실APT6棟

1005號 ☎54512521

羅雲龍 132

道峰區雙門洞75123 ☎99214175

安國火災海上保險(株)☎75610384

邊成燁 134

江東區芳夷洞38-8

☎41518523

都相約 15020

江西區新月2洞614-8 漢城聯立2次2棟102號

☎60219872

崇義女專教授

☎75417606

朴世雄 140

龍山區梨泰院洞5116

☎79412690

白炳烈 100

中區獎忠洞2街55 ☎26611546

申裕恒 134

江東區蠶室木洞101우성APT16棟

1105號 ☎42410952

PARK INTERNATIONAL CORPORATION
171713884
15

慶熙大學生物學科教授

☎96610061
☎15(3007)

元炳 昨 131

東大門區 回基洞山1 ☎24412787

慶熙大學校文理大學長

☎21313152

延河 龜 135

江南區 押鷗亭洞現代APT120棟
901號 ☎54812179

李元 鏞 132

道峰區 彌阿洞69517

☎98910519

吳承 泰 1502

江西區 禾谷本洞461152
☎69213971

李圭 赫

☎98910366

燈臺教會 목사

俞 焄 1034

江南區 盤浦洞盤浦APT94洞308號
☎59912411

李圭 汝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教授

李圭 煥 1032

道峰區 上溪3洞83149
☎97215076

柳承 敦 140

龍山區 西水庫洞新東亞APT8棟
907號 ☎79511532

裕昌建設(株) 常務
☎77911101

李南 杓 133

觀光巴士組合常務
☎42210019

尹東 榮 120

西大門區 延禧洞141134 동진빌라
4棟201號

李善 植 110

漢陽大學校教授
☎29212111

大韓電信工業(株)
☎85514546

鍾路區 平倉洞56315
☎352108823

(株)三松 代表理事 ☎78413251

李承奎 132 道峰區 月溪洞 534143

연화실 7931334

李時默 133 城東區 下往十里洞 48218

李鎬汪 131 東大門區 清涼里洞 미주APT 3棟 1408號 96615391

大韓體育會 訓三 協會

高麗大學校醫大教授

李演熙 132 城北區 貞陵洞 202147

林滢彬 132 城北區 長位洞 2191313

大韓電信工業(株)代表理事

鄭林植 130 忠孝思想宣揚會 26119154

李寅華 135 江南區 押鷗亭洞現代APT 23棟

趙雄善 182 京畿道 坡州郡 천현면 대능리 94

合進B/D代表 27316611

대능양회

李晶植 1002 釜山市 西區 槐亭洞 533116

朱泰河 1502 江西區 禾谷洞 400131

釜山商業高校校監

九老工團動力資源研究所

李河 135 江南區 論峴洞 12013

崔嘉鳳 150 永登浦區 汝矣島洞 水晶APT C棟

李河內科院長 54711692

李鎬植 132 城北區 敦岩洞 6061724

이순웅 小兒科醫院 96616520

92412144

崔聖珉	120	西大門區 大新洞 124-12	金 昱	810 WEST GRACE APT 2110 CHICAGO, ILLINOIS 60613 U.S.A
梨花大學校文理大學教授	(363) 6151-70		金 汶 一	
崔哲根	120	西大門區 葛峴洞 300-147	金 恭 根	6377 WOODBURY DR SOLON OHIO 44139 U.S.A (216) 248-0581
崔華國	132	北區 貞陵洞 226-146	金 元 謙	23 MICHIGAS AVE WINNIPEG, MANITOBA CANADA R3 T3 V1
韓均弼	135	大同商業高校校長	金 庚 台	3651 HEATON RD HUNTINGTON VALLEY P.A 19006 (215) 947-9252
韓相淇	135	江南區 新沙洞 664-11	高 勝 榮	13-11 MICHAEL CT BAYSIDE N.Y 11360 U.S.A (718) 352-9087
汎韓無電機社長	(032) 21523-1		朴 永 鎭	7 GULL PEN WAY WARREN N. J. 07060 U.S.A (201) 947-5777
韓 震	150	永登浦區 新吉洞 4320	申 森 熙	702 3RD AVE TROY N.Y. 12182 U.S.A (518) 235-8999
韓 龍	110	鍾路區 官井洞 918	李 仁 根	327 REEVES AVE TRENTON N.J. 08610 U.S.A (908) 888-2488
姜禮根	825 71ST BROOKLYN N.Y. 11228 U.S.A (718) 230-1699 (718) 933-5677	美5空軍카미서리 支配人 (02) 833-1180 (02) 833-2005	梁 和 碩	6614 NORIT SACRAMENTO CHICA GO ILL 60645 (312) 495-2115

李性白
3103 FURMAN LANE APT.403 ALEXA-
NDRIA V.A. 2206 U.S.A
(703) 795-1737 9

曹秉均
6967 CAROL DR. INDEPENDENCE
OHIO 44131 U.S.A
(216) 524-1963 5

趙哲
6010 NORTH LAWDALE AVE
CHICAGO, ILL (312) 588-1177

韓萬燮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U.S.A
(206) 641-1573 9

李星究
在美

31回

高庚式
132 道峰區月溪洞28의6

高明鎬
湖南精油(技師)

郭東守
水原市

水原에서 個人事業
13311519882

金教誠 121

麻浦區 大興洞 2219
71712488

金德鍾 140

保安司
龍山區 西部二村洞 市民 APT
5棟 105號
71310743

金明哲 132

道峰區 月溪洞 26의15
97218719

金聖斗 135

한국경제신문편집국
江南區 三成洞 142의5
55414062

金聖周 10324

農場
江東區 明逸洞 高德市營 APT 18棟
106號
4858786

金聲鎬 150

永登浦區 新吉 4洞 21415
83315489

金洙卿

김성호의과병원장
醫博
醫師
83315957

金 暎 俊 仁川 8311257
慶熙大子女教育問題研究所長

金 英 鎮 160 仁川市南區송의동20516잠미주택
道峰區 水輪洞 576 99318758

金 永 煥 京畿道楊州郡東豆川邑 서울대美大西洋畫科教授
87710131

金 雄 基 17510 富川市 역곡동 山11서경APT7棟
103號 仁川 6315169 (交) 2905

金 載 昆 1601 仁川市南區龍峴洞611117 都 相 默 133
태정산업 3931705112 城東區 九宜洞 61130
仁川 88215424 京畿高校(英語)

金 周 鉉 132 磨我堂書藝學院 仁川 42110937 都 址 石 10520
道峰區 月溪洞 534161 江西區 木洞신시가지APT113棟
307號 36947194397

金 濬 浩 121 麻浦區 望遠洞 41211삼화APT 厚岩鐵鋼富川工場 부친 132
102號 31213030 6215122

金 哲 102 EASTERN 觀光(株)會長 朴 慶 來 135
75211022 江南區 三成洞 해청아파트12동

金 致 敬 160 仁川市北區 加佐洞 111124 朴 炳 哲 135
503호 江南區 三成洞 해청아파트12동
U·N·D·P 63319451 15

朴 洙 洙 1 5 1

冠岳區 新林洞 7 5 1 1 5

☎ 8 7 9 1 7 2 2 3

미로통담집
在釜

☎ 부산 3 1 0 6 4 9

豐進金屬(株)會長
☎ 5 5 2 1 6 0 7 1

秋星메리야스代表

朴 鎰 忠 1 3 4

江東區 吉洞 4 0 4 1 5

☎ 4 8 4 1 4 9 3 9

安 壽 敏

1 3 5

江南開浦洞現代 A P T 1 0 1 1 동 6 0 2 號

朴 祚 烈 1 1 3 7 0

建國大英文科教授
京畿道 安山市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3 동
4 0 5 호
☎ 0 3 4 5 1 8 2 1

梁 柱 龍

5 2 0

全北全州市
洋品店經營

☎ 5 6 6 1 0 8 8 1

朴 虎 冕 1 3 4

江東區 可樂洞 가락아파트 4 7 동 2 0 8 號
☎ 4 1 4 1 2 0 3 8

柳 榮 龜

1 3 2

城北區 吉音洞 1 0 7 8 1 1
☎ 9 8 8 1 5 6 2 5

徐 三 澤 1 2 0 0 4 3 0

江原道 麟蹄郡 北面 元通里 3 의 4
☎ 0 3 6 5 1 2 2 9 0

李 東 準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裴 聖 哲 1 3 1

德沼信仰村

☎ 4 3 2 1 3 6 9 3

李 東 元

3 0 3 1 1

陸軍少將 (에비역)

대구 4 5 1 6 1 2 8

白 庚 鍾 2 4 4 3 2 1 3 6 9 3

東大門區 中和洞 3 0 8 1 4 8
2 4 동 6 반
☎ 4 3 2 1 3 6 9 3

李 達 全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農場經營 (城南)

☎ 0 3 4 2 1 4 4 1

李 東 元

1 3 1

東大門區 徽慶洞 1 9 1 1 3 2
☎ 9 6 7 1 0 6 4 2

劇作家

☎ 6 4 2 2 2

柳 俊 馨

1 3 1

유영구의과병원장
☎ 9 8 8 1 5 6 2 5

東大門區 中和洞 3 0 8 1 4 8

☎ 4 3 2 1 3 6 9 3

李 達 全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江原道 麟蹄郡 北面 元通里 3 의 4

☎ 0 3 6 5 1 2 2 9 0

李 東 準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東大門區 中和洞 3 0 8 1 4 8

☎ 4 3 2 1 3 6 9 3

李 達 全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德沼信仰村

☎ 4 3 2 1 3 6 9 3

李 達 全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東大門區 中和洞 3 0 8 1 4 8

☎ 4 3 2 1 3 6 9 3

李 達 全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江原道 麟蹄郡 北面 元通里 3 의 4

☎ 0 3 6 5 1 2 2 9 0

李 東 準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東大門區 中和洞 3 0 8 1 4 8

☎ 4 3 2 1 3 6 9 3

李 達 全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德沼信仰村

☎ 4 3 2 1 3 6 9 3

李 達 全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江原道 麟蹄郡 北面 元通里 3 의 4

☎ 0 3 6 5 1 2 2 9 0

李 東 準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東大門區 中和洞 3 0 8 1 4 8

☎ 4 3 2 1 3 6 9 3

李 達 全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德沼信仰村

☎ 4 3 2 1 3 6 9 3

李 達 全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江原道 麟蹄郡 北面 元通里 3 의 4

☎ 0 3 6 5 1 2 2 9 0

李 東 準

6 3 0

大邱市 中區 大鳳洞 5 5 1 3 靑丘매촌 A棟
₩ 9 0 5 1 0 3 2 1
₩ 9 8 8 1 5 6 2 5
₩ 9 6 7 1 0 6 4 2

李培善 15020 江西區禾谷5洞10062의6호
 ☎60210578 李柱七 121 麻浦區望遠一洞48612
 ☎39315589

李鳳植 132 城北區東小門洞101☎74212064
 KAL(機長) 全龜淵 134 안양시광양동現代APT9棟1001號
 ☎(0343)4715088

李城洙 134 江東區城內洞15015 안양중앙병원장
 ☎47614082 醫博 ☎85711771
 全承鎬

李柱成 1230 1736 29114 聯合通信海外部
 ☎76511004 全夏鏞 121 麻浦區延南洞4871410
 ☎32210719
 강원도정선군신동읍조동13리
 국민병원(醫師) ☎31215111

李熙高 151 威白精米所社長 鄭漢裕 122 恩平區新사동29153
 ☎81514826 曹源根 122 恩平區新사동11124
 ☎38817989
 銅雀區上道一洞1341109
 ☎80210151

林浩 釜山凡一2洞한양아파트1동1314호
 ☎부산6617997 朱秉德 100 中區雙林洞182183
 ☎29214426
 삼원양행
 ☎46219300 新亞建築(代表) ☎35413966
 中區雙林洞182183

李璣燻 134 江東區吉洞진흥APT3동601호
 ☎47617771 朱源道 122 恩平區구과반동120의3
 ☎35218112
 建築業

李璣燻 134 江東區吉洞진흥APT3동601호
 ☎47617771 朱源道 122 恩平區구과반동120의3
 ☎35218112
 建築業

李璣燻 134 江東區吉洞진흥APT3동601호
 ☎47617771 朱源道 122 恩平區구과반동120의3
 ☎35218112
 建築業

李璣燻 134 江東區吉洞진흥APT3동601호
 ☎47617771 朱源道 122 恩平區구과반동120의3
 ☎35218112
 建築業

李璣燻 134 江東區吉洞진흥APT3동601호
 ☎47617771 朱源道 122 恩平區구과반동120의3
 ☎35218112
 建築業

李璣燻 134 江東區吉洞진흥APT3동601호
 ☎47617771 朱源道 122 恩平區구과반동120의3
 ☎35218112
 建築業

朝鮮호텔總務部

商業

朱 一 135 江南區瑞草洞山189-1 權 鎮 均

☎ 590-4322

Timber Trail Dekalb Ill. 60115

U.S.A ☎ 815-756-9745

Prof. Northern Ill. Univ. Dept of Economics

朱 繪 淳 120 西大門區弘恩洞206-1

☎ 385-8675

金 德 勳

Michigan U.S.A

M. D 서울本家 ☎ 829-15313

崔 心 煥 三養社全州工場

☎ 267-3317

金 德 泉

6000 White Lane #8. Bakersfield, CA.

崔 燦 在 133 城東區金湖洞2가1161

(崔景石住宅)

93309. U.S.A

☎ (805) 398-10485

千 景 煥 240 江原道三陟

金 亨 述

13202 Berwick Ave, Baton Rouge LA.

70815. U.S.A

☎ (504) 275-12086

韓 東 柱 166120 慶南창녕군의방면장창리7-2

至誠醫院院長

가계 ☎ (504) 357-18088

韓 秉 極 135 江南區盤浦洞2335 한신공업2차

107동 605호 ☎ 591-19348

朴 炳 元

38. Chur chill Dr. Longmeadow Mass.

01106. U.S.A

☎ (413) 567-19317

韓 熙 邦 在釜 新진교동(株)

在外同窓

M.D. Providence Hospital

徐 甲 敬

R. 76. Wallupe Cir. Honolulu, HI.
96822. U.S.A

李 致 和

20530 Anza Ave. #275
Torrance Ca. 90503 U.S.A

☎ (808) 373-4081

Prof. Univ. of Hawaii College of

李 哲 敏

1806. Pomejo St. Dasmariñas, Makati

☎ (213) 370-9771
☎ (213) 979-5808

徐 泳 煥

B.A
8134. Ivan Relb. Drive, Houston,
Texas 77040. U.S.A

M.M. Philippine

☎ 818-9171

☎ (713) 469-1138

楊 炯 春

日本京畿右京區西院朱掛町20番地

李 哲 範

Los Angeles Californiar

在日大韓基督教京都教會牧師

U.S.A

☎ (213) 839-8373
☎ (213) 844-3694

☎ (075) 311-5051

李 英 鎬

83. N.Mountain Rd. W. Ibraham. Mass.
01095. U.S.A

崔 德 俊

在 CANADA

☎ (413) 569-4691

Prof. Spring Field College

崔 千 德

3448. W. 171 st Street. Torrance Ca.
90504. U.S.A

☎ (213) 515-9112

U.S.A

☎ (914) 963-0004

Prof. Columbia Univ New York

韓 相 源

Los Angeles. Calif. U.S.A.

☎ (212) 280-1339

☎ (212) 543-2427

黃載鎮

15. Penn Blvd Scarsdale, N.Y.
10583, U.S.A.

☎(914)472-2753

서울집 ☎562-3833

회사 ☎777-5127

32回

姜顯珏

607 釜山直轄市 東萊區 中1洞

1376-113 美軍部隊

高昌岩

134 江東區 蠶室洞 우성 APT 20棟

1203호

成昌物産

☎413-6884

金桂碩

134 江東區 蠶室1園地 107棟

508호 ☎413-2388

金東一

132 城北區貞陵二洞 200-6

☎919-11087

金炳三

東一피아노學 ☎914-2321

金炳鉉

134 江東區 蠶室6洞 장미 APT

8동 607호 ☎415-5241

金聖南

大邱市

김관형 131

東大門區清涼里1洞 미주 APT 4棟
313號 ☎966-1203

果川市

金晟楨 150

永登浦區 汝矣島洞 공작 APT A등

金壽喆 210

303호 의향선장 ☎782-3129

金仁涉 103

江原道束草市 東大門區 面牧洞 542-8

金寅哲 200

江原道 春川市

金仁和 132

道峰區月溪洞 496-11

金萬奎

道峰區月溪洞 496-11

金晚均

道峰區月溪洞 496-11

金成昌

道峰區月溪洞 496-11

金在鉉

道峰區月溪洞 496-11

金載坤 100

中區 明洞2가 2-16

金致浩 140

更生齒科 ☎755-8770

金泰鳳

龍山區 普光洞 260-6 3차미 APT

金泰洪 110

1005호 ☎794-8051

中區 舞鶴洞 연립주택 68동 201호

☎733-4430

金熙康 134 江東區 城內洞 423137
 徐廷守 608 釜山市 南區 용호4동 48517
 용호단독주택 105호
 ☎62414789

朴東塾 607 釜山直轄市 東萊區 명동로 67519
 영진사
 ☎7212347

朴承宰 110 鍾路區 堅志洞 85124
 풍산금수 5316930
 영등포구역의도동 49 한성 APT A棟
 509號 ☎78216021
 南大門 유성상가 ☎75212054
 京畿道 水原市

朴齊極 134 江東區 高德洞 住公 APT 304동
 샘표食品 ☎99217111
 吳成基 136 京畿道 城南市 오양동 247
 도시정미 Co. ☎71710817

朴亨坤 釜山直轄市
 漢榮中學 ☎48411113
 元俊熙 121 麻浦區 西橋洞 33114
 ☎32413553

徐康洛 120 西大門區 佛光洞 1051108
 禹宗均 151 冠岳區 新林 8洞 165812
 ☎85415143

徐星進 140 漢城商事 ☎77816953
 龍山區 普光洞 7125
 二友社 ☎25210539
 柳榮濂 135 江南區 方背洞 90819
 유림 B/D 4 F

美8軍司 ☎790416498
 한국이동서비스(株) ☎58610011
 ☎58617070

柳玉培 江西區 禾谷洞 유태의원

李庚厚 1512 銅雀區 上道洞 32112 84210585

아식스대리점 68514841

李均 140 龍山區 厚岩洞 143121 75514011

84210585

李光洙

李相龍 131 城東區 聖水1街 6851201

성수종합상가 46516409

李昇陽 122 恩平區 鷹岩洞 45511

東信製藥 38719419

李承杓 134 江東區 新川洞 17-6 크로바 APT

1동 1001호 41413362

주한美대사관

李令載 132 道峰區 水踰2洞 237117 99319963

101 道峰區 水踰2洞 237117

李龍哲 11310 京畿道 廣州郡 서부면 갈무리

413161 47816752

李龍澤 132 城北區 貞陵洞

李長得 釜山直轄市

李徹和 135 江南區 新沙洞 60414

현대맨션2동 102호

54410827

李희열 151 銅雀區 舍堂洞 1811319 58213615

尹明鎭 152 九老區 高尺洞 20316 61210718

尹永洙 城東區 金湖洞 1街 330 25313495

田春三 133 城東區 金湖洞 1街 330 33214688

鄭允廷 10560 九老區 九老洞 공영주택 307호

鄭在鎰 10000 中區 新堂4洞 3331312 25217780

三省油脂 25214894

趙耀燮 135 江南區 大峙洞은마 APT 20棟 101號 55610843

趙鐘南 150 江南區 傍花1洞 성원 APT 가棟 503號 66413567

59114591

鄭浩鏞 121 麻浦區 鹽里洞 8-48
 崔炯英 100 京畿道高陽郡元堂邑주교2里302 김진기방
 163

朱洙烈 608 釜山南區 남천동 3-5 장영자음림교회조직위원회 718-2367
 협진대양맨션2동902호
 崔洪昶 134 江東區 明逸洞 56 高德現代 APT
 15동702호
 478-0326
 252-9567

池一權 1210 江原道속초시 중앙동 4동4반 제과점 863-8640
 韓明均 131 東大門區 踏十里 4洞 19-34
 246-6420
 城東女實高

奏正洙 150 江南區 蠶院洞 韓龍彬 151 冠岳區 新大方洞 632-27
 322-202號 590-0467 仁川直轄市 北區 작전동 751-28
 한국일보속초지사 33-51100 住宅銀行 602-1641
 江西區 禾谷洞 APT 5동 205호

崔慶明 110 鍾路區 雲泥洞 98-78 韓梳淑 160 仁川直轄市 北區 작전동 751-28
 가든BLDG 미림APT 5동 501호
 서울 742-0482

崔心煥 崔齒科 765-2233 (032) 524-0581
 (032) 523-8972

崔夏楨 132 道峰區 번2동 435-52 韓鍾達 江西區 木洞 318-30
 981-7964 韓泰欽 12500 694-9396
 구상산업

崔熙仁 151 冠岳區 新林1洞 1600-3 856-3392

黃 韓 韓 趙 李 尹 尹 李 李 孫 裴 朴 朴 朴 金 金 金 金 金 黃
 普 碩 東 世 黃 尹 庚 龍 東 政 英 漢 永 준 泰 哲 映 榮 武 忠
 鉉 愚 明 英 勳 晟 德 垠 輝 達 德 雄 鐸 子 進 雨 昭 民 昌 漸

在 在 在 在 아랍에미리트 在
 美
 60 Hunter Ave. St. Ives, Sydney,
 2075N.S.W, Australia
 在 우루과의

33 回

姜 東 求 135 江南瑞草洞東亞APT 81809 ☎55519781

康 海 園 1301 東大門 망우洞 50316 ☎73019991

金 亨 培 122 은평구 갈현동 465115 ☎38819776

金 相 龜 150 여의도동 신영B/D 801 前·江原道知事

金 基 元 110 鍾路區 東崇洞 市營APT 13棟 103號 ☎76219698

姜 在 錫 133 城東區 紫陽洞 216121 友信샷시社長 ☎2661940112

金 賢 修 150 여의도洞 11613 백산 B/D ☎43416066

金 相 球 135 江南區 大峙洞 新景APT 12棟 1102號 ☎78318240

韓 碩 愚 2075N.S.W, Australia 漢구 시청각常務 ☎78318240

黃 普 鉉 在 우루과의 문교부 대학심의관 ☎70213303

李 大 鍾 1 3 2

도봉수유2동53518

☎ 9 9 3 1 8 2 1 9

해양(株)副社長

☎ 2 5 2 1 3 1 0 1 1 5

李 元 鍾 1 1 0

鍾路청진洞4112
국세자료사代表

☎ 3 2 3 1 2 5 3 7
☎ 7 3 3 1 7 1 1 6

李 遠 鍾 1 2 0

西大門 대시洞 1111112
경동교역代表

☎ 3 9 2 1 3 2 5 1

李 城 南 1 5 1

관악봉천9동635191
성원정밀社長

☎ 8 7 8 1 9 0 3 5
☎ 2 7 5 1 8 7 2 5

李 長 弘 1 2 0

西大門 북가좌洞329122

☎ 3 7 2 1 0 3 8 8

林 錫 賢

釜山 釜山大教授

☎ 3 7 2 1 0 3 8 8

任 縞 彬 1 3 5

강남청담동10111효성빌라26동
204號

☎ 5 4 2 1 7 3 4 6
☎ 9 6 6 1 1 9 3 1

廉 昌 錄 1 7 1

京畿시흥 과천면2리373
111

☎ 5 0 2 1 3 7 2 4
☎ 7 4 4 1 7 7 2 1

한국가스협회

☎ 7 4 4 1 7 7 2 1

廉 희 龜 1 0 0

中區 中林洞355

☎ 3 9 2 1 6 2 7 1

尹 炳 陽 1 2 0

범한기계
西大門 연희동2000171

☎ 3 2 2 1 1 7 6 9

朴 丙 楨 1 6 0

仁川 남구 고전동308
011

☎ 7 4 4 1 9 1 5 3 2 4
☎ 5 3 2 1 0 7 9 7

朴 弘 植 1 2 2

동양유업常務
恩平區 葛峴洞436137

☎ 4 2 5 1 8 0 0 5 1
☎ 3 8 4 1 8 4 4 4

朴 溶 郁 1 3 2

道峰區 彌阿5洞476111

☎ 9 8 8 1 2 7 8 6

朴 仁 赫 1 0 0

東大附中教師
中區 서소문동91

☎ 2 4 5 1 4 1 1 2
☎ 7 5 6 1 7 0 5 8

朴 長 根 1 1 0

명천실업專務
종로구 관수동
길목상사社長

☎ 2 7 4 1 2 3 3 9

朴 茂 連 1 3 4

江東區 蠶室洞蠶室A P T 26洞505號
朴치과院長

☎ 4 2 2 1 1 0 0 3
☎ 4 2 2 1 1 0 0 3

朴 淳 三

在美

☎ 4 2 2 1 1 0 0 3

崔琳活 100 中區 신당4동34611

☎23417331

대건산업社長

崔熙昉 131 東大門 회기洞102159

☎96610801

한국실리핀제조社長

崔昌松 10 CANDLEWOOD LANE FARMINGTON, CONN, 06032 U.S.A. (202) 673-5219

☎03461631

韓永喆 601 釜山北區毛羅洞71411

☎6612966

한국호진代表

韓洙觀 131 東大門 회기동16119

☎32314531

大光高教師

韓澈柱 134 강동구 잠실4동시영APT129棟

☎27410749

韓榮哲 135 강남구 서초동404

☎53216054

세동실업(株)專務

韓원승 133 성동 광장동구동APT4棟901號

☎45211854

韓賢根 132 도봉區 미아동313110

☎98910514

柳東洙 134 강릉區 잠실洞장미APT13棟40號

☎43213151

尹在敬 134 강남區 잠실洞장미APT13棟40號

☎41215008

魏成國 635 대구북구 칠성동1가15112

☎78031514

산업은행칠성동支店長

☎(053)44114837

劉國培 133 성동중원동4동64124

☎44414428

청신한의원장

☎27518786



美東部地域支會 同窓會員 名簿

一、 任員名簿

任員區分	顧問	顧問	會長	副會長	總務
回数	15	15	15	29	30
姓名	金子勲	金基惠	金澄次	韓世鎬	高勝榮
電話番號	4(5718)2591	9(3718)713	5(2011)0813	9(3213)150	3(57218)9087
備考					

二、會員名錄

姓名	英文名	卒業回数	職業	電話	住所
馬鍾國	CHONG GUK MAH	8回		(303) 011-8964-157	17060 KING JAMES WAY LONDONDERRYTOWERS, #520 GAITHERSBURG, MD 20877
金基惠	KI DUK KIM	15回		(307) 188-6391-1713	144-14 38 AVE, #4C FLUSHING, N. Y. 11354
金子熙	JA HOON KIM	15回	醫師	(307) 188-3521-9439	163-64 20 AVE WHITESTONE, N. Y. 11357
金禧次	HYUNG CHA KIM	15回		(302) 115851-0813	2214 LINWOOD AVE FORT LEE, N. J. 07024
劉漢鳳	HAN BONG YOO	19回		(307) 188-7971-1048	2-16 CAPSTAN CT COLLEGE POINT, N.Y. 11356
金發英	EUI HYOEN KIM	18回		(303) 011-7521-1944	124 W. FRANKLIN ST., #413 BALTIMORE, MD 21201
都在植	SANG HEE TOH	19回	醫師	(304) 011-6431-2598	9 EVERBLOOM DR CRANSTON, R. I. 02920
李壽永	SOO YOUNG LEE	20回		(302) 113851-9123	621 EAST MAIN ST, BERGENFIELD, N. J. 07621
韓大英	DAE SOOK HAHN	20回	醫師	(303) 513631-3000	STATION A OGDENBURG, N. Y. 13669-2291

孫俊得	200回	醫師	(800) 808-941-6567	1644-A KALAKANA AVE HONOLULU, HAWAI 96826
金泳鍾	200回	醫師	(800) 401-944-3319	148 BRETTONWOODS DR CRANSTON, R. I., 02920
金時蔭	210回	醫師	(800) 201-755-5412	95 ACORN RD WATCHUNG, N. J. 07060
文相駿	222回	醫師	(800) 201-947-0116	1600 CENTER AVE, #11G FORT LEE, N.J. 07024
玄鳳學	233回	醫師	(800) 188-423-8678	2650 PINEVIEW W. BLOOMFIELD, MI. 48033
金應浩	244回	醫師	(800) 404-437-0493	58-30 E. HAMPTON BLVD BAYSIDE, N.Y. 11364
劉秉千	255回	醫師	(800) 309-685-3219	247 CAMELOT DR MORGANTON, NC 28655
金秉萬	299回	醫師		3008 N. UNIVERSITY AVE PEORIA, ILL. 61604
李仕衡	299回	醫師		
權鎮城	299回	醫師		

金澤賢	TAIK CHAE KIM	26回	總務	(80)804-971-8060	2518 SMITHFIELD RD CHARLOTTSVILLE, VA 22901
吳炳憲	BYUNG HUN OH	26回	總務	(80)201-260-0517	115 VERMONTCT. EAST MATAWAN, N.J. 07747
孫勝鳳		26回			
曹圭榮	KYU YUNG CHO	27回	事業	(80)703-360-3432	8317 CHERRY VALLEY LANE ALEXANDRIA, VA 22309
李英得	YOUNG DUK LEE	28回	會社員	(80)516-2261-5117	5 KETCHAM CT E. NORTHPORT, N.Y. 11731
尹允燮	YUN SUP YOON	28回		(80)818-688-6038	6438 HAZELTINE, #5 VAN NUYS, CA 91401
朴浩萬	HO SURL PARK	29回	事業	(80)301-2244-1111	15 OAKRIDGE CT. TIMONIMUM, MD 21093
韓世鎭	SE HO HAN	29回	總務	(80)212-633-5190	2960 GRAND CONCOURSE, #4B BRONX, N.Y. 10458
徐尙郁	SAMUEL SEO	29回	總務	(80)215-542-8392	1211 HAWTHORNE LANE FORT WASHINGTON, PA 19034
金和碩	ABRAHAM KIM	29回	事業	(80)516-365-7487	29 DUKE DR NEW HYDE PARK, N.Y. 11040
金弘杓	HONG PYO KIM	29回	事業	(80)718-426-6643	41-42 ELBERTSONST. #411 ELMHURST, N.Y. 11373

金鳳舜	BONG SOON KIM	26回	專業	(907-18-592-5216	55-25 98 PLACE, #3L CORONA, N.Y. 11368
李權燮	KWON SUP LEE	26回	專業	(907-18-352-7060	206-14 EMILY RD, BAYSIDE, N.Y. 11360
金雄植	UNG SIK KIM	26回	經理	(909-4-457-2079	5288 ROCKPORT ST. COLUMBUS, OHIO 43220.
金在植	ZAE ZEUNG KIM	26回	總經理	(904-4-692-3910	4521 N. WILDWOOD AVE MILWAUKEE, WIS. 53211
李培石	BAE SUK LEE	26回	經理	(909-4-373-9294	407 BOHL DR, MARIETTA, OHIO 45750
李通燦	TONG HOON LEE	26回	經理	(909-6-894-4310	3324 QUARRY DR, FAYETTEVILLE, NC 28303
金淳郁	SUN WUK KIM	26回	經理	(907-4-840-9483	4221 HUMBOLDT DR. HUNTWGTON BEACH, CA 92649
李芳秀	BANG SOO LEE	26回	專業	(909-3-939-7057	708 S. LORRAINE BLVD LOSANGELES, CA 90005
朴永鎬	YOUNG HO PARK	30回	經理	(90201-647-5777	7 QUILL PENWAY WARREN, N.J. 07060
高勝榮	SEUNG YUNG KOH	30回	專業	(907-8-352-6007	13-11 MICHAEL CT. BAYSIDE, N.Y. 11360
申泰熙	SAMVEL H. SHINN	30回	牧師	(902-13-694-2179	BETHANY UNITED PRESBYTERIAN CHURCH 1629 GRIFFITH PARK BLVD. L.A. CA 90026

金庚台	KYONG TAI KIM	30回	醫師	(902) 5-947-4652	3651 HEATON RD HUNTINGDON VALLEY, PA 19006
曹秉均	BYOUNG GYUN CHOH	30回	醫師	(902) 6-524-9635	6967 CAROL DR INDEPENDENCE OHIO 44131
李仁根	IN KUN LEE	30回	事業	(906) 6-888-2488	327 REEVES AVE TRENTON, N.J. 08610
李性伯		30回		(907) 03-560-4132	2913 DOVER LANE, #203 FULLS CHURCH, VA 22042
韓萬燮	MAN SOP HAHN	30回	工師	(902) 6-641-5739	12904 S.E. 45 THLANE BELLEVUE, WA 98006
趙哲	CHOL CHO	30回		(903) 2-588-1177	6010 N. LAWNDALE AVE CHICAGO, ILL. 60659
金恭根	KONG KEUN KIM	30回	醫師	(902) 6-248-0581	6377 WOODBURY DR SOLON, OHIO 44139
黃載鎮		31回		(906) 4-472-2753	15 PENN BLVD SCARSDALE, N.Y. 10583
徐甲敬	KAP KYUNG SEO	31回	教授	(908) 8-373-9485	76 WAILUPE CIRCLE HONOLULU, HAWAI 96821
朴炳元	BEN WAMIN PARK	31回	醫師	(904) 3-567-9317	38 CHURCHILL DR LONGMEADOW, MA 01106
崔昌松	CHANG SONG CHOI	33回	醫師	(902) 3-677-8363	15 COPPER BEACH FARMINGTON, CONN 06032

作故者名簿

2 回 (舊制)

金文憲

金明學

金化燮

金禮鎬

尹相德

盧炳瑚

林在苑

韓國溥

朴海龍

3 回 (舊制)

韓澤柱

李範海

李之鎬

李英一

4 回 (舊制)

朱幹欽

5 回 (舊制)

韓昌源

朴重剛

6 回 (舊制)

韓參淵

6 回 (新制)

崔榮根

7 回 (舊制)

韓祐容

咸興基

李載昆

韓祐容

崔馨

朴興陽

7 回 (新制)

韓道淑

韓鎮億

8 回 (以下新制)

金昌洙

金瀆鉉

崔正憲

張錫林

張永相

(舊興萬)

崔在緯

崔浩英

盧鐘九

朱德淳

劉載昊

9 回

金基漸

金信遠

李鎬亨

朱洛瓚

10 回

金應錫

金義昌

金昌善

張 鄭 尹 李 李 李 宋 方 朴 朴 盧 南 金 金 金
鉉 致 明 應 東 炳 義 亨 用 文 忠 鳳 致 明 永
稷 鎔 海 麟 洙 逸 鋪 鍊 善 燦 吉 淳 源 鎮 鎮

11
回

吳 朴 宋
昌 義 相
淑 鉉 益

韓 韓 朱 張 李 安 文 金 姜
鐘 吉 仁 潤 壽 天 教 龍
韶 鎬 葉 奉 生 吉 洙 寅 彬

13
回

朱 朱 金
元 之 鋪
鎬 鎬 千

12
回

韓 韓 趙
湖 明 容
石 玟 昊

韓 申 泰
秉 明 承
子 燮 國

16
回

李 李 韓 趙 金 李 李 李 李 李 李 李 金
日 寬 麟 來 信 永 容 成 祖 弘 求 永 道
赫 英 植 春 德 秘 成 洙 甲 均 翰 昊 俊

15
回

金 金
基 教
壁 吉

23
回

張 韓 韓 朱 朱 全 申 朴 李 李 金 金 金
榮 讚 秉 鐘 榴 銘 衡 聖 舜 權 鏡 載 亨
國 植 濠 喆 鎮 鶴 均 換 益 洙 換 璉 信

22
回

柳 金
培 昇
殷 奎

趙 金 李 朴 盧 金
在 鉉 基 文 永 鐘
龍 五 赫 卿 達 鳳

24
回

崔 崔 崔 李 李 尹 徐 金 金 金 金 金
熙 儀 相 廷 仁 士 載 佐 泳 桑 東 南
澤 憲 國 輯 勳 榮 卿 謙 杰 根 炫 鶴

李 申 金
學 南 熙
守 均 燦

26
回

洪 朱 奏 朴 文
相 桓 炳 承
瑜 斗 洛 威 虎

25
回

玄 洪 韓 韓 崔
斗 鉉 永 錫 裕
映 基 根 武 憲

金 金 金
鎮 潤 秉
鎬 鎬 熙

29
回

劉 宋 邊 朴 金 金 金
大 守 道 吉 鎔 泳 教
植 根 燁 淵 九 八 一

28
回

韓 玄 韓
栽 鳳 鐸
永 燕 聲

27
回

鄭 張 李 朴 朴 金 金 金 高
時 始 壽 寬 英 泳 昊
俊 珍 鐘 哲 淵 植 根 夏 式

30
回

卍 韓 韓 張 李 李 楊 安 辛 文
号 祥 祥 炳 楨 東 仁 永 基 杓
亓 喆 珏 九 得 哲 道 吉 壽 周

盧 金 韓 弼 林 李 高
敬 玉 泳 珠 鳳 弘 義
鎮 金 運 光 來 根 哲

31
回

張 金 崔 金 金 崔 盧 韓 陳 趙
亨 永 斗 基 聖 昌 甲 增 國 弘
龍 善 吉 男 治 杰 炳 鎬 永 汀

합 박
병 근
함 수

33
回

韓 韓 朱 張 元 申 朴 金 金 金
鳳 均 相 世 成 泰 成 萬 泰 健
林 翊 琴 勳 基 均 大 集 善 식

32
回

※※※※※
參考資料
※※※※※※※※※※※※※※※

一九四〇年(昭和十五年)號 校友會誌所載

卒業生名簿



校友會誌

號年五十和昭 · 祝奉年〇〇六二元紀

(1940年)

校學中立公南咸

生徒歌

五十嵐高之作歌

一 朝に仰ぐ盤龍の

山に輝く朝日かげ

緑常盤の松に映え

眺めゆかしき仙嶺は

皇國ミコクニシムルの表象かぐはしく

我等が理想示すなり

二 夕に臨む城川の

流れ豊かに際涯ヘテシなく

清濁共に併せ呑む

不測の偉跡に先覺の

尊き努力思ふとき

北斗の星はかどやけり

三 如何なる試練寒熱も

うけて鍛えしこの胸に

智徳體の三育を

磨く興亞の若人が

高くかゝげしペンと劍

我等が前途に光明あり

校歌

麻生磯次 作歌

東の方見はるかす

海原遠く明けそめて

朝の陽光はなやかに

希望の光みなぎりぬ

そがひに仰ぐ盤龍の

山嶽永久に鎮もりて

ゆかしき委雪に映え

松に千歳の榮あり

流れも清き君子河

み空の星は影やどし

黙示の囁うるませて

尊き使命語るなり

松雪の旗なびくもと

集へる健兒意氣高く

恩恵にこたへ誠意もて

學びの業につとめばや



卒業生名簿

◎大正八年三月第一回 (舊制) () / 中へ七級學校師範科

ヲ省ケ

姓名	本籍(府郡名)	職業	現住所	等
崔寧燮	京畿・漣川	死亡(京城醫專)		
郭應鏞	新興	咸興府廳		
韓秉道	咸興	黃金町一丁目 大喪劇場主任		
郭泰鐘	咸興	咸興府廳		
李興燮	咸興	府內黃金町金星商會		
全和鍾	咸興	咸州郡州北面富民里 實業(州北面長)		
韓南鎮	咸興	定平郡失伊面雲峰里 實業		
魏秀鳳	咸興	咸南道廳學務課		
尹相訓	咸興	死亡		
金屹衍	咸興	西湖津鵲島里三榮商會		
金泰稷	咸興	咸州郡雲南面保古里 實業		
朴植淵	咸興	大興商業學院		
俞履奎	咸興	死亡		
李東準	咸興	朝鮮商銀(東京帝大)在咸興		
楊炯健	咸興	府內黃金町一丁目		
金鍾澤	咸興	府內黃金町二丁目(法政大學)		
都寬浩	咸興	府內黃金町四丁目 文士城川町一丁目 太成社氣付		

卒業生名簿

◎大正九年三月第二回 (舊制)

韓長鎬	咸興	元山府
朴台二	咸興	永興郡橫川山城小學校
金台欽	咸興	自宅、農業
薛有珪	咸興	元安邊郡安道面私立安興學校
金謙炫	咸興	新里小學校(江原)
朱鍾惠	咸興	高原郡廳
李鎮英	咸興	府內沙浦里一〇九番地 實業
姜龍燮	咸興	府內龍山醫院長 醫師(岡山醫大)
姜化燮	咸興	不明
全治周	咸興	滿洲國教員
韓麟燦	咸興	不明
金明學	咸興	府內金明學病院長 醫學博士道會議
金良瑕	咸興	在新京(東京帝大工科)
韓國溥	咸興	本道地方課
李錫周	咸興	殖産行員(明治大學)
姜炳瓚	咸興	咸州郡三平面(京城工業專門)
朴起福	咸興	大和町三丁目六〇 書店經營(文耕堂)
林在苑	咸興	長津郡下碓公驗(京城醫專)
尹相德	咸興	元山海星小學校
金禮鎬	咸興	清津
韓九錫	咸興	下岐川鳳尚學校
徐丙肅	咸興	端川小學校
李益洙	咸興	永興產業組合

卒業生名簿

盧炳瑚 咸興 府内城川町 實業(京城高工)
 李材榮 永興 死亡(京城醫專)
 朱洛璉 咸州 長津東下小學校
 朴海龍 咸興 退誠靜養中(京城高工)
 金英俊 咸興 雲南面營堡里
 李圭益 咸平 新興鐵道株式會社本社府内本町三ノ三
 金文憲 咸州 甲山雲興小學校
 文泰洙 咸州 城川町(丁目七ノ一)(京大)咸興府會議員、實業
 韓熙文 咸州 遮湖小學校
 韓炳鳳 咸州 死亡
 韓熙心 咸州 咸州郡東川面鷹峯里

◎大正十年三月第三回

金晚熙 咸州 府内濟東醫院長 醫師(熊本醫大)
 姜炳鈺 咸北 興南警察署(京都市大)
 韓商鏞 咸州 高原郡廳
 李範海 咸興 新浦小學校
 李之鎬 咸平 啓東小學校
 韓澤柱 咸定 定平郡水組理事
 李鍾箕 咸州 咸州郡三平面長
 李永熙 咸州 元山山祭洞七二
 黃珪台 咸州 死亡(京城法專)
 韓炯宜 咸州 在川原 果樹園經營
 全在鳳 咸州 死亡
 李秀億 咸州 死亡(京城法專)

韓華淵 咸州 麗峰簡易學校
 文昌洙 咸興 死亡
 都逢涉 咸州 京城藥學專門學校教授(東京帝大)
 李濤壁 咸州 館興小學校
 趙大河 咸津 京城府齊洞町八四ノ二三 實業
 韓炳轍 咸州 咸州郡州西面上九里 實業
 韓極洙 咸州 本町大森商會
 金極洙 咸原 洪原郡龍雲面自宅(名古屋醫大)
 李英一 咸江原・春川 京城府清涼里農場 畜家
 李奎昌 咸州 退潮小學校
 韓秉晉 咸州 江原道小學校教員
 李熙敬 咸州 死亡(東洋大學)
 金舜熙 咸州 (京城)

◎大正十一年三月第四回

元孝燮 咸平 文川公醫(大邱醫專)
 宋幹欽 咸興 平壤府門外里 辯護士(京城法專)
 韓霖鎬 咸興 咸南道廳
 朴重遜 咸州 永興橫川小學校
 劉寅壽 咸興 已梅小學校(全北)
 金聲鉞 咸平 定平水利組合
 朴貞赫 咸北・慶源 咸北・雉基邑
 沈相哲 咸川 元山第一小學校
 都基燦 咸州 元山海岸通 商業(京城普成專門)
 李壽梅 咸州 死亡(京城法專)

卒業生名簿

李 憲 迪	成 州	參禮小學校(全北)	朴 義 鎮	成 州	自宅
馬 極 駿	成北・城津	(京城法專)	韓 炳 朝	成 州	住會小學校
金 奎 澄	成 州	不明	申 榮 吉	成 州	成興錦町小學校
尹 範 模	德 源	北青第一小學校	韓 桓 慶	北 州	教員
李 鍾 吉	北 青	雲興小學校	金 鼎 萬	成 州	五老里公醫(平壤醫專)
韓 在 夏	成 州	古乾原小學校(成北)	金 裁 鼎	成 州	成興府內 商業
金 梓 基	成 州	西湖渚自宅	金 秉 華	永 興	死亡
李 在 利	成 興	下車書小學校	子 壽 欽 風	成 州	本宮小學校
朴 鳳 俊	忠南・洪城	不明	韓 冀 淑	成 州	三水小學校
韓 昌 鎬	成 州	小學校教員	李 夏 英	成 州	死亡
朴 元 三	成 州	府內住吉町 辯護士(日本大學)	韓 昌 源	永 興	死亡
洪 冕 植	德 源	成州郡廳	全 旭	成 州	死亡
玄 源 益	成 州	寅席小學校(成北)	韓 估 淵	成 州	死亡
趙 弘 璇	利 原	寫眞師	李 延 浩	江原・通川	北青小學校
李 冕 熙	成 州	三水自西小學校	韓 鼎 八	成 州	果樹園經營
金 鉉 富	高 原	雄基小學校(成北)	金 壽 祐	成 州	城川町大成社(日本大學)
金 秉 汝	定 平	州西面上里自宅	朴 一 烈	成 州	吉州小學校(成北)
金 相 鳳	成 興	府內城川町 實業(法政大學)	李 泰 均	成 州	死亡
韓 觀 淑	成 州	普天堡小學校	崔 柄 憲	成 州	高原小學校
金 泰 均	成 興	端川小學校	李 德 在	文 川	死亡
韓 東 淵	定 平	自宅(東北帝大)	李 弘 相	長 津	長津郡廳
韓 鍾 詢	定 平	地境小學校	韓 文 治	成 州	北青小學校
林 炳 詰	平南・寧遠	自宅	朱 植 鏞	成 州	死亡
韓 彪 鎮	成 州	自宅			

◎大正十二年三月第五回 (舊制)

卒業生名簿

崔國弼	咸州	葛麻小學校	宋昌根	江原·淮陽	長陽小學校(江原)
李昌鍾	咸州	死亡	金宗奎	永興	漢洞小學校(京城)
李英淳	永興	下朝陽小學校	朴乙乘	咸州	洪原小學校
魯基永	永興	死亡	韓甲淵	咸州	在全南
韓上斗	咸州	死亡	許吉錄	咸北·吉州	朱乙小學校(咸北)
韓錫五	咸興	京城朝鮮商業銀行(法政大學)	徐斗淵	咸北·吉州	在全南 銀行員
朴亮謙	咸州	永興郡廳	崔淳弼	新興	死亡
朴熙斌	咸州	茂山稅務署	安基直	安邊	教員
全永履	永興	實業	金東燮	咸州	黃金町小學校
朱基鵬	咸州	洪原小學校	朴榮根	咸北·鎮城	京城延禧町(東京音樂學校)
韓秀九	咸州	死亡	姜龍洙	江原·高城	五湖小學校(江原)
金容亨	咸州	馳馬臺小學校	金秉運	長津	清雲小學校(京城)
朴瑄烈	咸州	咸州郡朝陽面事務所	元敦鎮	咸州	木浦小學校(全南)
朴重剛	咸州	(京城)竹添小學校(體操學校)	韓重松	新興	宜寧小學校(慶南)
梁舜	咸州	平壤城南小學校	趙永斗	咸興	府內 自宅 實業
黃孝孫	永興	九州醫大實習中(平壤醫學專門學校)	韓重淵	咸州	北青女子小學校
金庚閔	永興	永興邑自宅	金鶴俊	咸州	東川附設簡勿學校
吳正根	咸北·鍾城	興南室業會社	金植龜	咸興	商業
李洪錫	咸州	元山第二小學校	韓琮淵	咸州	西下公立小學校(慶南)
◎大正十三年三月第六回 (舊制)					
池榮紡	北青	元山銘石小學校	魏在鶴	咸州	三水小學校
文錫泰	咸州	京城自宅京城鮮一紙物商會(京城法專)	洪義璣	咸州	龍源小學校
蔡相源	咸州	馬山小學校	朱正堡	咸州	自宅
梁二德	咸北·吉州	清津小學校	李日燮	咸州	釜山寶水町一ノ一五
韓熙日	咸州	死亡	韓熙日	咸州	死亡

嚴基澤 平南・寧遠 新城小學校(平南)
 馬得南 咸北・吉州 鶴南小學校(咸北)
 李洪淑 定平 光州小學校
 韓參瀾 咸州 京城蓬萊小學校
 金揆容 定平 (日本大學)
 趙道允 文川 本道林業試驗場
 元河鉉 咸州 自宅
 陸恒永 咸北・吉州 吉州郡廳
 都永燦 咸州 川原小學校
 廉快錫 咸州 利原協成學校
 李鎬班 安邊 不明
 ◎大正十四年三月第七回 (舊制)
 韓植烈 咸州 自宅
 尹澤能 安邊 死亡
 趙啓聖 永興 仁川府(京城醫專)
 金源源 德源 慶北好仁小學校
 金承海 文川 死亡
 李永芳 永興 清津無盡會社
 李世元 平南・寧遠 西古川小學校
 林壁策 府內 居昌小學校(慶南)
 宋瑞永 永興 全義小學校(全北)
 朱朝欽 永興 京城和信本店
 朴載寬 文川 元山海星小學校
 李載錫 咸州 漁大津署警部

朴興陽 咸州 倭館小學校(慶南)
 丁寬植 三水 元山銘石小學校
 韓斗瀚 定平 定平東小學校
 韓永豐 定平 死亡
 韓斗南 定平 義興小學校(慶北)
 韓復南 定平 珍良小學校
 崔炳島 永興 永興鎮坪面事務所
 蔡洙崗 咸北・慶源 藍浦小學校
 金海德 咸州 死亡
 咸興基 江原・高城 定平高山小學校
 全利漢 咸州 下南小學校(慶南)
 高賢執 咸州 安東小學校(慶北)
 韓祐容 咸州 甲山保新小學校
 金箕鎬 咸州 北青上車小學校
 金炳南 永興 府內新興町小學校
 全德三 江原・平康 不明
 ◎大正十二年三月 (第一回新制以下同様) (註五回)
 金桂淑 洪原 東大研究科
 徐舜赫 咸興 新興郡廳(九州帝大)
 (九大)
 朱洙英 咸州 咸州郡退潮面 實業(京城醫專)
 張一龍 咸州 羅南殖銀支店(京郡帝大)
 安鎬烈 咸州 清津地方法院
 金明哲 咸州 實業(京城高商)
 李善浩 咸州

卒業生名簿

卒業生名簿

韓鴻靈 咸州 府内 實業

◎大正十三年三月(第二回)(註六回)

洪壽峰 咸川 咸興府 醫師(京城帝大)
 死亡(水原高農)
 金鍾彬 咸興 平壤鐵道工務所(京城高工)
 李鳳寅 咸州 咸興府(京城帝大) 明川郡廳(咸北)
 金冕材 咸州 咸興府(京城帝大) 大醫科醫學博士(姜內科醫院)
 姜洙楠 咸興 延禧專門教授(明治大學)
 朴孝參 咸興 死亡(京城高工)
 朴二龍 咸北・吉州 吉州公醫(京城醫專)
 李鍾奎 咸北・吉州 咸鏡北道廳(京城帝大法科)
 尹鍾瓏 咸興 在東京、文士(東京高師)
 韓植 咸州 (東京高師)本校
 惠山鎮稅務署
 姜龍相 咸興 咸州郡森林主事補
 韓錫周 咸州 利原公醫(平壤醫專)
 楊觀燮 咸州 興南邑内(東京農大)
 崔榮杞 咸興 咸興府廳
 朱源 咸州 府内山手町(水原高農)
 金聲遠 咸州 蓬萊小學校(京畿)
 金瑞澗 咸北・明川 定平郡廣德面文昌里 實業
 宋仁植 咸北 死亡
 全榮房 咸北 德源小學校
 宋寅赫 咸北 江原道通川郡自宅 實業

◎大正十四年三月(第三回)(註七回)

朴瑤 咸川 咸興府 城津殖産銀行
 崔容達 咸北・襄陽 普成專門教授(京城帝大)
 定平邑内
 韓芝鎔 咸北・慶興 滿洲國民政部拓政司(京都帝大)
 金宅源 咸北・慶興 本府警務局圖書課(京城帝大)
 李秀千 咸州 本宮小學校
 韓炯輅 咸州 死亡(京城高工)
 梁大德 咸北・吉州 咸北吉州郡廳
 鶯坂東 咸北・吉州 府内本町二丁目實商
 韓通淑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康萬福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姜錫勳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李鍾勳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沈鍾勳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金弘植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千賀史郎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金貞植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李稚允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李錫燮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申泰權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玄基永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金世煥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金濟鷗 咸北・咸州 咸北・咸州 咸北・咸州

金世偉 咸北・咸津 不明 東山醫院(元山)
 李相基 咸興 死亡
 劉國烈 北青 死亡
 宋源植 咸興 西湖津濟衆醫院(平壤醫專)
 朴炳驥 新興 新興郡元平面長下里 實業
 府內本町
 金東運 咸興 永興郡屬
 任龜鎬 新興 不明
 張鳳熙 江原・高城 咸鏡南道治水事務所
 韓鎮億 咸州 永興郡屬
 金元鎬 永興 利原西面自宅
 金得相 利原 退潮漁業組合
 朴勝赫 永興 興南製鍊所
 姜澤洪 利原 咸北吉州郡屬
 梁承烈 咸北・吉州 (明大卒業)
 金浩京 甲山 蔚陵島小學校
 金泰鉉 文川 咸興錦町小學校
 李東一 永興 滿洲國間島龍井 實業
 趙春化 咸北・咸津 (日本大學)
 洪文杓 江原・江陵 洪原郡龍源面新湖里 實業
 徐孝源 洪原 咸興商業株式會社
 張棟源 咸興 死亡
 金誠伯 咸興 咸州郡上朝陽面上間里 實業
 朴鳳憲 咸州

崔在韓 咸州 京城帝大醫學部泌尿科 醫學博士(京城帝大)
 金斗寬 咸興 新架坡公立小學校
 滿洲國
 朴英甫 咸州 本府鎮山課
 崔浩英 咸興 在京城 辯護士見習合格(京城法政)
 元斗瀾 咸平 清津浦項洞白山商會
 金昌洙 咸北・鏡城 黃金町二丁目
 文錫九 咸興 京都帝大理學科研究室
 馬鍾國 咸北・吉州 蕙山鎮白頭寫眞館
 劉載昊 咸北 滿洲國牡丹江檢察廳
 李鐵浩 咸興 北青稅務署
 金鍾律 豐山 死亡
 張鳳俊 江原・高城 北青警察署
 金有烈 咸平 教員
 李興燁 文川 元山漁業組合
 崔金鏞 洪原 咸興順天病院(京城帝大醫科)
 崔正憲 咸州 本町一丁目
 高秉植 咸興 沛東金融組合
 白南豹 咸興 咸州郡廳(水原高農)
 池鏞夏 咸興 定平郡廳
 朱洛璋 咸州 新興面事務所
 李丙植 咸興 咸興地方法院前司法書士
 朴壽福 咸興 元山稅務署(京城法政)
 朱德淳 咸州

卒業生名簿
 ◎大正十五年三月(第四回)(註八回)

卒業生名簿

全永守	江原・襄陽	本籍自宅
金榮成	咸興	府内樂民町
李秉璿	咸州	西湖面事務所
金龍涉	甲山	新芝坡金融組合(早稻田大學)
李世亨	咸平	死亡
權興周	咸興	府内大和町松嶋屋
安錫勳	咸平	死亡
申喚均	咸興	新興小學校
尹大鶴	咸興	黃金町一丁目北鮮商會
朴在極	咸北	在滿洲國
金溶鉉	咸北	西湖津水産會社
金仁燮	咸州	京城朝鮮製菓會社(京城藥專)
張興萬	江原・高城	三陟郡廳
李城璿	德源	不明
鄭福東	江原・伊川	伊川新聞支局
韓琦榮	江原・伊川	自宅
盧鍾九	咸州	端川郡廳
朴仁根	江原・襄陽	自宅
金鍾猷	咸北・咸津	咸北吉州郡雄平面龍川洞 實業
馬鍾範	咸北・吉州	仁溪小學校(咸北)
李承大	咸平	文川郡廳
李求意	咸北	不明
盧弘七	咸北	惠山鎮邑事務所
蔣景鎔	咸北	醫師

◎昭和二年三月(第五回)註九回世

李吉洛	咸州	新興小學校
金國翰	咸北・咸津	咸北・咸津 城津郡廳(咸北)
安鎬七	咸州	府内樂町農信社
金庚軾	咸興	永興郡德興面鶴洞里自宅
馬東洙	咸北・咸津	不明
金泰鎮	咸州	警官
姜馬德	咸興	府内黃金町二丁目
金敦蘭	咸興	殖産銀行(元山)(明大)
張錫林	咸興	新興金融組合(早大)
金昌鶴	咸北・吉州	自宅
洪成祚	咸北・吉州	惠山鎮 實業
咸泰元	江原・高城	全南醫師(城大醫科)
金熙德	咸興	總督府(城大法科)
朴時鎔	江原・通川	江原通川金融組合
嚴基鍊	咸原	新興金融組合副理事
崔容遠	江原・襄陽	大邱海星小學校
元鍾律	咸平	死亡
朱翼淳	咸州	大阪朱翼淳醫院(京城醫專)
崔光模	咸州	興南邑九龍里 實業(商)
金昶植	咸興	咸興黃金小學校
咸璿澄	咸興	元山銘石小學校
碑鳳煥	咸平	自宅(京城法專)
張洪久	咸北	永興小學校

金相涉	姜眼求	姜培根	李洛模	崔景相	朴台三	韓性述	朴載斗	趙殷周	金玆敦	金載元	朱洛瓚	韓熙夏	姜顯元	朴貞據	金連熙	金基漸	朴辰錫	安靖范	柳舜鏞	金秉敏	尹應奎	安鍾浩	金信遠
端	咸	利	定	文	咸	定	文	平南・寧遠	咸	咸	咸	定	德	咸	咸	咸	北	咸	定	甲	江原・高城	定	咸
川	興	原	平	川	州	平	川	興	州	州	州	平	源	州	興	州	青	興	平	山	高城	平	州
	咸南道廳農務課	本道農務課	咸興無盡會社	定平郡春柳面禾洞里 實業	文川郡龜山面鷓浦里 實業	中等教員(東京物理學校)	自宅	死亡	釜山(京城高工)	醫學博士 哲學博士	朝鮮日報咸興支局	定平郡廣德面都興里三四九	咸鏡南道嶺土木課(日大)	東京電氣學校	京城帝大醫學部岩井內科	府內商工精米所(日大)	北青郡老德面南里 實業	府內興安藥局主(京城藥專)	咸興農業學校教諭(水原高農)	京城醫學專門學校附屬病院(京城醫專)	新高山小學校	不明	咸興叭會社
李東璵	李德生	崔昌學	姜鎬吉	金啓炯	鄭泰周	朱奎燾	劉昌學	高承晉	許在新	李述奎	李奎榮	金翼濼	趙悌媯	李容燮	金瑚在	崔蓮淑	金仁鏞	朴順根	申鉉九	林根植	黃珪逕	金裕翰	金祐洙
定	咸	咸	安	定	長	咸	永	咸	端	定	咸	咸	定	江原・江陵	咸	咸	咸	江原・襄陽	新	江原・高城	咸	利	洪
平	州	興	邊	平	津	州	興	興	川	平	州	州	平	平	興	興	州	州	興	高城	州	原	原
	豐沛書店主	死亡	安邊私立小學校	永興私立小學校	京城日報社(本社)	西湖津東小學校	永興邑內自宅	培花小學校	死亡	滿洲國鐵道勤務	咸州郡東川面自宅	永生中學校(水原高農)	(京城醫專)	通川警察署(臨南駐在所)	定平東小學校	廣泉小學校	咸興府樓ヶ丘 自宅 實業	襄陽郡廳	退潮公立小學校	死亡	咸南商業專修學校(明大)	利原郡南面知新學校	洪原郡廳

卒業生名簿

金基華 甲山

蕙山金融組合

趙啓聖 永興

仁川開業醫(京城醫專)

尹泰善 平

定平郡廳

李淳翼 咸興

府內本町 實業(商)

李義洙 咸興

定平共勵水利組合

韓相冕 咸興

死亡

李均宰 平

定平郡廳

成鳳燮 文川

興南邑事務所

徐煥九 平

定平廣德面自宅

朴升祿 咸州

洪原郡廳

李激國 咸州

咸州郡德川面新豐里 實業

柳同煥 咸平

死亡(仙台高工)

全吉鍾 平

雲興小學校

韓熙郁 咸州

死亡

李鍾浩 咸州

州北小學校

金淳業 咸州

興南邑

金周麟 咸州

德山小學校

金義昌 忠南·共餘

(京城帝大)

金榮基 咸興

實業

金鍊碩 北青

(京城高工)

黃長炫 咸平

咸北金融組合理事(明大)

韓鴻才 咸州

(神戶商大)

李鎬亨 咸興

新興郡東古面興京里 實業

岩田永弘 北青

咸州地境金融組合(普成專門)

董仲林 咸川

端川郡波通面會山里 實業

申鉉松 永興

死亡

韓秀鳳 咸州

五老里藥房

金庚驛 咸興

死亡(京城帝大)

金戴慶 咸州

府內沙浦町自宅

朴爾秀 咸北·吉州

東北帝大(醫)在學中(愛知醫大)

韓斗植 咸州

培花小學校

金應錫 咸興

醫師(京城醫專)

◎昭和三年三月(第六回)(註十回)

稻垣溶壁 咸興

慶北金泉土木事務所

申東雲 高州

死亡(京城醫專)

金斗植 咸州

精勵聯盟

金元淳 咸興

府內黃金町 實業(商)

澤田哲三 咸州

元山府自宅(京城帝大)

朴昌淑 咸州

(東京帝大)(農科)

平壤專賣局(京城法專)

精勵聯盟

吳昌淑 咸州

東萊日新女學校(早大)

金斗植 咸州

元山府自宅(京城帝大)

李孝仁 咸平

在滿洲國

平壤專賣局(京城法專)

精勵聯盟

金綿麗 咸川

定平小學校

尹冕	蔡熙	李應	李應	朱恒	遠藤	韓有	咸錫	尹鍾	李培	南相	崔周	金正	劉正	林長	安慶	韓處	權鎮	元景	宋相	朱道	朴柱	李錫	韓錫	
文源	文源	高源	高源	咸州	咸州	咸州	江原·高城	江原·通川	咸州	元山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咸州
德源郡府內面宜州里 實業	安邊水利組合書記	京城帝大文學科	江原道通川郡踏錢面玉馬里 實業	咸州郡東川面湖南里 實業	死亡	下碣警察署	江原道襄陽開業醫(京城醫專)	江原道通川郡碧莢面佳新里 實業	死亡	文川農園經營(東京帝大農)	自宅	下碣金組理事(城大法科)	自宅	死亡	利原郡南面榆津里 實業	死亡	高原開業醫(京城醫專)	咸州郡川西面新德里 實業	府內本町 實業	咸州郡州西面上里 實業	蕙山鎮營林署	新興郡永高面事務所 實業	長津郡廳	

高俊	姜明	徐康	李澤	金演	金仁	柳舜	金河	李東	崔諳	金冕	金吳	金尋	俞鎮	韓格	楊乘	高山	金相	張河	金錫	朴得	朴熙	吳錫	金源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咸平
定平郡府內面豐川里 實業	府內黃金町 實業	高原郡郡內面下洞里 實業	咸州郡三平面自宅	利原院上簡易學校	江原道通川郡通川面西里 實業	京城醫專卒業	不明	京城醫專病院小兒科(京城醫專)	咸興警察署	死亡	元山稅務署	死亡	江原道江陵郡江陵邑錦町	定平郡廣德面事務所	自宅	(美術學校師範科)	端川郡波道面上西里 實業	死亡	新高山金融組合書記	北青郡老德面東里 實業	咸州郡上朝陽面上問里 實業	高原郡山谷面德山里 實業	朝鮮商業銀行員(吉州支店)

◎昭和四年三月(第七回)(註十一回)

李一教 安邊 (京城帝大醫科)

金昌信 端川 (端川邑自宅)

(南風淳 江原・高城 (京城帝大法科))

李選甫 定平 (ロシヤ在留 安邊郡文山面東下里 實業)

金致琳 安邊 (北青郡屬(京城法專) 興南醫院開業(平壤醫專))

李在玉 北青 (北青郡屬(京城法專) 興南醫院開業(平壤醫專))

方亨鍊 北青 (北青郡新昌面滿春學校 新義州稅關(京城高等工業學校))

福田伊勢次 山形・最上 (北青郡新昌面滿春學校 長津下竭公醫(平壤醫學專門學校))

李鎬邊 北青 (定平郡宜德面文章里 實業)

魯興元 定平 (長津下竭公醫(平壤醫學專門學校) 道巡查(雲南面中保里))

金德根 安邊 (北青郡德城面西庄内里 實業)

洪淳範 咸州 (咸興中央醫院開業(平壤醫專) 在豐山 實業)

朴忠鎮 咸州 (惠山鎮營林署 (京城法專))

姜澤瑛 咸州 (新興郡下元川面興慶里 實業)

吳性根 定平 (梨陽小學校(全南) 咸南道廳高等課)

韓秉勳 咸州 (咸南道廳土木課 自宅)

金明鎮 咸州 (京城帝大附屬病院(城大醫科) 京城帝大附屬病院(城大醫科))

李裕庠 新興 (咸南道廳高等課 自宅)

梁文永 新興 (咸南道廳土木課 自宅)

許大盛 永興 (咸南道廳土木課 自宅)

趙容昊 元山 (京城帝大附屬病院(城大醫科) 京城帝大附屬病院(城大醫科))

李東洙 高原 (元山地方病院(京城法專) 死亡)

韓昇煥 咸州 (咸興府本町三丁目)

金致源 咸興 (文川郡都草面書齋里 實業)

蔡道生 咸川 (東京多摩川日活攝影所)

李炳祿 咸興 (京城專賣局)

朴用善 咸興 (永興郡鎮坪場)

全永商 咸興 (永興郡屬)

全武慶 咸興 (惠山鎮營林署)

文周斌 咸興 (牡丹江 實業)

金炯澤 咸興 (府内樂民町 實業)

安鎬萬 咸興 (咸興產業組合)

金震均 咸興 (咸興產業組合)

禹永和 咸興 (府内樂民町五八)

全相洙 咸興 (州北面岐隅里(明大))

黃桂選 咸興 (府内城川町(法政大學))

鄭致鎔 咸興 (滿洲國)

朴文燦 咸興 (甲山郡廳)

金弘振 咸興 (不明)

朱基福 咸興 (府内城川町 實業)

林炳哲 咸興 (死亡)

尹箕炳 咸興 (滿洲國)

李楠鎔 咸興 (永興ドレツチ鑛業會社)

吳錫淵 咸興 (定平實生金鑛)

李仁得 咸興 (定平實生金鑛)

宋義	鍾成	興	咸興朝鮮キータス會社	李永郁	咸州	錦町小學校
韓榮	咸州	咸南道廳	白宅 (水原高農)	李升圭	邊	咸南道廳(京城高商)
金珣	安邊	安邊郡安道面大瓦里 實業	咸南道廳稅務署	金鐘千	興	慶南密陽稅務署
盧忠	主成	府內城川町三丁目(農業大學)	五老里公立小學校	李徹	興	會電機會(京城高商)
尹明	海永	五老金鐵組(普成專門)	咸州郡下岐川面上里 實業	朱台煥	咸州	永興開業場(京城高商)
朴啓	伯成	咸州郡下岐川面上里 實業	襄陽郡廳	金山德淑	興	利原郡廳
張錫	烈成	襄陽郡廳	仁山小學校	趙英球	興	府內共立醫院(セプランス醫專)
李孝	德定	仁山小學校	洛東江驛前間組出張所	李夏均	興	物理學校在學
清水	敬祐	三水	在沙浦里(府內沙浦里)	金浩環	咸興	文川郡 龜面石田里 實業
韓炳	龜成	州	衆議院議事堂	朱元鎬	咸州	醫師(九州醫專)
金植	變成	興	州西幼稚園	永島田博	川	利原金組書記
金永	鎮成	州	滿洲國	崔東閔	川	高原小學校
朴源	誠成	興	咸興刑務所看守	金廷學	文川	府內黃金町 實業
金基	變成	州	元山府龍洞七九 實業	姜錫熙	咸興	永興會書記
李允	貞元	州	咸州郡岐谷面與西里 實業	金炳堃	咸興	咸州郡川西面事務所
金永	萬成	州	咸州郡州西面事務所	文駟憲	咸州	咸州郡朱地面事務所
洪禹	均成	州	江原道高城郡杆城面東湖里 實業	金豫淵	咸州	北青郡陽化里 實業
黃昌	甲成	州	咸州郡上岐川面五老里 實業	李台永	咸州	慶南咸陽郡廳(京城高工)
黃鳴	鎔成	州	死亡	韓重珪	咸州	元山警察署
李應	麟高	州	元山府內 商業	朱炳燾	咸州	元山刑務所看守
金義	澤定	州	定平鑛業	金元錫	咸州	

◎昭和五年八月(第八回)註十二回記

三湖水産組合

卒業生名簿

卒業生名簿

金得鍊 咸 興

金炯軫 黄海・戴寧 (明大)

金基政 咸 興

◎昭和六年三月 第九回 (註十三回)迄

金敬聖 咸 興

增田 虎一 長崎・壱岐

金聲周 咸 興

韓鍾韶 定 平

李有錫 北 青

黃炳喆 咸 興

崔弼燾 咸 州

楊宗奕 利 原

崔大雄 北 青

黃東駿 永 興

文希樂 咸 州

林炳和 咸 興

韓胤洙 京畿・楊州

朴景鎬 咸 州

原尻 尙雄 大分・大野

姜龍彬 定 平

蔡奎彬 咸 興

張錫淳 咸 州

洪完杓 德 源

金鼎彬 咸 興

樞斗煥 文 川

李在松 新 興

梁奎煥 北 青

文鼎鈺 咸 興

申鉉澤 咸 州

吳信煥 咸 興

李禹觀 咸 州

文天洙 咸 興

文聖洙 咸 興

李潤生 咸 州

全熙鳳 北 青

崔順澤 咸 州

李曙燮 咸 州

李壽孫 咸 興

石智根 咸 興

柳義培 安 遼

張明泰 咸 興

黃致根 江原・高城

金榮寅 定 平

金致寅 咸 興

京城和信商會
 沙浦町 自宅(明大)實業
 公州地方法院(京城法專)
 咸南道廳
 咸州郡北面雙松里 實業
 蒙羅銀行
 自西公立小學校
 藥劑師(京城藥專)
 軍營通佐沼寫真館
 住吉町二 實業
 元山電氣會社
 秀峙小學校
 死亡
 咸興府(北京大學)
 咸州郡上岐川面中上里 實業
 咸興府廳土木課
 北青郡楊川面中里 實業
 咸南道廳
 咸州郡東川面豐洞果樹園經營
 死亡
 甲山銅店小學校
 新興郡廳
 咸州郡廳

長崎・壱岐 興南龍城小學校
 甲山郡鳳頭小學校
 大和町 黃恒植方(京城法專)會社重役
 北青金融組合
 北青郡廳(京城法專)高文行政合格
 府內黃金町 實業(商)
 五老小學校
 端川郡廳(普成專門)
 清山郡廳(慶南)
 (上智大學)
 文川城東小學校
 京城土木出張所(武藏高工)
 於甲山實業
 清津 醫師(大邱醫專)
 咸州郡廳
 平北寧邊道立醫院外科(平壤醫專)
 滿洲國
 死亡
 泉田金融組合(江原)
 私立興文學校在勤 府內馳馬町八八一
 咸州郡興南邑事務所
 虎島簡易學校

卒業生名簿

申 錦	朴 在	李 錫	朱 鍾	秦 秉	韓 泰	金 兢	韓 植	洪 哲	李 英	金 重	李 壯	鄭 軫	柳 榮	李 鍾	卓 會	金 範	朱 鐘	李 璠	李 京	蔡 永	張 仁	韓 炳	魯 炳
澈	權	祚	鳳	張	運	濟	武	義	植	仁	淑	錫	俊	淳	壁	禹	龜	煥	鳳	福	奉	燾	文
安	咸	咸	定	定	定	咸	咸	咸	咸	北	新	新	咸	利	永	定	定	洪	洪	咸	北	定	定
邊	州	州	平	平	平	興	州	州	興	青	興	興	州	原	興	平	平	原	原	興	青	平	平
安邊郡鶴城面東南里	在清津	高原森林保護區	在鐵原	咸興刑務所看守	定平私立綿湖學校	清津警察署勤務巡查	利原小學校	新興間組社員	大和町利昌洋行	死亡	新興郡東古川面興京里	北青稅務署	不明	旺場金融組合書記	永興郡虎島面松濱里	定平郡廣德面中興里	定平郡宜德面倉里	死亡	甲山小學校	咸南道廳(早大)	本道產業課	楊川小學校	死亡
實業																實業							

崔 申	朱 霧	金 教	金 熙	李 應	李 永	高 敬	韓 鎰	金 榮	張 洪	金 鳳	韓 麟	李 植	李 冕	韓 植	朱 燁	李 大	李 洧	韓 海	韓 吉	李 善	金 峻	金 東	
鳳	鎬	鍊	得	永	成	一	熙	起	斗	郁	吉	健	浩	允	燁	林	鍾	重	鎬	揆	宋	奎	
洪	咸	北	咸	定	成	成	洪	咸	北	成	成	北	咸	咸	咸	咸	咸	咸	咸	元	定	定	
原	州	青	興	平	興	州	原	州	青	州	興	青	州	州	興	興	興	州	州	山	平	平	
死亡	自宅	北青郡廳	朝鮮工産株式會社	順寧小學校	府內新興町小學校	定平九星	咸城金融組合	死亡	(日本大學)	死亡	東川小學校	滿鐵羅南醫院內科(京城醫專)	咸州郡廳	上元川小學校	咸州郡廳	北青 實業	咸南商業專修學校(美術學校)	死亡	咸興水利組合書記	咸州郡州西面書記	元山府上里一洞 實業(商)	咸興刑務所	府內 實業

◎昭和七年三月 (第十四回)

李璣 鍾定 咸興 尹浩 朱璣 韓島 金榮 洪星 朱洙 李炫 趙學 李昌 金性 俞孝 廉禮 韓熙 李植 盧炳 許錫 朴浩 李熙 李鳳 楊性 盧炳 金有 金敦 善成

咸州郡州西面上九里一一五
咸南道廳畜産課
府内城川町金組書記
咸興金融組合
自宅
慶應大學豫科
咸南道廳(中大)
咸興稅務署
興南道巡查
死亡
咸南道廳會計課
端川郡廳
咸州郡東川面書記
新南小學校
京城醫惠病院
京城田邊元三郎商店(京城藥專)
慶南統營郡統營小學校
(セフランズ醫專)
咸州郡西退潮面龍興里 實業
金組書記
雲南面永俗里
咸州郡州西面西上里
(明治大學)

黃德 文川 文川郡龜山面事務所
尹鍾 咸興 咸南道廳
姜仁 咸州 道巡查(永興郡)
朴憲 咸州 滿洲國稅務官吏
李宇 咸興 新興郡元平面西上里 實業
朴長 咸興 自宅
金灝 咸州 元山稅務署
安鎔 咸興 黃金町、和田商店出張所
宋文 咸興 鐵山講習所卒業
李植 咸州 興南邑事務所
柳良 咸興 百原組
李泳 咸興 府内中央町 實業
全朋 咸州 咸州郡州北面官民里 實業
◎昭和八年三月 第十一回 (註)十五回
金子 咸州 府内金明學病院(京城醫學專門學校)
金雨 咸興 (早大)
金兌 咸興 死亡
才津 咸興 東京・中野區 (大邱醫專)
趙聖 咸興 セフランズ醫專
盧瑞 咸興 在東京慈惠醫大
尹合 咸興 道廳土木課
李廷 咸州 豐山小學校
金裕 咸青 不明
金濠 咸原 府内昭和町 自宅

咸	李	吳	韓	金	洪	權	李	元	宋	李	李	崔	崔	趙	金	魯	李	李	徐	朴	金			
守	裕	澁	和	敦	智	學	永	道	秉	永	祖	性	庚	來	秀	鎮	日	炳	壯	孝	敬			
澤	錫	鉉	淑	天	攝	周	玟	俊	晉	昊	甲	熙	壬	春	潤	麟	赫	德	錫	泌	熙			
咸	新	定	咸	咸	新	咸	咸	咸	北	咸	北	咸	咸	三	北	永	咸	咸	洪	咸	咸			
州	興	平	州	州	興	興	州	興	青	興	青	州	興	水	青	興	州	州	原	興	州			
	咸州郡東川小學校	滿洲國新京馬政局(京城法專)	新上金融組合書記	連浦小學校	北青郡廳(京城高農)	京城小林鑛業所	咸興地方法院	仙臺高工	永生中學(物理學校)	自宅	端川郡廳	死亡	咸興昭和藥店(京城藥專)	咸興地方法院永興支廳	教員	州西小學校	三水小學校	道廳地方課	新興金融組合	興南邑事務所	定平郡廳	洪原郡廳	滿鐵(圖們線)	道巡查(咸州郡雲南面)

卒業生名簿

姜	李	柳	朴	朴	宋	金	李	金	韓	金	申	太	金	韓	韓	金	韓	金	金	朴	金	楊	韓
宅	鳳	圭	倫	永	泰	永	求	詒	範	潤	東	學	連	師	學	濠	建	連	連	榮	湘	春	相
變	翼	琬	基	達	根	燮	翰	鉉	相	觀	星	基	珪	珪	模	太	淑	熙	熙	秀	勳	澄	政
永	咸	定	咸	咸	咸	咸	北	咸	咸	利	咸	豐	咸	咸	定	洪	新	咸	端	端	咸	咸	咸
興	州	平	興	州	興	興	青	州	州	原	興	山	興	平	平	原	興	州	州	興	州	州	州
	自宅	金融組合	元山列車區	府內黃金町 實業	咸興府廳	咸州郡西面興烏里	京城藥專	自宅	京城在勤 教員)	咸南道廳	東川小學校	明大學部	京城(武藏高工)	京城藥專	咸興黃金町小學校	早大商科	培花小學校	本宮小學校	端川南斗小學校	咸興營林營	西湖金融組合	川西面高陽里一一六	

◎昭和九年三月(第十六回)

卒業生名簿

金 鎮 益 成 興 (京城法學專門學校)
 朱 鍾 式 成 州
 金 弘 集 成 州 (中央大學)
 劉 漢 鳳 成 北・慶興 雄基面雄基里三五二
 金 東 胤 成 興 川原小學校
 蔡 奎 欽 定 平 高山面新成里二四九
 崔 昌 植 成 州 秋田鑛專
 俞 哲 載 洪 原 明大學部
 李 壽 鎮 成 州 上朝陽面上間里二二七
 李 春 益 定 平 京城醫專
 梁 鍾 股 端 川 成北在勤
 韓 泓 林 成 州 (中央大學)忠南
 金 寶 劍 成 興 羅津憲兵分隊
 朴 龍 洙 甲 山 死亡
 韓 述 模 成 州 (京城藥專)
 李 翼 杓 成 州 咸州郡 州北面興慶里二〇四
 李 東 秀 永 興 新興小學校
 姜 炳 琪 北 青 新浦小學校
 李 永 華 成 興 (第十七回)
 朱 永 在 北 青 京城醫專病院(京城醫專)
 崔 在 緒 成 州 平取正昌ゴム工業所(京城高商)
 金 智 赫 成 興 城大理科
 朱 星 淳 成 州 研究所生(京城醫專)

朱 明 裕 成 州 咸南商業專修學校(京城高商)
 金 鏞 八 成 州 新興小學校
 渡 邊 光 供 新 咸興府自宅
 朱 敏 淳 成 州 城大醫學部(平壤醫專)
 韓 昌 淑 成 興 總督府土木課京城出張所(武藏高工)
 徐 甲 三 成 州 新高山金組書記
 朱 舜 健 成 州 普成專門
 孫 陽 駿 成 興 自宅(橫濱專門學校)
 洪 性 俊 成 州 大阪帝大應用化學部(京城高工)
 金 銀 煥 永 興 永興邑都浪里六六
 黃 炳 鏗 成 興 府内大和町四ノ一四 東英商會内
 韓 炯 載 成 州 平壤醫專在學
 韓 明 植 洪 原 小林鑛業所(平南露遠郡小白面)
 韓 熙 順 定 平 死亡
 金 定 洙 成 興 咸南道廳土木課(京城法專)
 李 徹 承 定 平 自宅
 金 鳳 南 成 州 死亡
 文 在 洙 成 州 京都帝大法學部(佐賀高校)
 申 宗 鎮 成 州 黃金町小學校(京師演習科)
 李 興 坤 成 州 普華
 增 田 己 喜 男 長 崎 咸興錦町小學校(京師演習科)
 石 壽 根 成 州 死亡
 金 炳 琬 成 州 早大專門部商科
 洪 仁 堯 新 興 自宅

李 祥 生 成 興 中大法學部
 林 重 玉 成 興 明川黃谷小學校
 崔 泌 龍 三 水 三水郡江鏡面新芝坡里一〇二 實業
 韓 相 益 成 州 東京美術學校
 韓 熙 周 成 州 普專
 金 澄 根 成 興 興南室素會社(早稻田高等工學校)
 朱 基 永 成 州 興文學校
 盧 鍾 勳 成 州 新興金組(明大商科)
 高 允 明 成 州 中大
 韓 萬 堦 成 州 成興水利組合(東京農大)
 韓 麟 俊 成 興 成興驛(武藏高工)
 李 麗 淑 永 興 永興郡洪仁面都浪里三七ノ一
 金 禹 涉 成 州 江陵醫院(京城藥專)
 文 昌 沼 成 州 滿鐵圖們線(圖們)
 金 敦 雲 成 州 自宅
 韓 泰 彬 定 平 東京醫專

◎昭和十一年三月(第十八回)

金 治 鳳 興 元聖小學校
 李 冕 弼 成 興 平壤醫學專門學校
 韓 蒙 淑 成 興 洪原前津小學校
 柳 弘 植 成 州 加平小學校
 李 鍊 軾 成 州 成興金組書記
 朴 謙 會 成 州 東京水産講習所
 廉 吉 夏 利 原 中央大學專門部
 姜 基 泰 北 青 多賀官立高工
 李 炯 一 安 邊 中大經濟科
 韓 祥 鳳 成 興 早稻田第一高等學院
 李 中 性 北 青 京城高工
 韓 宗 鎬 成 州 東京日大法科
 李 圭 濛 成 興 富山藥學專門學校
 徐 永 昱 成 興 成興物産株式會社
 沈 澤 星 端 川 金組書記(端川)
 金 寶 鏡 定 平 高原秀山小學校
 金 珥 淵 成 興 京城藥學專門學校
 姜 洙 棋 成 興 大同工業專門學校
 文 鎬 周 成 州 自宅(橫濱專門學校)
 李 泰 榮 成 州 金組書記
 吳 錫 律 成 州 那仙小學校
 崔 英 植 成 州 盛岡高農
 金 義 鉉 成 興 奉天製水會社
 朱 慶 中 成 州 京城法學專門學校

卒業生名簿

卒業生名簿

韓寬泳 咸州 九大法文學部(普成専門學校)
 朱基鼎 咸州 金融組合
 朱東雲 咸州 (早大専門部政經科)
 徐昌俊 新原 文山小學校
 韓翊洙 洪原 龍源小學校
 金晶奎 咸州 自宅(東京外語在學中)
 李寬燁 咸州 咸山金組書記
 朴源兢 咸州 在京城
 金星俊 甲山 咸師講習科卒業
 金敬完 咸州 自宅
 李潤根 咸州 京城師範演習科卒業
 朱鍾斌 咸州 鑛山技術員講習所卒業
 韓斗環 咸州 高山小學校
 咸州 東大地震研究所
 咸州 岐谷小學校
 咸州 自宅(京城法學専門學校)
 咸州 安邊郡廳(東京農大)
 咸州 洪原金組書記
 咸州 永興憶岐小學校
 咸州 法政大學
 咸州 城大(理)
 咸州 自宅
 咸州 京城醫學専門學校

朱郁 咸州 長津郡西園面赤水小學校
 梁在瑯 咸州 京城市大(理)
 金炳旭 咸州 原平小學校
 朴鶴榮 咸州 延禧專門
 金植軫 咸州 千佛山小學校勤務
 安鎔仁 咸州 金組書記
 洪丁洙 咸州 咸師講習科卒業
 李致德 咸州 煙草專賣所
 韓弼夏 咸州 式滅高工機械科
 安崑鎬 咸州 中央大學
 金松濤 咸州 在東京就職(東京高等工科學校卒業)
 金亨泰 咸州 法政學科
 黃鍾炫 咸州 物理學校
 金鍾範 咸州 日大
 金承魯 咸州 永興鎮興小學校
 咸州 自宅
 咸州 日本大學
 咸州 興上地域金組合
 咸州 在東京法政大學在學
 咸州 三水金組書記
 咸州 早稻田大學
 咸州 咸興地方法院(中大専門部)
 咸州 京城醫學専門學校
 咸州 京城醫學専門學校
 咸州 京城醫學専門學校

李榮仁 新 興 高原金組書記
 金相圭 成 興 自宅(中央大學專門部)
 金漢奎 成 興 城大勸務(京城藥學專門學校)
 韓景鎮 成 州 京城藥學專門學校
 池鍾水 成 興 豐山郡天南面合盛木材
 崔圭弼 新 興 九大法學部(京城法學專門學校)
 金河駿 新 興 平壤醫專
 崔東衍 新 興 金組書記
 金柱洽 洪 原 鮮銀端川支店(福岡高等商業學校)
 張衡武 甲 山 自宅
 全榮甲 新 興 死亡
 徐相七 永 興 中央大學
 申泰實 成 興 豐山小學校
 李秉泌 成 州 朝鮮鑛業株式會社東川出張所
 金權鎬 成 州 明川稅務署
 韓鴻逵 成 州 茂山小學校
 李種允 成 州 東京物理學校
 山野井喜一 成 興 成興馳馬台小學校
 全榮林 成 州 滿洲國立法政大學
 金豪雨 成 州 別東小學校
 李錫解 成 州 高等無線電信學校
 韓秀會 成 州 草原小學校
 李明煥 成 州 東京農大
 朴炳顯 新 興 東京外國語學校

卒業生名簿

金益浩 文 川 青山學院
 崔東一 成 州 自宅 藥業
 韓仁鎮 成 興 自宅 藥局
 金炳七 成 州 教員(京城師範)
 朴燦國 成 州 教員(京城師範)
 朴哲憲 永 興 中央大學
 金春繼 成 州 元山銘在小學校(京城師範)
 朴昌鎬 成 興 城大藥科(理)
 韓榮鎬 成 州 咸州郡州西面下九里(京城師範)
 林炳浩 成 興 朱地小學校
 李鎮慶 成 興 早稻田大學
 李在亨 北 青 不明
 文相來 成 興 武藏高工土木科
 朴舜基 成 興 金組書記
 洪義堦 新 興 自宅
 朱基鍾 成 州 鐵道局
 李鼎周 成 州 金組組合
 咸淳福 北 青 本道鑛山技術員養成所卒業
 韓鎬燮 定 平 城大藥科
 孫浚得 洪 原 城大豫科
 黃珪進 成 州 明大商學部
 李麟永 成 平 京城師範
 李廷弼 成 興 東京文化學院文學部

昭和十三年三月 (第二十四)

卒業生名簿

韓	崔	韓	李	全	李	太	金	金	李	宋	韓	徐	金	黃	薛	崔	全	金	石	任	金	尹	金
國	國	義	錫	鎮	求	廈	秉	實	基	定	海	光	裕	載	永	淳	世	世	天	圭	基	斗	宗
楨	煥	旭	珪	華	興	基	濂	煥	煥	燮	龍	洙	哲	駿	基	祚	經	奎	福	新	善	翼	海
咸	利	新	咸	咸	北	豐	咸	咸	咸	咸	咸	元	咸	永	端	咸	咸	咸	咸	咸	咸	永	咸
州	原	興	州	州	青	山	興	州	州	州	州	山	興	興	川	興	興	州	州	興	興	興	興
	武藏高工電氣科	山口高校在學	滿洲國建國大學 教員	中央大學	新京小學校教員	巢鴨高商	小學校訓導(成師講習科卒業)	金池組合	成興府廳	武藏高工土木科	京城高工鑛山科	岩手醫專在學中	京城藥學專門學校	在東京 準備	京城藥學專門學校	教員	日本大學工學部	(中野無線電信學校) 教員	新興金池組合東上支所	朝鮮總督府鐵道局(元山)	自宅	新京實業(普成專門商科)	

申	郭	李	李	都	金	李	鄭	韓	金	崔	文	白	韓	金	朱	金	趙	崔	邊	朴	韓	金	朱
東	泳	宅	訪	相	錫	柱	宗	道	興	仁	興	萬	尙	泳	忠	亨	錦	玉	普	演	大	錫	瑾
俊	茂	珪	在	斌	泳	石	股	淑	洙	根	洙	吉	炯	鍾	損	穆	潤	德	燦	珪	淑	宰	燦
高	洪	咸	定	興	北	三	甲	咸	咸	咸	咸	豐	咸	咸	咸	咸	北	咸	咸	文	北	咸	咸
原	原	州	平	南	青	水	山	州	興	興	興	山	興	州	興	興	青	興	州	川	青	興	州
	早稻田第二高等學院 自宅	東京農業大學豫科	教員	法政大學經濟學部	教員	橫濱專門學校	大連高商	下朝陽小學校訓導	東京美術學校油畫科	京城商工學校教員(日本體育專門學校 卒業)	武藏高工	自宅	自宅	法政大學經濟學部	進學準備	物理學校	中大專門部法科	大同工專在學	日本大學部豫科	大分高商在學	セフランス醫專在學	日本拓殖科	教員

李社燮 咸 州 朝陽小學校訓導
 李昌協 咸 興 拓殖大學
 韓世憲 永 興 平壤醫專
 韓郁燦 咸 州 教員
 金庸奎 咸 州 在東京
 李冕學 咸 興 京城法專
 崔忠熙 咸 興 自宅
 李柱炯 咸 水 教員
 金炯道 咸 州 教員
 朴管鎮 咸 平 武藏高工土木科
 林炳書 咸 興 自宅
 李壽根 咸 州 教員
 金錫崑 咸 興 武藏音樂學校
 金相球 咸 原 自宅
 石啓璵 咸 州 京城高工
 金炳珪 咸 興 文山小學校訓導
 韓富永 咸 興 自宅
 高辛得 咸 州 東京氣象技術官養成所
 羽金暉一 福 島 北京大學
 李沅根 咸 興 自宅
 洪相燧 咸 興 城大豫科
 權泰弘 咸 興 日大專門部拓殖科

◎昭和十四年三月(第二十一回)
 李林學 京城帝大豫科在學

卒業生名簿

李錫心 京城帝大豫科在學
 高燮璵 進學準備 自宅
 金洛鏞 京城高商在學
 金鏞建 興南邑事務所勤務
 韓喬石 京城帝大豫科在學
 李正淵 進學準備
 劉正諳 佐賀高等學校在學
 安省信 水原高農在學
 申鉉栢 京城高商在學
 韓相鶴 進學準備
 李英環 山口高校在學
 李濠健 京城高工在學
 朴亨遠 小學校訓導
 孫光柱 進學準備
 金光涉 平壤醫專在學
 安國璵 進學準備
 姜東濱 京城高工在學
 韓霖赫 家事從業
 李澈宰 橫濱專門在學
 朱仁鎬 京城醫專在學
 田學淵 福岡高等學校在學
 金命浩 小學校訓導
 崔珍基 進學準備
 朱瀚裕 水原高農在學

卒業生名簿

金龍澤 小學校訓導 州北啓東小學校

劉忠喜 進學準備

全明洙 立命館日滿高工在學

韓東允 早稻田第二高等學院

元藩 京城法專在學

朴在均 京城醫專在學

徐重允 普成專門學校在學

朴晉相 家事從業

朴東振 北青稅務署

延承詰 進學準備

金永極 平師演習科在學

韓台集 家事從業

金宗彦 小學校訓導 豊山郡熊耳小學校

金昇奎 進學準備

趙蕪銜 早稻田高等學院

李亨福 滿洲國中央師道學院卒業

金源政 (在東京)

山本廣 大東文化學院在學

黃珪遼 咸鏡南道咸州郡州北面中興里二八六番地

金榮鎬 興南朝靈火藥會社

元勳基 小學教員

大森新命 (山形) 北京興亞院在學

韓乘寬 函館水産學校

韓熙周 小學教員

李基鍾 鴨綠江水電(京城)

李駟欽 金融組合

朴在坤 京城地籍講習所卒業

朴周一相 東京醫專

白井光雄 京師演習科

李良錫 小學校教員

韓智和 自宅

全榮郁 小學校教員

董洪奎 咸鏡南道豊山郡熊耳面都上里三〇七番地

松本 年平 滿洲國立醫科大學

李奎軫 明大興亞科

吳圭洪 普成專門

張成鎬 中央大學

金恒淵 在東京

鄭鎮宇 京畿道京城府社稷町一二六番地

山本 鐵信 死亡

金斗煥 三水郡廳

金錫成 咸興府福富町一丁目三五番地

劉鳳鍾 永興郡長興面鼎東里九七番地

申允稷 貴福中學補習科卒業

李相胤 咸興府城川町一丁目五〇番地

姜泰洙 端川郡利中面門岩里四番地

全詰林 咸南道廳

李梓春 本道鐵山講習所

昭和十五年三月第二十二回卒業生一覽

(甲、乙組身長順)

●印優等 ●印五箇年皆勤 △印五箇年精勤 八十六名

姓名	出身校	原籍	卒業後希望
高明相	錦町小	成興府城川町一丁目五五	岡山六高
朱乾利	城小	利原郡南面栗枝里二四六	松江高枝
韓麟	黃金町小	成興府沙浦町二丁目三七	平塚醫專
朱鑑	鎮錦町小	成州郡上朝陽面上岡里三三	山口高枝
姜錦根	錦町小	成興府山手町一丁目一八	東京醫專
玄鳳	鎮東古川小	新興郡新興面京里三一六	松江高枝
林昌杰	新南小	長津郡中南面酒水里六二	大邱醫專
徐昌漸	錦町小	成興府城川町一丁目八八	ハルビン工大
李琪	變元山銘石小	元山府銘石洞一〇三	明治學院
金相	藤上西湖小	成州郡興南邑西湖里	京城高工
金載	健興上小	成州郡朱地面豐西里一六	早大第二高
韓淳海	衛益小	安邊郡衛益面細浦里三七	岡山六高
韓瑋	植五老小	成州郡上岐川面竹里七五	橫濱商專
△朴聖煥	新昌東小	北青郡新昌面新昌里元七	京城法專
黃石峯	元山光明小	成鏡北道慶源郡慶源面龍山洞	京都藥專
●張榮國	黃金町小	成興府本町四丁目九〇	京城高商
湯澤	康全北全州小	宮城縣仙台市連坊小路元益	東京高農
成致	鋪新浦西小	北青郡新浦邑八二九	日大醫科
全銘	鶴揚川小	北青郡新北青面楊川六六	京城高工
劉鑑	鎮錦町小	成興府大和町四丁目五八	佐賀高枝
嚴浩然	前津小	洪原郡洪原面都井里一	京城高商
李惠	永新上東小	定平郡新上面采洞里三三	平壤醫專
金禧	庚仁興小	永興郡仁興面上坪里二七	陸士
金明	運定平東小	定平郡定平面永豐里三〇	大同工專
李東	信加平小	新興郡元平面豐西里三八	滿洲國立法大合格
梁容	模高原西小	永興郡檀岐面仁興里一八	水原高農
孔守	範錦町小	定平郡歸林面河東里六六	城大豫
●韓	湧州北小	成州郡德山面會陽里二九	成師
申泰	燦錦町小	新興郡新興面中興里二〇	特別志願兵
朱道	深錦町小	成州郡州西面西上里三九	松江高枝
南相	玉五老小	成州郡上岐川面五老里三〇	家
李璋	洙草原小	永興郡順寧面豐陽里	京城高工
崔鍊	談鶴城小	永興郡德興面新昌里一八	京城高工
崔俊	植黃金町小	成興府黃金町三丁目四八	慶應醫科
洪昌	杓退潮小	成州郡西退潮面松榮里二〇	大連高商
朴演	喜秀鮮小	文川郡明龜面上坪里二九	慶大豫
△李基	偉錦町小	成興府會上町六二五	佐賀高枝
崔昌	奎永興城西小	永興郡鎮坪面天皇里八	日本美術
金泰	鉉黃金町小	長津郡新南面吉土里六二	松山高枝
文相	駿錦町小	成興府山手町二丁目六九	京城藥專
△韓彰	東五老小	成州郡上岐川面上里五七	京城高工
金虎	吉錦町小	成興府城川町三丁目六九	滿洲國立工大
●安	霖黃金町小	成興府城川町三丁目六	福岡高枝
崔龍	煥三湖小	成興府春日町二丁目三九	神戸商大豫
韓暈	洙前津小	洪原郡洪原面穿中里二四	京城法專

洪南戌 黃金町 小 成興府黃金町二丁目六七 城大豫

金宗赫 成興永信小 成興府福富町一丁目六九 山口高技

金曼奎 錦町小 成州郡川原面柳亭里三九 京城高工

李普元 地境小 成州郡州西面興南里一七五 新京醫大

申衡均 永興城西小 定平郡定平面松亭里三〇 京城醫專

金龍驛 黃金町小 成興府軍督通二丁目五ノ三 露山藥專

崔九淵 錦町小 成興府本町二丁目二三 京城法專

鄒梯根 東川小 成州郡東川面會陽里三九六 成師

金亨信 錦町小 成興府山手町一ノ八七五 滿洲國立工大

趙在衡 永興城西小 永興郡永興面龍南里三三 早大第一高

李舜益 新上東小 定平郡新上面盤谷里三三 城大豫

黃宛駿 秀峙小 文川郡明龜面主山里五二 松山高技

廉元德 前津小 洪原郡洪原面東桑里二一 城大豫

金周炯 永興城西小 定平郡定平面中興里二三 城大豫

韓錫祺 東川小 成州郡東川面下東興里〇五 新京醫大

●韓景淳 興上小 定平郡朱伊面王樂里三三 滿洲國立工大

趙弘紀 把撥小 豐山郡安水面長坪里二〇 陸軍建築技術

韓永燦 新上東小 定平郡文水面股興里三九六 松江高技

李乙容 新上東小 定平郡新上面柳中里三六 城大豫

徐甲承 興上小 成州郡朱地面溪東里三六 家那

金際暉 天南小 豐山郡天南面長坡里 富山高技

全鶴源 永高小 新興郡永興面興里二一 浦和高技

尹應國 黃金町小 成興府本町三丁目一七一 早大第一高

△張贊鎭 仁興小 成興府本町五丁目六七 成師

洪德熙 黃金町小 成興府城川町一丁目三六 京城法專

陳忠國 永興城西小 永興郡永興面三思里一三 ハルビン學院

成鼎周 高原西小 高原郡高原面新盛里五六 字部高工

李燮鏞 錦町小 北青郡德城面水東里一三五 京城醫專

△李燮鏞 五老小 成州郡上岐川面中上里三〇 京城藥專

金祐燮 黃町小 成興府城川町二丁目九二 陸軍建築技術

田代慶太郎 福岡縣八小 福岡縣八女郡光友村 大字山崎二〇四四 朝銀決定

徐昌仁 東古川小 新興郡新興面興京里三三 ケヤムス醫大

黃炳厚 錦町小 成興府大和町四丁目一四 日大豫

薛龍興 福城小 端川邑東下里一六 京城高商

金東輝 福城小 端川邑上西里一〇 城大豫

●韓秉濂 錦町小 定平郡定平面東川里五九 家那

●金東成 錦町小 成興府山手町二丁目三八 京城醫專

洪南壬 黃金町小 成興府城川町三丁目二八 山口高技

朴容弼 朝陽小 成州郡川原面東上里三五 京城藥專

金斗浩 黃金町小 德源郡赤山面松中里三五 新京醫大

張秉珉 黃金町小 成興府城川町四丁目三〇 成師

特別會員名簿

受持學科	姓名	就職年月日	現住所	本籍	國	漢	現住所	本籍	國	漢
學校長	橫田峰三郎	昭和六、三、三	府內中央町官舎	栃木	理科、實業	高山 仁	昭和五、四、二	府內春日町二丁目	宮城	七二
英語	清川 恂	大正四、三、三	府內山手町三ノ三六	成南	音樂	木村松雄	昭和五、四、二	府內出雲町二九二	愛媛	一六四ノ二二
數學	五十嵐高之	昭和五、三、三	府內錦町一ノ七七	山形	國漢	重住芳雄	昭和五、四、三〇	府內昭和町二丁目	福岡	一一〇
國漢	日置加賀夫	昭和五、三、三	府內中央町三ノ八八	石川	理科、數學	綿林光雄	昭和五、九、二	府內軍管通二丁目	廣島	三二
國畫、習字	奥野德一	昭和八、三、三	府內盤龍峯町四六	廣島						
歷史、地理	永田 忠	昭和八、四、七	府內中央町三ノ六	熊本						
理科、數學	白井政雄	昭和八、九、三	府內日出町九五	茨城						
教練、體操	内田爲彦	昭和〇、一、四	府內盤龍峯町一五	山梨						
英語	鹽崎文治郎	昭和〇、四、八	府內中央町官舎	三重	重田勘次郎	朝鮮獎學會東京支部長				
公民、歷史	五味一德	昭和二、一、七	府內中央町官舎	山梨	夙早實馬	東京市杉並區高圓寺七ノ九九九				
事務	佐方敏雄	昭和二、五、三	府內中央町官舎	山梨	宮八武雄	千葉縣立高等園藝學校教授				
理科、實業	平野茂一	昭和二、五、三〇	府內昭和町武德殿	千葉	相原美治	京城龍谷高等女學校				
武道	平岡達洙	昭和二、二、六	成州郡州北面興祥里	成南	古谷綱隆	愛媛縣東宇和郡宇和町小學校				
事務	佐藤恭一	昭和二、三、三	府內本町四丁目八	成南	吉野久次	死亡				
英語	齊藤秀雄	昭和三、三、三	府內本町四丁目八	成南	橋本末實	熊本市櫻井町六				
體操	清原 鼎	昭和三、七、四	府內本町四丁目八	成南	仲川彌作	京都府加佐郡岡田上村地頭一八				
修身、商業	道津利吉	昭和四、八、一	府內東雲町陸軍官舎	長崎	佐藤 忠	三重縣志摩郡鳥羽町大字鳥羽一四				
配屬將校	德原永二	昭和四、九、五	府內春日町二丁目一六四ノ四八	成南	鳥井一夫	京都市佛具屋町通若宮町六五四				
數學	新本鋪震	昭和五、二、〇	成州郡州北面新豊里一三四	成南	宋 寅	江原道淮陽郡淮陽面邑内里				
事務	津田文平	昭和五、四、九	府內錦町二丁目三	兵庫	米谷榮松	宮城縣加美郡中新山町字南町一一八				
英語					西山泰吉	死亡				

舊職員名簿 (客員)

重田勘次郎	朝鮮獎學會東京支部長
夙早實馬	東京市杉並區高圓寺七ノ九九九
宮八武雄	千葉縣立高等園藝學校教授
相原美治	京城龍谷高等女學校
古谷綱隆	愛媛縣東宇和郡宇和町小學校
吉野久次	死亡
橋本末實	熊本市櫻井町六
仲川彌作	京都府加佐郡岡田上村地頭一八
佐藤 忠	三重縣志摩郡鳥羽町大字鳥羽一四
鳥井一夫	京都市佛具屋町通若宮町六五四
宋 寅	江原道淮陽郡淮陽面邑内里
米谷榮松	宮城縣加美郡中新山町字南町一一八
西山泰吉	死亡

北山平六 岡山縣御津郡宇垣村大字宇垣八八一

中村彌三郎 東京市牛込區南板町五七

新居一郎 朝鮮總督府列事

久德隆篤 滋賀縣栗太郡治田村大字下鈎五〇八

那波健夫 大分縣北海郡白杵町大字海添六三九

西龜正夫 廣島縣吉田高等女學校

磯部稜威雄 太田公立中學校校長

長友眞喜哉 興南公立小學校

林原吉春 熊本縣宇土町大字宇土四三

山下傳三郎 福井縣三國郡三國町松ヶ下四五

高橋虎彦 大邱公立高等女學校

正木傳作 香川縣三豐郡財田村大字財田上一七五二

阿部廣仕 京畿公立中學校

依田寛 長野縣小縣郡和村二二〇

岡久 江景公立商業學校

辛在臨 咸州郡州北面雙松里九七

雨宮安一 山梨縣東山梨郡玉宮村一七八

谷村捨次郎 石川縣河北郡小坂村字神谷四四

後藤賢志 馬山公立高等女學校

金澤頑雄 宮城縣立仿治中學校

篠原春光 香川縣仲多度郡南村大字柞原一一〇六

全在鳳 死亡

田宮誠次郎 葛麻公立小學校

殿樂利雄 死亡

大庭儀三郎 死亡

柳春熙 死亡

山根登七 島根縣野賀郡周布町

佐村信平 京城府圖書館長

中井隆雄 朝鮮窒素株式會社

小森二郎 東京市板橋區練馬

李道元 京城

上遠野多吉 死亡

澤木茂正 元山公立高等女學校

福田慶之助 死亡

永田次郎 朝鮮窒素株式會社

文錫烈 死亡

山口三樹三郎 死亡

竹中毅(岡本) 全州公立中學校

高橋隆敬 元山府泉町出雲大社

石田修 平壤府立圖書館長

吉田千代秋 京城府南山町三ノ七

小笠原雄七 新潟縣西頸城郡能生谷村大字楨一九七八

吉田二三 熊本縣熊本黑髮町

西本數馬 虛川江水電事務所火藥係

韓意教 府內本町三丁目文廟直員

西坂頼二郎 東萊公立中學校

早川善吉 死亡

櫻井光嗣 死亡

高橋正一 千葉縣市河市菅野

和田正男 琿春特務機關官會

早田萬年	死亡
山野井喜重	咸興公立中學校
鈴木泰吉	咸南公立高等女學校
深水二一	咸南公立中學校
野村直彦	咸南道農事試驗場
金日編	咸南道學務課
高橋次平	東京市板橋區板橋町三五六
川田達德	順天公立中學校
一色忠夫	仁川公立中學校
金乘魯	咸興師範學校
大竹菊三郎	靜岡市東深草町二ノ二七
高田重幸	不明
森川梅太郎	
高塚義八	盤龍寮陸軍官舎
宮崎義信	府内中央町三ノ七〇
井上勝	馬山公立中學校
堀江吉莊	鏡城公立中學校
石川實	咸興中學校長
渡邊一二三	京城公立農業學校
加藤孝平	興南公立工業學校
中島光太郎	咸興公立中學校
武部覺太郎	北支新民會
尾崎孝德	咸興公立中學校
清水林立	鐵原公立高等女學校

咸澤好
 咸南公立高等女學校
 咸興警察署
 咸南公立高等女學校
 井上公義
 咸興警察署
 佐藤信正
 咸南公立高等女學校





雜

錄

在學生名簿

普通會員名簿

(註)二十三回

五學年中組

平金平徐完金安豐白西金林松野金安永青安豐江
 松光伊本山枝本原山原宮 山村谷村城岡川川金
 信信繁昇秀武榮信 永大陽 培光忠誠鷹圭昱克
 哉彦雄幸雄男二一寬集芳均垣根祐根福變演彬昌

金清金西金三完清宋川永完三新平利清大清香平新
 江川城原平原山原 山島城山和原山川原山原山松井
 東益崇哲信敏股隆 二 行觀隆義光丈秀 漢光重
 健男雄栢雄正在一郎雄樹政昌雄夫光亨世茂淳雄成

五學年乙組

金松芳松松松官利清朝松永若西東西金松上安 金朱大
 原山村原江谷本原水山山原桑原村原原山原川 谷本金
 弘鳳秀茂河高高康一輝銀相元 武昇正儀 文 竹奎麒
 芳敏盛久膺芳幸夫郎一三遠治勝治三昇憲芳裕 芳益洪

林金松江賀張松徹玄金原朝忠東松大城崔永龜山金岩松
 岩川原川本川本垣平元川池本岡林川澤川岡本山城村
 秀秀清 正斗二貫幽基良元昌定根久成 義佐福省弘品
 雄政一薰藏煥世一芳壁鎮植龍千孝光銘冽範謙肆三尙浩

四學年中組

清香高金玉松東加平金西清松松宮鄒松清李 高清清金
 金川木田山洲村 良海谷原原田山本村原原原 山原村岩
 孝忠 尊吉煥秀清 正慶永台常 厚守鉉正泰 國秀熙有
 雄模清集彦國雄兄雄次根伯熙祐根斌五雄洙 男貞録慶

情清永松金金金金岡木佳高吉廣松平武米金三竹三清清
 原原滯川田川平林田村山山田田村木永原村井本本原松
 哲邦東昌敏成定秀宗國南明森明哲鍋文鉉治一光哲錫時
 三雄調平男澤夫夫久在炫元一隆次鳳雄斗男俊毅正範坤

牧東平高金金清新松情南都三全新 周星江清瑞永西金
 野 海山光田原居原原 中村木 四學年乙組 原山川原原島原官
 幸 秀義宗善均哲政幸哲義啓秀文 熹 一東國吉永性
 雄黨雄卿次敏相廣雄一祐民道世雄 銓爽說哲祐雄弱八

松德利金咸岡伊金金金元金金魏高竹松松齊金大金金松
 城峰川河原村東山原本 本山村山村山本本村山谷原原
 得 正茂榮永善佳一安東明圭成晴重佳吉政植義政武剛
 善郎雄功德達雄正夫世河大次炫次男永弘光三駿儀雄一

金松秦金新川柳金德金 太城李金金密金東國松國宮金
 光村永村本本山山蒲山 三學年甲組 安木家原林城山原本村本本山
 秀鍾富俊諱寬乘尙安明 泰健和文俊聖尙演武乘柱健瓊
 昌佈吉秀鎮行乙伯泰哲 益一吉治雄熙必邦雄治景吉鶴

大邦大新金三田吉松江平松弘高金新延清永岡增德金平
 城本原田子中原本原原松谷原山 川 木山元城田永山山昌
 尙建偉忠正章市鼎永光 武義智 英一宜貳光 根昌興
 在二聖作磨義郎德明德茂雄久行郎盛郎行衛浩豐瓊達模

青朱金、岡德權延安松松金高平金金金金永永中木金
 海本子 三學年乙組 田山藤安原岡原山山島城谷村塘川城田本戶山
 正光富 尙英宅東正憲寬鐘 範建興應秀陸敏茂武俊英
 浩男雄 久雄淵永雄京雲九弘久述秀國義義照久山雄雄 報

德江松西金安谷金林安新金鎮金安玉金廣徐中香英香清
 安原田原枝川山林 豐馬谷川城川川本松川原山井山瀨
 芳正陸 茂秀明基時泰 東時相樂長光貞甲 澈能
 盛信吉健盛格浩星次善男瀧光熙有得弘敏成棣元冕奎冕

李渡清金中吳新岩新新安李金清高川金清長松松張香松
 家邊原岡 田野木城井川川原谷原山長島原野岡井村林本
 成熙琮 治 富宗敏永清忠鎮京富相浩成鶴鐘 武秀忠圭
 雄根根郎久男弘郁友平圭浩夫豹益國雄善茂男雄宏元鑑

福三權金宮吉康清金平大松金松稗平松金宇松福金新
 田桂藤城本本川原山山智山林井村松山山原 川原城井
 陸範鎮秉景彰景 完茂一尙祐健松 健 正 太 永政政
 吉鐘城萬淑秀鄉澈鍾雄憲世巨吉雄忠一馨治郎哲一尖

永金三林宮東金大金平大朱高三金西金三金野金香宮昭
 山子原 本村原川山山原本 田山 海 川山和門田城山本山
 富龍 春虎泰春龍尙榮秀處鳳秀 太 龍昌圓 熙哲一在
 久宰實男雄珉雄夫暉 一男裕景國郎雄世昌慧實政德秀杰

蔡高松西高信西川白梁山金新 柳富德平平金星金清金
 原山城本野安原本 川 川 本 山 川 二學年之組
 一 雄松相 偉 大 泰 錫 炳 鎬 哲 旻 弘 輝 安 良 治 健 昌
 臣 兢 善 俊 鉉 雲 弘 永 郎 鯉 斧 善 漸 徵 二 雄 吉 久 盛 雄 道 夫 熙

松松金藤德宮吉永德松柳平清清金星木宮德金三高清大
 平永山本安本村原山村川沼原原山村山本安光谷山原島
 暫岩實秀政浩吉鉉政昌英榮炯尙錫茂鉉熙正啓華良
 茂三吉一一昭敏勝實德繁信啓駿弘衡盛彌相重裕聖雄勵

永清 金岡金金鶴石平西吉綾平松延清柳清金金新元金
 野溪 一學年甲組
 聖政 子村山山山井井原田島川川川原本原田村安村本
 政 永德春晚壽 哲文英光竹 春英鼎鍾淵健文敏
 政男 宏吉相宰起男郎雄源芳重均郎雄夫變集明一政永

安清興竹玄平張清伊木千金三通小三金信豐安大木原大
 田原本村原林本本泉川原原本川泉山海安原原山川川山
 光裁晟政鳳邦宗澤博京常 基淳 秀 秀相泰正幸在
 孝沐鎮男燕夫彥鎮司華義透范紹郎隆雄泥雄柏球清久乾

金金金石白金山田岩原岩本 山 井 本 山 岡 澤 村 山 澤 川 井 村 川
 文有文俊秀鍾孝季章烘 二 政 淳 清 熙 武 文 文 博 清 秀 勝
 鐸 雄 憲 雄 興 雄 虎 信 遠 洙 明 郎 雄 敦 秀 文 雄 彥 英 三 司 文 明 勇

三新金山豐山三金清新
 原川山本元桂山海原井
 國清吉柱常一鑪尊淳乘
 次

正永男突熙成鍾江輔二
 周雄郎

崔宮清高平夏清松松吉金永川
 村原山山山山原山山原山
 星壯永道圭泓哲進洙成忠成
 河二二三鋼雄榮模雄嶺吉
 豐元雄政灑

真・新・新・新・梅・宮・增・清・玉・南・金・富・平・金
 津・川・田・原・本・林・水・川・林・倉・永・山・井
 敦・相・孝・一・照・英・勝・清・新・鍾・冰・世・璿

連・雄・微・夫・雄・己・男・義・正・長・浩・八・雄・柱

清・邦・圃・永・金・佳・新・青・青・山・山・廉・邦・金
 原・本・村・浦・山・山・木・松・岡・本・林・原・本・海
 大・正・興・東・東・誠・清・信・正・視・聖・大・光
 成・敏・德・虎・右・憲・實・司・一・英・煥・愈・植・次

大・金・安・中・宮・東・松・金・藤・樋・平・吉・竹
 原・澤・田・里・本・川・川・井・口・本・原・原
 久・景・吉・崇・容・明・泓・秀・和・一・和・武・久
 明・一・德・德・杰・代・模・雄・生・郎・丸・信・雄

雜報

編輯後記

同窓會誌(一九八六年 號)가 나간 후 여러 동문에게서 갖가지 문의를 받았는데 그 중 하나는 二九回 金正辛氏의 편지였다. 그 부친 金敎蘭(第八回)氏는 早稻田大學 卒業인데 同窓會誌에 전재한 一九四〇年の 威南中學校 友會誌의 卒業生 名簿에는 明治大學 卒業이라고 되었으니 正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는 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第五回 徐舜赫氏는 立敎大學 卒業生인데 九州大學 卒業生으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 同窓會 會長 金載元氏도 哲學博士와 醫學博士로記載되어 있는데 醫學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다. 이러한 잘못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나 지금 一九四〇年度 威南中學校友會誌 소개의 卒業生名簿를 수정할 수는 없고 參考資料로 取扱하는 관례로 보아서 不可能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參考資料이고 모두 사실 그대로라는 뜻은 아니

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威南中學校 卒業生名簿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 現在의 同窓會 會員名簿에 올라 있는 예도 많다. 전기 校友會誌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정식으로 卒業狀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同窓會員중에는 정식으로 卒業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과란 많은 中學時代에 중도 退學하고 정식 卒業 못한 사람중에서도 任員會가 會員으로 받아 들인 일이 있기 때문이다.(會則 第四條 參照)

전번 同窓會誌에는 一九四〇年度 校友會誌에 실려 있는 特別會員 名簿와 舊職員名簿(客員)를 轉載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는 參考資料로 그것까지 실어 놓았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校友會誌 一一五面 大正十二年 三月(第一回

新制(以下 同様) 아래에(註 五回)라고 실려 있는데 이것은註 十五回까지 계속되어 있으나 原 校友 會誌에는 없는 부분이며 작년도 편집하는 사람이 잘못 挿入한 것이 다. 그런데도 지금 그것을 그대로 둔 것은 新·舊制를 통 일된 卒業回數로 일원화하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註라는 것은 역시 옳은 表現은 아니나 그런 의미로 너그라이 보 아주기 바란다.

또 한가지 이곳에 밝히고 싶은 것은 咸興高普(咸南 中學) 沿革에는 一九四七年에 학제 개편으로 閉鎖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우리 會員 명부에는 그 후에 卒業 同門이(三〇回 以後는 전부) 그런 분들이다. 이것은 當時 北韓의 특수한 事情으로 入學은 분명히 우리 학교에 하였는데 다른 學校로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 까닭이다. 이 경우 入學한 것이 표준이 된 것이다.

이 同窓會誌에 利用한 校友會誌는 우리 會長님이 소장 하고 있는 것으로 一九四一年 後에 나온 會誌가 南韓에서 發見된 것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혹시 갖고 있거나 發見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總務에게

連絡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는 美國에 居住하는 우리 會員들이 美東 部地域 咸興高普(咸南中學) 同窓會를 創立하고 매해 모임을 갖는다는 消息과 함께 會則 名簿등을 보내와 이번 號에 支會로서 처음 任員 및 會員名簿를 등재 하였다. 이 同窓會誌 發刊을爲하여 原稿과 資料를 보내주시신 國內外 會員들과 그리고 많은 激勵의 片紙와 贊助金을 보내주시신 美東部地域 同窓會 員과 會長 金澄次님 韓大淑님에 感謝드리며 이번 號에서도 또한 신적인 努力을 傾注하여 주신 우리 金載元會長님과 總務 朴溶夏 後輩께 더욱 感謝를 드린다. 同時에 編輯委員 여러분의 勞苦에 對하여도 深甚한 謝意를 表하고자 한다. 앞으로 더욱 充實한 內容으로 알찬 會誌의 繼續 出刊을 期待하여 보며 今後 많은 同門들이 參與하여 많은 寄稿를 해주셨으나 紙面關係로 一部 修正 削除 등 不可避한 措置에 對하여는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 同門들의 健康과 幸運이 여러분 家庭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祈禱드리면서 編輯後記에 감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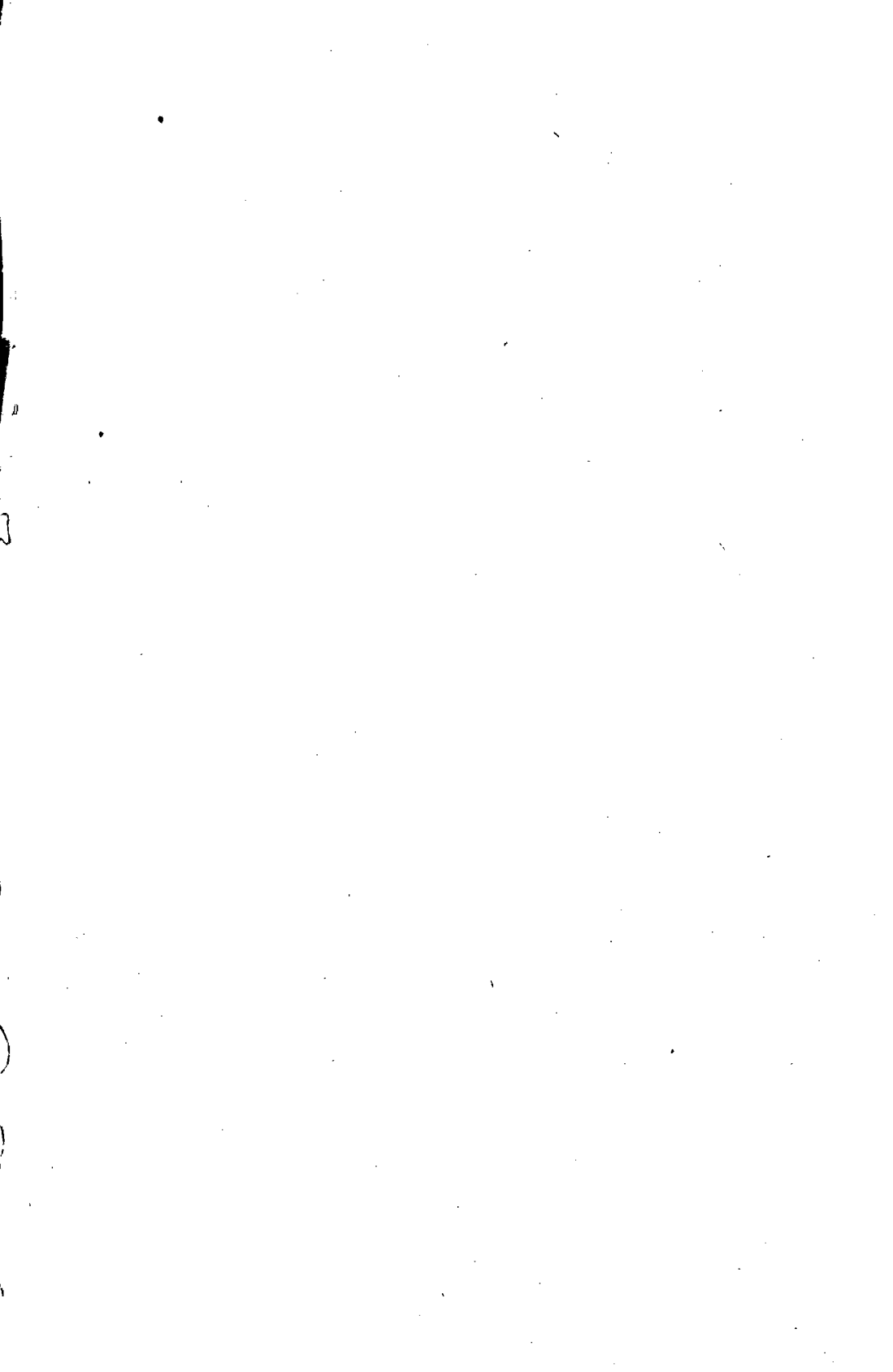
一九八七年 七月

* 表紙說明 * 咸興高普(咸南中學)의
象徴인 螢雪을 表象함.

■ 題 字 : 玄堂 朴 泳 馥 (第 24 回)

■ 表紙그림 : 李 鎬 植 (第 30 回)





□ 제2호 동창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JAPANESE RESTAURANT

SHIN JU 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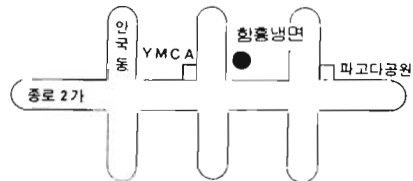


한남동 순천향병원 건너편

TEL. 797-5433

종로 함흥냉면

(불고기, 쌀국수, 연회석완비)



서울종로구 인사동 98

TEL. 733-1460

